

研究報告 21
1980. 12

米穀流通에 관한 研究

朱 龍 宰(首席研究員)
劉 南 塾(研究員)
尹 錫 元(研究員)
李 英 基(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리말

米穀은 主要食糧作物로서 農家所得의 大宗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의 主食糧으로서 國民經濟全般에 걸쳐 그 重要性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다.

그동안 政府에서는 米穀의 自給達成을 위하여 꾸준한 努力を 한 결과 한 때 主穀의 自給을 달성하였으나 新品種의 病蟲害 등으로 近年에는 쌀이 부족되어 상당한 外米를 導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政府에서는 收穫期 米價安定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二重米價制를 실시하여 왔는데 放出價格을 상대적으로 低水準에 유지시킨 결과 최근에 政府米가 不正流通될 뿐만 아니라 糧特赤字 증가로 通貨增發이 되어 問題가 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經濟成長過程에서 都市化가 진전되고 交通·通信手段이 발달되는 등 米穀流通構造面에서도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米穀流通環境의 變化에 效率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수집코자 產地 및 消費地米穀流通의 現況 및 問題點, 政府米流通實態, 그리고 消費家口의 米穀消費行態 등을 調查分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本研究는 朱龍宰 首席研究員을 비롯한 食糧經濟研究室의 研究팀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研究結果는 研究者들의 責任일 뿐 本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80.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甫炫

빈

면

目 次

머리말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1
2. 調査研究 内容	1
3. 研究方法	2

第 2 章 米穀經濟의 概要

1. 米穀의 國民經濟의 位置	4
2. 粽의 需給現況	10

第 3 章 米穀流通의 概要

1. 米穀流通組織	14
2. 米穀流通經路別 流通量 推移	15
3. 米穀流通構造의 變化	19

第 4 章 生產農家の 米穀流通實態

1. 調査農家の 概況	23
2. 米穀販賣實態	27
3. 先 渡 金	34
4. 貯 藏	37
5. 輸 送	38
6. 市場情報	39

第 5 章 產地米穀市場 調查結果 41

1. 京畿道利川地域 42
2. 全北金堤地域 47
3. 忠南論山地域 52
4. 產地米穀市場의 特徵과 調查要約 54

第 6 章 消費地米穀市場 調查結果

1. 서울시 米穀市場 概要 57
2. 類似都賣市場의 米穀流通實態 62
3. 小賣段階의 流通實態 65
4. 產地直結流通과 都賣市場經由流通의 比較分析 77

第 7 章 流通段階別 等級, 規格 및 包裝利用狀況

1. 等 級 89
2. 包裝 및 規格 91

第 8 章 政府米 流通實態 및 問題點

1. 政府米 流通組織 94
2. 積收買 및 放出動向 95
3. 積收買 및 放出價格動向 98

第 9 章 消費者家口의 米穀購入 및 消費行為에 관한 調查結果

1. 調查家口의 概況 108
2. 米穀購入實態 110
3. 米穀의 消費實態 129
4. 米穀, 混合穀 및 보리쌀消費에 대한 消費者選好 131
5. 米價에 대한 消費者反應 140
6. 政府米에 관한 消費者意見 142

第 10 章 要 約 143

參 考 文 獻 154

表 目 次

第 2 章

表 2 - 1 年度別 1人1日當 營養供給量 및 構成比	5
表 2 - 2 食糧作物生產量中 米穀生產量의 比重	6
表 2 - 3 年度別農家 및 農業所得中 米穀所得의 比重(戶當平均)	7
表 2 - 4 耕地規模別 農家所得中 米穀所得比重, 1979	8
表 2 - 5 都市家計費中 米穀支出(家口當月平均)	9
表 2 - 6 都市家計의 所得階層別 家口當 月平均家計費中 米穀支出 比重, 1979	9
表 2 - 7 1人當 穀物 食用消費量推移	10
表 2 - 8 米穀의 自給率推移(1970 ~ 79)	11
表 2 - 9 水稻品種別 段收 및 植付面積	12

第 3 章

表 3 - 1 米穀의 生產量 및 商品化量推移(1970 ~ 79)	16
表 3 - 2 年度別 流通經路別 流通量	18
表 3 - 3 品種別 販賣處別 販賣量比率	22

第 4 章

表 4 - 1 營農主의 年令別 分布	23
表 4 - 2 營農主의 學歷別 分布	24
表 4 - 3 調查農家의 規模別分布(番植付面積基準)	24

表 4 - 4	調查農家의 地域別品種別 植付比率, 1979	25
表 4 - 5	調查農家의 規模別品種別 植付比率, 1979	25
表 4 - 6	新品種을 選擇한 動機	26
表 4 - 7	一般品種을 選擇한 動機	27
表 4 - 8	調查農家의 地域別 品種別 規模別 米穀商品化率	28
表 4 - 9	調查農家의 米穀販賣處別 販賣狀況	29
表 4 - 10	調查農家의 一般米 販賣處別 販賣狀況	31
表 4 - 11	地域別 主要販賣處別 販賣動機	31
表 4 - 12	一般米의 月別 販賣狀況	33
表 4 - 13	一般米 販賣時期決定에 미치는 要因	33
表 4 - 14	先渡金을 使用한 經驗이 있는 農家	34
表 4 - 15	先渡金利用時期別 農家分布	35
表 4 - 16	糧穀貯藏施設別 貯藏狀況	37
表 4 - 17	米穀販賣處別 販賣時 輸送手段	38
表 4 - 18	米穀販賣時 價格情報 入手處	39
表 4 - 19	市場情報專擔機關의 必要性에 관한 認識	40
表 4 - 20	市場情報專擔機關이 必要한 理由	40

第 5 章

表 5 - 1	調查商人의 一般米 買入處別 構成比	43
表 5 - 2	調查農家의 米穀販賣時 米價決定基準 (利川)	44
表 5 - 3	產地商人의 米穀販賣處別 販賣狀況	45
表 5 - 4	農協系統出荷를 하지 않는 理由	46
表 5 - 5	調查農家의 米穀販賣處別 販賣狀況 (金堤地域)	49
表 5 - 6	貸搗精工場의 規模別 分布 (金堤地域)	49
表 5 - 7	月貸搗精量이 300 叴 (精穀 80 kg) 時 貸搗精工場의 収益性 (1979 年基準)	50
表 5 - 8	調查地域別 米穀市場의 特徵	55

第6章

表 6 - 1	全國 및 서울市 糧穀商分布現況	58
表 6 - 2	서울市 地域別 小賣商 및 農協販賣店分布	59
表 6 - 3	流通經路別 서울市 米穀搬入量	61
表 6 - 4	都賣市場 一般米 月別 搬入量	63
表 6 - 5	小賣商人의 營業經歷	66
表 6 - 6	小賣商人의 年令	66
表 6 - 7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量比率	67
表 6 - 8	米穀購入時 都賣市場利用度別 小賣商分布	68
表 6 - 9	產地直結 去來를 하는 理由	68
表 6 - 10	1回購入量別 小賣商 分布	69
表 6 - 11	販賣處數別 小賣商分布	69
表 6 - 12	小賣商의 1日 販賣回數	70
表 6 - 13	外上販賣量 比率別 小賣商分布	71
表 6 - 14	外上決濟期間	71
表 6 - 15	小賣商의 주된 價格情報 入手處	72
表 6 - 16	店舗規模別 小賣商 分布	73
表 6 - 17	運營資金 規模別 小賣商 分布	74
表 6 - 18	小賣商 經營收支 分析	76
表 6 - 19	產地直結去來形態別 小賣商分布	78
表 6 - 20	서울市 一般米經路別 搬入量比較	79
表 6 - 21	利川 - 서울間 流通마진	83
表 6 - 22	金堤 - 서울間 流通마진	84

第7章

表 7 - 1	米穀(一般米)販賣時 等級區分與否	89
表 7 - 2	一般米販賣時 等級區分을 하지 않는 理由	90
表 7 - 3	小賣商에서 取扱中인 米穀等級	90
表 7 - 4	農家의 貯藏 및 販賣時 包裝資材 利用實態	91

第 8 章

表 8 - 1	年度別 穀 收買量과 放出量 推移	96
表 8 - 2	年度別 穀收買 放出 및 一般米價格振幅	97
表 8 - 3	米穀의 收買 및 放出價格推移	99
表 8 - 4	年度別 穀實質收買 및 放出價格推移	100
表 8 - 5	年度別 穀種別 糧特赤字內譯	101
表 8 - 6	年度別 穀 叱當 糧特赤字 內譯	102
表 8 - 7	空放出價格과 市中米價 比較	103
表 8 - 8	1979 年度 穀 叱當 糧特赤字 內譯	107

第 9 章

表 9 - 1	所得階層別 調查家口 및 家口員數 分布	109
表 9 - 2	家口員數別 調查家口 分布	109
表 9 - 3	職業別 調查家口分布	110
表 9 - 4	主婦學歷別 調查家口分布	110
表 9 - 5	所得階層別 米穀購入 頻度	112
表 9 - 6	職業別 米穀購入頻度	113
表 9 - 7	家口員數別 1 回米穀購入量	114
表 9 - 8	所得階層別 1 回米穀購入量	115
表 9 - 9	職業別 1 回米穀購入量	116
表 9 - 10	所得階層別 米穀購入 時期	117
表 9 - 11	所得階層別 米穀購入處	119
表 9 - 12	隣近 糧穀商과의 距離	120
表 9 - 13	단골米穀商 保有現況	120
表 9 - 14	단골米穀商과의 距離	121
表 9 - 15	단골米穀商과의 去來期間	121
表 9 - 16	단골米穀商을 가지고 있는 理由	122
表 9 - 17	단골米穀商이 없는 理由	122

表 9 -18	米穀購入時 去來單位에 대한 消費者選好	123
表 9 -19	米穀購入時 物量確認與否	124
表 9 -20	購入한 쌀의 品質 및 物量이 注文時와의 差異與否	125
表 9 -21	政府米의 包裝資材(紙袋)에 대한 消費者意見	125
表 9 -22	1 吨單位의 米穀購入時 包裝資材에 대한 消費者選好	126
表 9 -23	所得階層別 米穀代金 決濟方法	127
表 9 -24	米穀購入時 1 回購入量別 運搬主體	128
表 9 -25	運搬主體別 運搬手段	128
表 9 -26	所得階層別 米穀消費量(全體調查家口平均)	129
表 9 -27	家口員數別 米穀消費量	130
表 9 -28	所得階層別 政府米와 一般米의 購入比率	131
表 9 -29	主婦學歷別 政府米와 一般米의 購入比率	132
表 9 -30	政府米와 一般米만을 購入하고 있는 理由	133
表 9 -31	一般米購入時 產地區分與否	134
表 9 -32	一般米購入時 產地別區分을 하고 있는 理由	135
表 9 -33	一般米購入時 產地別區分을 하지 않는 理由	135
表 9 -34	混合穀의 보리쌀混合比率에 대한 消費者意見	137
表 9 -35	所得階層別 보리混食與否	137
表 9 -36	보리混食을 年中 實施하고 있는 理由	138
表 9 -37	보리混食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理由	139
表 9 -38	보리混食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家口에 대한 向後 보리混食意向	139
表 9 -39	現在의 米價水準에 대한 消費者意見	140
表 9 -40	所得階層別 米價引上에 따른 쌀消費行為	141
表 9 -41	政府米 品質에 대한 消費者 意見	142
附表 1	16 個都市 平均 米穀品種別 都市價格動向	153

圖 目 次

第 3 章

図 3 - 1	米穀流通組織 및 經路	15
図 3 - 2	米穀의 商入流通經路	18
図 3 - 3	50 年代末의 米穀自由市場流通構造 (地方 - 서울 間)	20
図 3 - 4	60 年代初의 米穀自由市場流通構造	21

第 5 章

図 5 - 1	一般米流通經路, 1980 (利川 ~ 서울)	42
図 5 - 2	一般米流通經路, 1980 (金堤 ~ 서울)	48
図 5 - 3	一般米流通經路, 1980 (論山 ~ 大田)	53

第 8 章

図 8 - 1	米穀品種別 都賣價格 및 政府收買, 放出價格動向	104
---------	---------------------------	-------	-----

第 1 章

序論

1. 研究의 目的

本研究의 主目的은 米穀流通의 現況 및 問題點 그리고 消費行態 等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米穀流通政策 수립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구체적인 目標는 다음과 같다.

- (1) 自由市場米穀流通의 現況과 諸問題點 調査
- (2) 政府米流通의 現況과 諸問題點 調査
- (3) 米穀流通改善方案 導出

2. 調査研究 內容

- (1) 米穀經濟의 概要
- (2) 生產農家の 米穀流通實態 調査分析
- (3) 產地市場의 米穀流通實態 調査分析
- (4) 消費地市場의 米穀流通實態 調査分析
- (5) 政府米流通實態 分析
- (6) 都市家口의 米穀消費行態 調査分析

3. 研究方法

農家, 米穀商人(搗精業者 포함), 消費家口 그리고 都賣市場과 農協共販場등에 대한 現地聽取調查와 가존의 文獻과 資料의 분석을 병행하였다.

(1) 調查地域

農家 및 產地市場 : 利川郡 金堤郡 및 論山郡

消 費 地 市 場 : 서울시

(2) 調査期間 : 1980년 5월 1일 ~ 9월 30일

(3) 調査對象選定

가) 農家 : 利川郡, 金堤郡 및 論山郡에서 6개 부락을 선정하여 한
郡에서 40戶(단, 金堤郡은 33戶)씩 總計 113戶를 耕地規模別로 有意選定하였다.

나) 商人 및 搗精工場 :

產地商人과 搗精工場은 利川郡, 金堤郡 및 論山郡에서 委託商(또는 都賣商)과 小賣商은 서울消費地에서 각각 有意選定하였으며, 선정된 商人 및 搗精工場의 數는 다음
과 같다.

標本商人 및 搗精工場分布

調 査 對 象	標 本 數
搗精工場 (產地市場)	20
產地商人 ("")	25
委託商 (서울消費地市場)	10
一般小賣商 ("")	50
計	105

다) 消費家口 : 서울市의 消費者家口를 대상으로 지역과 所得水準을 고려하여 300 家口를 有意選定하였음.

이 밖에 糧穀都賣市場, 農協共販場, 郡農協 및 單協 그리고 農協直賣場 등의 조사도 병행하였다.

第 2 章

米穀經濟의 概要

1. 米穀의 國民經濟的 位置

米穀은 主要食糧作物로서 農家所得의 대종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主食糧으로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米穀政策은 오래 전부터 學界나 社會의 論難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米穀은 豐凶에 따라 生產量이 크게 변동하고 需要가 非彈力의이기 때문에 需給의 不均衡은 價格의 격심한 변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米價의 下落은 農家所得의 減少를 초래할 것이며, 반대로 米價의 격심한 上昇은 都市家計 특히 低所得層의 家計에 큰 압박을 주게 됨은 물론 인플레이의 한 요인이 되므로 米價를 어느 수준에,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는 主要 政策課題의 하나로서 政策樹立家의 價值判斷과 그때 그때의 政治的, 經濟的 및 社會的 與件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그 동안 政府에서는 米穀增產에 力點을 둔 결과 新品種의 開發 普及 등으로 劃期的인 米穀增產을 이룩하였다. 米穀生產이 증가함에 따라 收穫期의 米價安定을 위하여 쌀 收買量 역시 증가하게 되었고 消費者米價安定을 위하여 收買價格보다도 낮은 價格으로 放出한 결과 최근에 糧特赤字가 누적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本障에서는 먼저 米穀의 國民經濟的측면에서의 比重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食糧供給面

우리 나라의 1人1日當 热量供給量은 1970년에 2,370Kcal이던 것이所得水準의 향상과 더불어 1978년에는 2,533Kcal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8년에 總熱量攝取量 중 穀物이 차지하는 비중은 71.6%로서 아직도 淀粉質食品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1978년도에 米穀에서 摄取한 热量은 1,255Kcal로서 總熱量攝取量의 49.5%나 되며 쌀에서 摄取한 蛋白質은 24.0g으로서 總蛋白質 供給量 73.8g의 약 33%를 차지하였다(表 2-1). 이와 같이 米穀은 우리나라에서는 基本食糧으로서 食糧의 供給面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1. 年度別 1人1日當 營養供給量 및 構成比

區分	年 度	總量(A)	穀物(B)	米穀(C)	B/A (%)	C/A (%)
熱量(Kcal)	1970	2,370	1,818	1,215	76.7	51.3
	1975	2,390	1,801	1,116	75.4	46.7
	1976	2,414	1,797	1,124	74.4	46.6
	1977	2,427	1,768	1,177	72.8	48.5
	1978	2,533	1,813	1,255	71.6	49.5
蛋白質(g)	1970	65.2	40.2	23.2	61.7	35.6
	1975	71.1	40.4	21.3	56.8	30.0
	1976	73.5	40.3	21.5	54.8	29.3
	1977	73.9	38.7	22.5	52.4	30.4
	1978	73.8	39.2	24.0	53.1	32.5

資料：農水產部, 「食品需給表」。

食糧作物 生產量 중에서 米穀 生產量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表 2-2)와 같이 1970년의 56.7%에서 1977년에는 75.4%로 현저히 증가하였고, 그 후에는 약간 減少趨勢에 있다. 1970~77년간에 食糧作物生產量中 米穀의 比重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水稻 新品種의 開發普及에 따라 米穀의

生産量이 이 기간에 年平均 6.2 %나 增加한 반면에 麥類와 雜穀 등의 生產量減少로 穀을 제외한 食糧作物 生產量은 오히려 減少하였기 때문이다. 1977년 이후 食糧作物 生產量 중 米穀의 比重이 약간 減少한 것은 新品種의 病蟲害 被害 등으로 穀生產量이 1977년에 비하여 현저히 減少한 데 주로 기인된다.

表 2-2. 食糧作物生產量中 米穀生產量의 比重

單位: 千公噸(精穀)

年 度 別	食糧作物生產量 A	米 穀 生 產 量 B	比 重 B/A (%)
1970	6,943	3,939	56.7
1971	6,792	3,998	58.9
1972	6,743	3,957	58.7
1973	6,759	4,212	62.3
1974	6,900	4,445	64.4
1975	7,662	4,669	60.9
1976	8,184	5,215	63.7
1977	7,970	6,006	75.4
1978	8,228	5,797	70.5
1979	8,112	5,565	68.6

資料：農水產部，「農林統計年報」。

나. 農家所得面

米穀所得이 農家所得이나 農業所得에 점하는 比重은 <表 2-3>과 같이 年度間에 다소 기복이 있으며 이는 穀生產의 豐凶과 米價水準에 주로 기인된다. 최근에 米穀所得이 農家所得에 점하는 比重은 약 40 %, 農業所得에 점하는 比重은 약 55 %로 추정된다.

1979 年度 耕地規模別 米穀所得이 農家所得에 점하는 比重을 보면 <表

2-4>와 같이 規模가 커짐에 따라 增加하는 趨勢에 있으며, 0.5정보 미만인 零細農의 이 比率은 18.7%인데 반하여, 2.0정보 이상의 大農은 55.4%로서 農家階層間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表 2-3. 年度別 農家 및 農業所得中 米穀所得比重(戶當平均)

單位 ; 千원

區分 年 度	農家所得 (A)	農業所得 (B)	米穀所得 (C)	比 重	
				C/A (%)	C/B (%)
1970	255.8	194.0	97.1	38.0	50.1
1971	356.4	291.9	158.9	44.6	54.4
1972	429.4	353.4	158.5	36.9	44.9
1973	480.7	390.3	203.6	42.4	52.2
1974	674.5	541.9	310.0	46.0	57.2
1975	872.9	714.8	360.5	41.3	50.4
1976	1,156.3	921.2	482.0	41.7	52.3
1977	1,432.8	1,036.1	581.1	40.6	56.1
1978	1,884.2	1,355.7	648.7	34.4	47.9
1979	2,227.5	1,531.3	839.5	37.7	54.8

* 年度別 米穀收入에 年度別 米穀所得率을 적용하여 추정.

資料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農水產部, 「農產物生產費調查結果報告」, 1980.

<表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農의 米穀所得은 224 만원으로서 小農의 약 8배나 되므로 高米價施策의 혜택은 規模가 큰 大農層에 상대적으로 많이歸屬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2-4. 耕地規模別 農家所得中 米穀所得比重, 1979.

單位 ; 千원

區 分 規 模	農 家 所 得 A	農 業 所 得 B	米 穀 所 得 * C	米 穀 所 得 比 重	
				C / A (%)	C / B (%)
0.5 정보미만	1,517.1	580.3	283.2	18.7	48.8
0.5 - 1.0	1,905.9	1,255.5	639.2	33.5	50.9
1.0 - 1.5	2,467.1	1,862.7	990.8	40.2	53.2
1.5 - 2.0	3,049.3	2,429.3	1,377.3	45.2	56.7
2.0 정보이상	4,041.8	3,386.1	2,240.0	55.4	66.2
平 均	2,227.5	1,531.3	839.5	37.7	54.8

* 耕地規模別 米穀收入에 耕地規模別 米穀所得率을 적용하여 추정.

資料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農水產部, 「農產物生產費調查結果報告」, 1980.

다. 家計支出面

所得水準이 향상함에 따라 家計費 中 食料品支出費의 比率 즉, エigel계수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趨勢에 따라 家計費에서 米穀支出費가 점하는 比重은 1965 年의 28.4 %에서 1979 年에는 11.9 %로 현저히 減少趨勢에 있다. 또한 食料支出費 中 米穀支出이 점하는 比重 역시 1965 年의 50 %에서 1979 年에는 32.5 %로 상당히 줄었으며, 이는 최근에 所得向上과 함께 家計費 中 米穀이 점하는 比重이 상대적으로 減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表 2-5).

1979 年度 所得階層別로 家計費 中 米穀支出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表 2-6>과 같이 月所得이 5 만원 미만인 家口의 경우 18.6 %에서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減少하여 40 만원 이상의 高所得層은 불과 6 % 밖에 되지 않는다. 月所得이 10 만원(1979 年 기준) 미만인 低所得層의 경우 米穀所得이 家計費에 점하는 比重은 18 % 정도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나 月所得이 30 만원 이상의 所得階層의 경우 米穀支出額이 家計費에

表 2-5. 都市家計費의 米穀支出(家口當月平均)

單位 ; 원

年度別	家計費 (A)	食料品費 (B)	Engel계수 (B/A)	米穀支出費 (C)	米穀支出比重 (%)	
					C/A	C/B
1965	9,780	5,550	56.7 (%)	2,777	28.4	50.0
1970	29,950	12,120	40.5	4,630	15.5	38.2
1971	34,970	14,340	41.0	5,471	15.6	38.2
1972	38,560	15,710	40.7	6,728	17.4	42.8
1973	41,490	17,130	41.3	6,610	15.9	38.6
1974	50,100	21,680	43.3	8,855	17.7	40.8
1975	65,310	28,470	43.6	11,799	18.1	41.4
1976	81,460	34,990	43.0	14,448	17.7	41.3
1977	95,400	40,130	42.1	15,496	16.2	38.6
1978	127,710	51,340	40.2	17,343	13.6	33.8
1979	173,442	63,495	36.0	20,622	11.9	32.5

資料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表 2-6. 都市家計의 所得階層別 家口當月平均
家計費中 米穀支出比重, 1979

單位 ; 원

區分 階層別	家計費 (A)	食料品費 (B)	米穀支出費 (C)	米穀支出比重 (%)	
				C/A	C/B
5 萬원未滿	39,891	19,124	7,403	18.6	38.7
7 ~ 9 萬원	78,944	36,091	13,815	17.5	38.3
11~13 萬원	116,920	50,345	17,892	15.3	35.5
15~17 萬원	155,032	62,593	21,374	13.8	34.1
19~21 萬원	192,292	74,695	24,496	12.7	32.8
23~25 萬원	228,891	82,324	25,383	11.1	30.8
30~35 萬원	306,633	100,310	28,796	9.4	28.7
40 萬원以上	545,321	129,466	32,823	6.0	25.4
平 均	173,442	63,495	20,622	11.9	32.5

* 米穀支出費 = 穀物支出費 × 穀物支出費 / 家計費의 比率 (94.8%).

資料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9.

차지하는 比重은 10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 쌀의 需給現況

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穀物 1人當消費量은 1970년의 190.0 kg에서 1979년에는 163.2 kg으로 계속減少趨勢에 있다. 그러나 쌀의 消費量은 1970년의 136.4 kg에서 1976년에는 120.1 kg으로減少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급격히 增加하여 1979년에는 135.6 kg에 달하였다. 1973 ~ 76년간에 1人當 쌀 消費量은 120.1 ~ 129.4 kg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政府에서 보리混食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리쌀 消費量을 이 기간 중에 34.7 ~ 39.9 kg(보리混食率; 약 23%)으로 높은 수준에 유지시킨

表 2-7. 1人當 穀物 食用消費量推移(全國平均)

單位 ; 年間kg

區分 年 度	쌀 (A)	보리쌀 (B)	곡물 * (C)	A/C
1970	136.4	37.3	190.0	71.8 (%)
1971	134.8	36.8	188.2	71.6
1972	134.5	37.5	189.4	71.0
1973	129.4	39.3	183.4	70.6
1974	127.8	39.9	178.7	71.5
1975	123.6	36.3	174.1	71.0
1976	120.1	34.7	169.8	70.7
1977	126.4	28.5	168.6	75.0
1978	134.7	18.1	167.1	80.6
1979	135.6	14.1	163.2	83.1

* 쌀, 보리쌀, 밀가루, 잡곡, 두류, 서류의 합계임.

資料 ; 農水產部, 糧穀消費量調查結果報告, (RY 70-79), 1980.

데 크게 기인된다. 그러나 1977년에 획기적인 米穀增產을 이룩하자 쌀消費規制를 전부 해제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쌀消費量이 급증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라 하겠다. 이와 같이 쌀消費量이 최근에 급격히增加함에 따라 穀物消費量 중 쌀消費量이 점하는 比率은 1976년의 약 71%에서 1979년에는 약 83%로 현저히增加하여, 쌀消費의 偏重現狀을 보이고 있다.

한편 米穀生產量은 1970~78米穀年度에 米穀生產量은 4,090 千kg에서 6,006 千kg으로 약 42.6%增加하였는데, 이는 10a當全國平均段收가 이 기간중 22.1%나增加하였고, 新品種植付比率이 15.2%에서 54.6%로 현저히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米穀生產量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자, 쌀은 1976米穀年度부터 自給이 되었으나 1979米穀年度에는 新品種의 심한 病蟲害로 生產量이 激減한 반면, 消費量은 急增하여 쌀의 自給率은 86.0%로 현저히 저하되었다.

水稻品種別段收를 살펴보면 新品種의段收는 1974년에 473kg에서 1977

表 2-8. 米穀의 自給率推移

單位 ; 千%

米穀年度	生産量	需要量	自給率 (%)
1970	4,090	4,394	93.1
1971	3,939	4,777	82.5
1972	3,997	4,362	91.6
1973	3,957	4,296	92.1
1974	4,212	4,641	90.8
1975	4,445	4,699	94.6
1976	4,669	4,646	100.5
1977	5,215	5,045	103.4
1978	6,006	5,784	103.8
1979	5,797	6,738	86.0

資料 ; 農水產部, 食糧局.

년에는 553 kg 으로 最高水準을 기록하였고 그 후에는 病蟲害 등으로 1978년에는 486 kg , 1979년에는 463 kg 으로 계속 減少趨勢에 있다. 1974~77년간에 新品種의 段收는 在來種보다 $21.0\sim43.3\%$ 높은 수준이었으나, 1978년에는 11.7% , 1979년에는 불과 5.9% 의 增收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新品種과 在來種의 段收差가 줄어든 것은 病蟲害로 新品種의 段收가 현저히 減少한데 반하여, 在來種의 段收는 新品種의 栽培技術이 在來種栽培에도 널리 보급되어 현저히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1974~1979년간에 在來種의 段收는 353 kg 에서 437 kg 으로 약 23.8% 나 증가하였다.

表 2-9. 水稻品種別 段收 및 植付面積

年 度	段 收 (kg)				植 付 面 積(千 ha)		
	新品種 (A)	在來種 (B)	平 均	A/B	新品種	在來種	計
1974	473	353	371	134.0%	180.9 (15.2)	1,008.1 (84.8)	1,189.0 (100.0)
1975	503	351	386	143.3	274.1 (22.9)	924.0 (77.1)	1,198.1 (100.0)
1976	479	396	433	121.0	533.2 (44.6)	663.0 (55.4)	1,196.2 (100.0)
1977	553	423	494	130.7	660.1 (54.6)	548.2 (45.4)	1,208.3 (100.0)
1978	486	435	474	111.7	929.0 (76.2)	290.1 (23.8)	1,219.1 (100.0)
1979	463	437	453	105.9	744.3 (60.8)	479.9 (39.2)	1,224.2 (100.0)

() 内는 構成比임.

資料 ; 農水產部, 「作物統計」, 1979.

新品種의 植付比率은 1974년의 15.2% 에서 1978년에는 76.2% 로 현저히 增加하였고, 1979년에는 60.8% 로 떨어졌다. 1978년에 新品種의 植付比率이 76.2% 로서 前年보다 21.6% 포인트나 증가한 것은 1977년도에 新品種의 段收는 在來種에 비하여 30.7% 나 增收되어 新品種의 收益性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농민들이 新品種 栽培를 選好한 결과로 판

단된다. 그러나 1979년에 新品種의 植付比率이 60.8 %로 前年度에 비하여 15 %포인트나 줄은 것은 1978년도에 魯豐 피해 등으로 新品種의 段收가 격감하여 在來種에 비하여 불과 11.7 %의 增收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第3章

米穀流通의 概要

1. 米穀流通組織

米穀은 다수의 零細한 生産者들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主食으로서 消費者가 다수인 관계로 需要供給이 完全競爭下에 있으며, 容積에 비하여 重量이 무거우나 비교적 長期間 저장할 수 있고 包裝이 용이하여 취급하기 편리하나 品質의 標準化, 等級化가 어렵다는 점 등의 物的特性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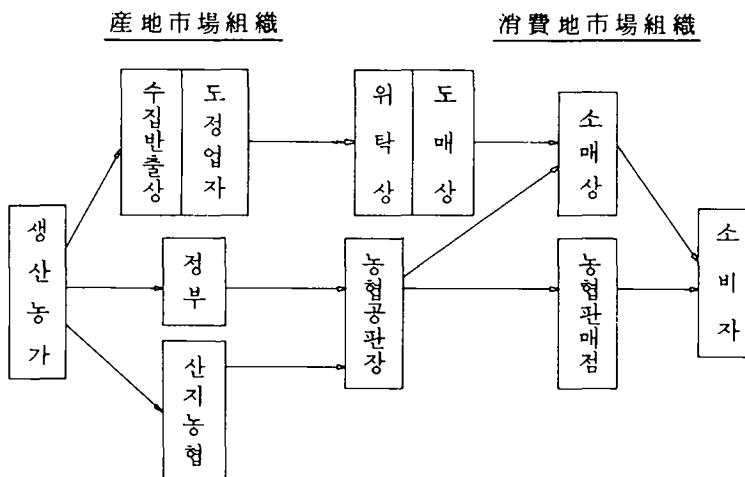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米穀의 流通組織은 이러한 米穀의 需要・供給構造와 商品으로서의 物的特性에 의해 규정된다.¹⁾ 또한 米穀은 需要와 供給이 非彈力의in 관계로 需給의 不均衡은 격심한 米價의 變動을 초래한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米穀의 원활한 需給과 米價安定을 위하여 米穀出荷期에 생산자로부터 米穀을 수매하여 적절한 시기에 消費地市場에 방출하는 政府米管理制度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農協에서도 適正米價實現, 流通費用 절감 및 流通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米穀의 系統出荷事業을 실시함으로써 米穀流通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또 종래에는 米穀流通에 있어 商人組織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政府米의 流通量이 증대됨에 따라 商人組織의 機能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으나, 아직도 상당한 비중

1) 藤谷築次外, 農產物流通の基本問題, 1974. p.129.

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米穀流通組織은 크게 政府管理組織과 自由市場組織으로 二元化되어 있으며 自由市場組織은 商人組織과 農協組織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현재 米穀流通은 政府, 商人 및 農協의 三主體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政府米流通은 產地와 消費地의 行政組織, 農協組織 및 商人組織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農協流通組織은 產地의 單位農協, 郡農協, 農產物集荷場 등의 蔽集搬出組織과 서울, 釜山, 大邱, 光州, 大田, 仁川等 大消費地의 農協共販場, 農協販賣店을 중심으로 하는 分散組織으로 되어 있다. 또 商人流通組織은 產地의 蔽集搬出商, 搗精業者 등을 중심으로 하는 產地市場組織과 消費地의 委託商, 都賣商과 小賣商을 중심으로 하는 消費地市場組織으로 구성되어 있다.

圖 3 - 1. 米穀流通組織 및 經路



2. 米穀流通經路別 流通量 推移

米穀의 流通經路는 流通組織에 따라 크게 政府經路, 商人經路 및 農協經路의 3개 經路로 구분되어 流通經路別 流通量比重을 파악하려면 米穀商品化率의 資料가 필요하다. 그러나 米穀商品化率은 1977년 이후에

表 3 - 1 . 米穀의 生産量 및 商品化量 推移(1970 ~ 79)

米 年 穀 度	生 産 量	商品化率*		狹義의 商品化量 千t
		狹 義	廣 義	
1970	4,090	48.66	73.78	1,990
1971	3,939	44.59	66.56	1,757
1972	3,998	46.04	66.19	1,841
1973	3,957	46.38	62.29	1,835
1974	4,212	45.17	59.08	1,902
1975	4,445	48.15	62.76	2,140
1976	4,669	48.15	62.62	2,248
1977	5,215	51.3	66.7	2,675
1978	6,006	54.0	70.2	3,243
1979	5,797	54.4	70.7	3,154

* 狹義의 商品化量엔 販賣量·租稅公課·搗精料 등이 包含되고 廣義의 商品化量엔 實物勞貨, 補助贈與, 貸與貸借料 등이 追加됨.
 1977년 이후는 廣義의 商品化率을 $(1 - (\text{농가소비량} + \text{종자용}) \div \text{생산량}) \times 100\%(\%)$ 에 의해 추정한 다음 狹義의 商品化率은 1976년도의 廣義 및 狹義의 比率을 적용하여 推定함.

資料 :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1979 ; 「主要農產物 商品化統計」, 1976 및 「糧穀消費量 調查結果」(RY 70 ~ 79), 1980.

발표된 資料가 없는 관계로 <表 3 - 1>과 같이 生産量과 農家消費量(食用 및 種子)資料로부터 추정하였다. 米穀의 商品化率은 <表 3 - 1>과 같이 1974년 이래 增加趨勢에 있으며 1977년도 廣義의 米穀商品化率은 약 67%로 추정되었다. 廣義의 商品化量에는 實物勞貨·補助贈與 및 貸與貸借料 등이 包含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市場에 출하된 量이라기

보다는 農村內部에서 流通된 量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狹義의 商品化量을 市場出荷量으로 본다면 1977년도 市場出荷量은 生產量의 약 51.3%인 268만톤으로 추정된다.

流通經路別 流通量의 推移를 보면 <表3-2>와 같이 政府經路의 比重이 1974년의 25.2%에서 1979년의 4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부터 최근 政府米가 米穀流通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마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政府經路의 比重이 높아진 것은 多收性新品種의 개발 보급으로 米穀增產이 이룩됨에 따라 특히 新品種의 收買量이 크게 증대한 데 기인한다. 商人經路의 米穀流通量이 전체 流通物量 中에 차지하는 비율은 政府經路의 比重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表3-2>. 商人經路가 전체 商品化量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74년의 74%에서 1979년에는 56%로 떨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米穀流通에 있어서 根幹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商人組織의 米穀流通經路는 產地市場의 菲集·搬出段階에서 본다면 菲集商이나 廬精業者 등을 거쳐서 搬出商에 의해 消費地市場으로 搬出되 경우와 (菲集) 搬出商 혹은 廬精業者가 菲集과 搬出機能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또 消費地市場의 分散段階에서 볼 때는 都賣市場을 경유하여 流通되는 경우와 產地市場에서 小賣商으로 직접 流通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產地市場에서의 米穀의 菲集·搬出機能은 流通主體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產地商人은 菲集과 搬出機能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交通과 通信手段이 발달됨에 따라 消費地市場의 小賣商과 產地의 菲集·搬出商과의 直結去來가 현저히 증가한 반면 都賣市場을 경유하는 流通經路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表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協經路의 系統出荷量은 전체 米穀流通量의 5% 미만이라는 극히 낮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1979년에는 전체 流通量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產地單協은 系統出荷하는 외에도 消費地單協이나 商人에게 販賣하기도 하므로 실제 農協組織의 米穀流通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다소 높으리라 생각된다.

表 3 - 2 . 年度別 流通經路別 流通量

單位 : 千噸

米穀年度	商品化量	政府經路 ¹⁾	農協經路 ²⁾	商人經路 ³⁾
1973	1,835 (100.0) ⁴⁾	507 (27.6)	27 (1.5)	1,301 (70.9)
1974	1,902 (100.0)	480 (25.2)	17 (0.9)	1,405 (73.9)
1975	2,140 (100.0)	735 (34.3)	94 (4.4)	1,311 (61.3)
1976	2,248 (100.0)	790 (35.2)	84 (3.7)	1,374 (61.1)
1977	2,675 (100.0)	1,043 (40.0)	67 (2.5)	1,565 (58.5)
1978	3,243 (100.0)	1,403 (43.3)	29 (0.9)	1,811 (55.8)
1979	3,154 (100.0)	1,355 (43.0)	36 (1.1)	1,763 (55.9)

1) 政府收買量 基準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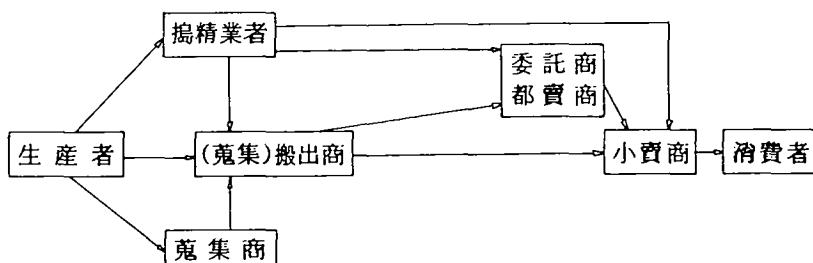
2) 農協共販場 系統米販賣實績 (曆年基準).

3) 商品化量으로부터 政府經路 및 農協經路의 流通量을 빼 나머지
를 商人經路流通量으로 추정함.

4) ()내는 比率임.

資料：農水產部，「農林統計年報」，1979；「韓國糧政史（통계자료）」，
1978。農協中央會 共販部。

圖 3 - 2 . 米穀의 商人流通 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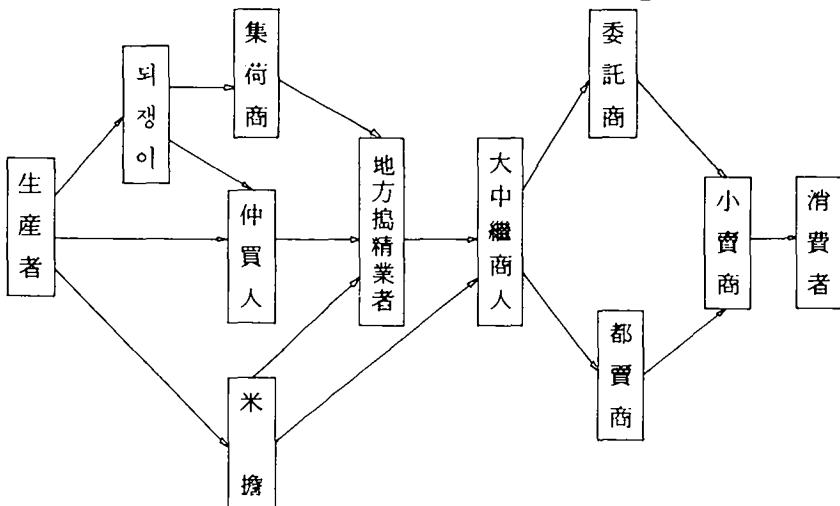
3. 米穀流通構造의 變化

우리 나라의 米穀市場은 日帝의 大陸侵略戰下에서 全面統制되고 있었으나 解放과 더불어 南韓地域에 美軍政이 실시됨에 따라서 일시 自由市場體制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解放직후의 극심한 인플레와 食量不足으로 米價가 양등하게 되고 米穀商들의 買占賣借으로 米穀流通이 급히 불안정하게 되자 米穀의 自由市場은 다시 폐지되었다. 즉, 1946년 1월 이후엔 米穀收集制가 실시됨으로써 米穀流通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행하여지게 되었고 1948년 政府樹立 이후엔 강제성을 띤收集制度를 폐지하고 糜穀買入制로 代替하였으나 1斗 이내의 自家食糧用 糜穀의 買賣 이외의 自由市場去來는 여전히 許容되지 않았다. 그러나 政府買入價格의 低水準으로 매입실적이 부진하여 1949년 7월에 食糧臨時緊急措置法을 제정하여 米穀의 自由市場을 許容하게 되었으며, 1950년 2월 糜穀管理法의 제정 실시에 따라 비로소 우리 나라 米穀市場體系는 일면 自由, 일면 管理라는 현재의 米穀市場構造의 原型을 확립하게 되었다. 즉, 米穀流通은 원칙적으 自由市場去來에 맡겨지고 政府는 官需米穀 確保, 需給과 價格의 조절을 위하여 米穀流通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政府組織을 통한 米穀流通 比重은 점차 감소하고 米穀의 自由市場去來組織이 발달하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地方 - 서울間을 중심으로 한 米穀의 自由市場流通構造는 <圖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產者 → 뇌쟁이 → 集荷商 또는 仲買人 등을 거치는 菁集段階와 地方搗精業者 → 大中繼商人으로流通되는 中繼段階 그리고 大中繼商人 → 委託商 또는 都賣商 → 小賣商 → 消費者에 이르는 分配段階로 복잡한 體系를 가지게 되었다.²⁾ 또한 自由市場流通物量이 增大함에 따라 大資本을 가진 中繼商人들의 활약이 두드러져 이들은 지방의 集荷商 · 搗精業者에게 資本을 貸與하여 米穀을 확보

2) 農水產部, 「韓國糧政史」, 1978. p. 315.

圖 3-3. 1950 年代 말의 米穀 自由市場 流通構造
(地方～서울間)



資料：農水產部，「韓國糧政史」，1978，p. 315。

하고 消費地의 都賣業者에게는 委託販賣까지 시킬 수 있는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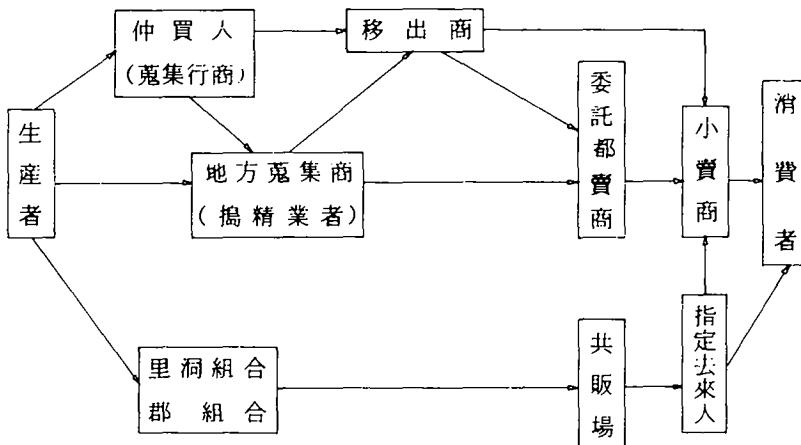
大消費地에선 都賣商과 委託商의 比重이 커져 서울市의 경우 1958년도에 糜穀都賣商이 신당동중앙시장, 영등포, 동대문, 남대문, 청량리, 아현, 동자동, 기타시장에 약 150개소가 산재하였으며 1959년엔 250 여개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³⁾

한편 1961년부터 農協에서 米穀共同販賣事業을 實施하게 됨으로써 米穀의 自由市場構造는 商人組織과 農協組織으로 크게 二元化되었다.

農協의 米穀共同販賣事業은 米穀出荷에 있어 細緻한 個別農民의 刈約성을 배제함으로써 農家의 受取價格을 보장하고 流通費用을 절감함은 물론 流通秩序의 확립을 도모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나 農協系統出荷의 米穀市場占有率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그 결과 소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

3) 前揭書, p. 315.

圖 3-4. 1960 年代 초의 米穀 自由市場 流通構造



資料：農協中央會，「韓國農產物市場制度」，1965，pp. 35～36.

하지 못하였다.

1960 年대 후반에는 總流通量의 15 % 정도가 政府管理組織을 통하여流通되었고, 나머지 85 % 정도는 自由市場機構를 통해 유통되었는데, 農協組織의 流通比重이 극히 낮았으므로 商人組織이 自由市場의 米穀流通에 中추적 役割을 하였다.⁴⁾ 產地市場에서 消費地市場에 이르는 商人流通經路는 极히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아니라 零細한 商人으로 구성된 前近代的인 조직으로서 非效率的인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交通 및 通信手段의 發達로 流通下部構造가 개선됨에 따라 米穀의 輸送과 去來方式은 물론 米穀流通構造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선 복잡·다양한 米穀流通經路中에서 <生産者 → 蒉集搬出商 (혹은 揭精業者) → 小賣商 → 消費者>의 經路가 商人組織 米穀流通의 主經路를 이루게 됨으로써 流通段階가 단축되어 왔다.

4) 商品化量에 대한 政府收買量 比率을 보면 67년 17.6 %, 68년 15.3 %, 69년 9.0 %임.

한편, 人口와所得增加로 米穀의 需要가 현저히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米穀의 안정된 供給이 보다 중요한 政策課題로 등장함에 따라 米穀流通에 있어서 政府米比重이 크게 증대하였다. 즉 政府의 米穀收買量은 1960년대 말 30만톤 수준에서 1970년대 말엔 100만톤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체 米穀流通量에서 政府米가 차지하는 比重도 15%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政府의 쌀 收買는 주로 多收性 新品種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新品種 쌀의 流通量 중 政府米가 占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 本調査에 의하면 <表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品種 쌀 商品化量 중 政府收買量의 比率은 약 85%로서 一般品種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表 3-3. 品種別 販賣處別 販賣量比率

單位 : %

區 分	政府收買	農 協	商 人	計
新 品 種	85.5	0.8	13.7	100.0
一 般 品 種	2.5	8.3	89.2	100.0
平 均	67.0	2.5	30.5	100.0

이와 같이 政府米比重이 增大함에 따라 自由市場 流通量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또한 商人組織의 流通段階가 단축됨에 따라 종래 消費地市場에서 米穀流通의 中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都賣市場의 機能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第4章

生產農家의 米穀流通實態

1. 調查農家의 概況

가. 經營主의 人的事項

本 調查農家에 있어 營農主의 평균年齡은 약 50 세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분포는 50代가 35.4 %로 가장 높았고 20 ~ 30代는 약 17 %에 불과하여 60代 이상이 15 %나 되었다(表 4 - 1) .

表 4 - 1. 營農主의 年齡別 分布

單位 : 人

地域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計
利 川	1	6	13	15	5	40
金 堤	1	3	12	14	3	33
論 山	-	9	11	11	9	40
計	2	18	36	40	17	113
	(1.8)	(15.9)	(31.9)	(35.4)	(15.0)	(100.0)

() 内는 構成比임 .

營農主의 學歷別 分布는 <表 4-2>와 같이 國卒 이하가 약 75%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中卒 이상의 教育을 받은 사람은 약 25%에 불과하였다.

表 4-2. 营農主의 學歷別 分布

單位 : 人

地域	區分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計
利川		6	24	7	3	-	40
金堤		7	17	5	3	1	33
論山		11	20	5	4	-	40
	計	24	61	17	10	1	113
		(21.2)	(54.0)	(15.0)	(8.9)	(0.9)	(100.0)

()내는 構成比임.

나. 調查農家의 規模別 分布

本調查에서는 利川郡, 金堤郡 및 論山郡등 3개 지역에서 總農家 113 戶를 有意選定하였으며, 標本農家の 規模別 分布는 <表 4-3>과 같이 小農(1 ha 미만)이 30.1%(34 戶), 中農($1 \sim 2\text{ ha}$)이 39.8%(45 戶), 2 ha 以上의 大農은 30.1%(34 戶)이었다.

表 4-3. 調査農家の 規模別 分布(畠植付面積基準)

單位 : 戶

地域	規模	小農 ($\sim 1\text{ ha}$)	中農 ($1 \sim 2\text{ ha}$)	大農 ($2\text{ ha} \sim$)	計
利川		13	16	11	40
金堤		10	13	10	33
論山		11	16	13	40
	計	34(30.1)	45(39.8)	34(30.1)	113(100.0)

()내는 構成比임.

다. 水稻品種別 植付比率

本調查農家の 米穀品種別 植付比率을 보면 新品種 植付比率이 67.7 %로서 1979 年度 全國平均 新品種 植付比率 60.8 %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調查農家가 주로 재배하고 있는 新品種은 밀양계통이었고 一般品種으로는 利川 地域에서는 아끼바레, 金堤斗 論山 地域은 밀양 15호가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調査地域別로 新品種의 植付比率을 보면 利川 地域은 62.2 %로서 제일 낮았으며, 金堤 地域은 69.3 %, 論山 地域은 71.6 %로 조사되었다(表 4-4)。

表 4-4. 調査農家の 地域別 品種別 植付比率 '79

單位 : %

地 域	品 種	新 品 種	一 般 品 種	計
利 川		62.2	37.8	100.0
金 提		69.3	30.7	100.0
論 山		71.6	28.4	100.0
平 均		67.7	32.3	100.0

經營規模別 新品種의 植付比率은 (表 4-5)와 같이 耕地規模가 큰 農家일수록 약간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一般品種의 植付比率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表 4-5. 調査農家の 規模別 品種別 植付比率 '79

單位 : %

規 模	品 種	新 品 種	一 般 品 種	計
小 農		62.5	37.5	100.0
中 農		67.5	32.5	100.0
大 農		68.9	31.1	100.0
平 均		67.7	32.3	100.0

調査農家の 新品種選択動機를 보면 「政府收買(農地稅 包含)를 위해서」
植付한다는 農家の 比率이 46.9 %로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政府
機關이 권장하는 品種이기 때문」이 34.5 %, 「段當收量이 많아서」라는 農
家는 10.6 %, 그리고「病蟲害에 강해서」라는 農家는 0.9 %에 불과하였다
(表 4-6).

表 4-6. 新品種을 選択하는 動機

單位 : 戶

동 기	지 역	이천	김제	논산	계
段當收量이 많아서		5	4	3	12(10.6)
栽培가 容易해서		3	3	1	7(6.2)
病蟲害에 강해서		1	-	-	1(0.9)
政府收買(농지세포함)를 위해서		19	17	17	53(46.9)
政府機關이 권장하는 品種이어서		12	9	18	39(34.5)
其 他		-	-	1	1(0.9)
計		40	33	40	113(100.0)

()内는 構成比임.

한편 調査農家가 一般品種을 選択하는 동기를 보면 調査農家の 46.9 %
가 「一般米의 價格이 新品種보다 좋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新品種보
다 病蟲害에 강해서」라는 응답도 23.9 %나 되었다(表 4-7).

위의 調査結果는 최근에 新品種이 一般品種에 비하여 收量은 다소 높
으나 價格面에서 블리하고 病蟲害에 약하기 때문에 農民들은 一般品種
을 選好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表 4-7. 一般品種을 選択하는 動機

單位 : 戶

동 기 \ 지 역	이 천	침 제	논 산	계
段當 收量이 많아서	5	3	8	16 (14.2)
栽培가 容易해서	5	4	3	12 (10.6)
病虫害에 강해서	9	10	8	27 (23.9)
政府收買를 위해서	-	1	-	1 (0.9)
價格水準이 좋아서	19	14	20	53 (46.9)
其 他	2	1	1	4 (3.5)
計	40	33	40	113 (100.0)

()내는 構成比임.

2. 米穀販賣實態

가. 品種別 商品比率

調查農家の 1979년도 米穀의 商品化率은 79.5 %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調查地域이 우리 나라의 主要 畜作地帶로서 自家消費를 위주로 하는 小農層보다도 商品化를 목적으로 하는 大・中農層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고, 米穀流通實態調査를 위하여 米穀販賣 경험이 있는 農家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 주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新品種의 商品化率은 84.4 %로서 一般品種의 商品化率 70.6 %보다 높게 나타났고 耕地規模別 米穀商品化率은 大農層이 85.4 %로서 小農層의 59.2 %, 中農層의 75.9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大農層의 新品種 商品化率이 91.6 %로서 小農層이나 中農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大農層들은 新品種의 栽培를 農地稅 및 水稅納付 등을 위한 政府買上과 販賣를 목적으로 재배하고, 自家消費는 一般米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調查地域別 商品化率을 보면 利川 地域의 一般品種 商品化率은 76.9 %

로서 論山 地域의 64.8 %, 金堤 地域의 68.9 %보다 10 %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新品種 商品化率은 66.1 %로서 論山이나 金堤 地域의 90 % 수준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利川 地域의 新品種 商品化率이 他地域에 비해 낮은 반면 一般品種의 商品化率은 다소 높게 나타난 주요인은, 利川 地域은 米質이 좋은 京畿米(아끼바레)의 主產地로서 新品種보다 一般品種의 植付比率이 論山이나 金堤 地域보다 5 ~ 10 % 포인트 높은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農民들은 米質이 좋은 一般米(아끼바레)를 高價로 판매하고 新品種을 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表 4-8)。

表 4-8. 調査農家の 地域別, 品種別, 規模別
米穀 商品化率

地 域	區 分 規 模	商 品 化 率			單位 : %
		新 品 種	一 般 品 種	計	
利 川	小 農	49.3	57.5	52.7	
	中 農	69.0	71.4	70.0	
	大 農	69.0	87.9	77.7	
	全 體	66.1	76.9	73.8	
金 堤	小 農	63.4	42.7	56.3	
	中 農	83.8	78.9	81.8	
	大 農	96.3	65.9	86.4	
	全 體	90.5	68.9	82.9	
論 山	小 農	81.9	42.0	68.1	
	中 農	79.1	64.3	75.2	
	大 農	95.9	70.7	89.9	
	全 體	88.9	64.8	82.2	
計	小 農	65.4	48.5	59.2	
	中 農	77.7	72.8	75.9	
	大 農	91.6	73.4	85.4	
	全 體	84.4	70.6	79.5	

나. 販売処別 販賣狀況 및 販売処別 販賣動機

調査農家の 米穀 販賣處別 販賣比率은 〈表 4-9〉와 같이 地域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政府收買가 67.0 %, 產地蒐集商이 12.9 %, 貨搗精業者가 11.6 %, 5 日市場이 5.7 % 그리고 農協이 2.5 %의 순으로 나타났다. 本調査의 政府收買比率은 67.0 %로서 이는 1979년 全國 商品化量에 대한 收買量比率 43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調査農家の 品種別 米穀 販賣處를 보면 新品種은 商品化量의 85.5 %를 政府收買하였고, 나머지 15.5 %는 一般米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一般品種의 政府收買分은 商品化量의 2.5 %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產地蒐集商이나 貨搗精業者 등 一般商人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新品種의 경우 政府收買量의 비중이 높은 주된 이유는 調査地域이 米穀主產地로서 農民들은 新品種을 주로 政府收買를 목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表 4-9. 調査農家の 米穀 販賣處別 販賣狀況(政府收買分 包含)

地域	販賣處 品種	單位: %						計
		政 府 收 買	農 協	產 地 蒐 集 商	5 日 市 場	貨 搗 精 業 者	都 賽 및 產 地 小 賽 商	
利 川	新 品 種	80.6	4.9	11.2	3.3	-	-	100.0
	一 般 品 種	-	12.8	7.8	8.5	-	0.9	100.0
	平 均	43.5	8.5	41.5	5.7	-	0.5	100.0
金 堤	新 品 種	88.2	-	3.2	-	8.6	-	100.0
	一 般 品 種	1.2	6.9	8.1	-	83.9	-	100.0
	平 均	70.8	5.9	4.7	-	18.6	-	100.0
論 山	新 品 種	84.1	0.1	1.6	5.1	9.1	-	100.0
	一 般 品 種	8.9	1.0	21.6	51.3	13.3	3.9	100.0
	平 均	72.1	0.3	4.8	12.5	9.8	0.6	100.0
平 均	新 品 種	85.5	0.8	3.9	2.5	7.4	-	100.0
	一 般 品 種	2.5	8.3	44.6	16.8	26.4	1.4	100.0
	平 均	67.0	2.5	12.9	5.7	11.6	0.3	100.0

한편 調査地域別 一般米의 販賣處別 販賣比率을 보면 〈表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調査地域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利川 地域의 경우 農民들은 政府收買分을 제외한 一般米 販賣量의 약 74%를 產地商人(蒐集・搬出・小賣 등의 機能을 동시에 수행함)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利川 地域의 農民들이 一般米의 대부분을 產地商人에게 판매하는 주된 원인은 〈表 4-11〉에서 보는 바와같이 「先渡金을 이용하므로」라고 응답한 農家가 40%, 이들 商人們이 직접 小型車輛(2.5톤)을 이용하여 米穀을 수집하여 가는 등 買取과정에서 農民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農家가 52% 이었다.

金堤 地域의 경우는 利川 地域과는 달리 產地蒐集商에게 판매한 物量은 16%에 불과하며, 약 80%의 物量이 貨搗精業者에게 販賣하거나 販賣를 委託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貨搗精業者의 蒯集機能이 활발한 것은 〈表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貨搗精業者들이 農家에 先渡金을 제공하고(調査農家の 54.2%), 農家の 米穀을 保管함은 물론 商人們에게 판매하여 주는 등 여러 가지 機能을 擔當함으로써 金堤 地域 一般米 蒯集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論山 地域의 경우 商品化量 중 5日市場에 판매되는 量은 44.6%, 貨搗精業者를 통해서 판매되는 量은 35%로서 이 두 販賣處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論山 地域에 있어 5日市場에 출하되는 量이 비교적 큰 비중을 점하는 이유는 〈表 4-11〉과 같이 5日市場에 출하할 경우 代金決済가 빠르고 價格條件이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論山 地域의 農民들이 貨搗精業者에 販賣를 委託하는 이유는 搞精 후 판매를 이들에게 委託할 경우 편리하고, 販賣에 따르는 費用과 時間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며 農家調査에서도 「費用이 적게 들고 편리하므로」를 지적한 農家가 84.6%인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다. 論山 地域에서 특기할 사항은 위의 두 販賣處에서 米穀을 주로 수집하는 商人은 論山 地域의 商人이 아니라 大田 地域의 商人們로서 論山에 직접 내려와 米穀을 蒯集・搬出하고 있었다. 農家の 一般米 販賣量 중에서 특히 農協으로 系統出荷한 量은 利川 地域의 경우 一般米 販賣量 중 15.1%로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

났을 뿐 金堤 地域은 4.1%, 論山 地域은 0.9%에 불과하여 米穀의 農協系統販賣事業의 일 반적 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表 4-10. 調査農家の 一般米 販賣處別 販賣狀況(政府收買分
除外)

販賣處 地域	農 协	產 地 商 人	5 日 市 場	貨 捣 精 業 者	都市 및 產 地 小賣商	單位 : %
						計
利 川	15.1	74.0	10.1	-	0.8	100.0
金 堤	4.1	16.0	-	79.9	-	100.0
論 山	0.9	17.3	44.6	35.0 *	2.2	100.0
平 均	7.5	39.2	17.1	35.2	1.0	100.0

* 貨 捣 精 業 者에 販賣를 委託한 것을 말함.

表 4-11. 地域別 主要販賣處別 販賣動機

動 機	地 域 主要販賣處	利 川	金 堤	論 山	單位 : 人
		產地商人	貨 捣 精 業 者	貨 捣 精 業 者	5 日市場
先渡金을 利用하므로		10 (40.0)	13 (54.2)	-	-
費用의 적게 들고 권리하므로		13 (52.0)	9 (37.5)	11 (84.6)	1 (5.9)
價格條件이 유리하므로		1 (4.0)	1 (4.2)	1 (7.7)	4 (23.5)
代金決済가 빠르므로		-	-	-	8 (47.1)
적은 돈이 급히 필요하여		-	-	-	2 (11.8)
其 他		1 (4.0)	1 (4.2)	1 (7.7)	2 (11.8)
計		25 (100.0)	24 (100.0)	13 (100.0)	17 (100.0)

()내는 構成比임.

다. 時期別 米穀販賣狀況

農民의 米穀販賣時期는 現金需要, 價格에 대한 展望, 營農 및 生活計劃에 따라 결정된다. 政府收買는 最盛出荷期인 10월부터 다음해 1월 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실시되며, 이 시기에 農民들은 政府買上을 하여야 되므로 政府收買分에 대한 農民의 販賣時期決定은 그다지 중요할 級別가 아니다. 따라서 政府收買分을 제외한 一般米의 販賣時期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表 4-12>와 같다.

一般米의 月別 販賣狀況을 보면 1979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판매한 比率이 32.0%, 1980년 1월부터 3월까지가 20.3%, 4월부터 6월 사이가 30.1%, 7월부터 9월 사이가 17.5%로서 비교적 時間別로 고르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政府收買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政府收買分을 제외한 一般米의 販賣量이 32.0%나 된다는 것은 米穀出荷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¹⁾ 1971년 農業經營研究所가 조사한 결과¹⁾에서도 政府收買分을 제외한 一般米의 販賣比率이 10~12월 사이에 47.4%, 1~3월 사이에 20.7%, 4~6월 사이에 18.0%, 그리고 7~9월 사이에 13.9%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에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米穀出荷가 집중되고 있었다.

本 調査 결과에서 10~12월 사이에 판매한 一般米의 比率이 32.0%로 나타났으나 政府收買分을 포함할 경우 이 시기에 판매된 米穀은 總商品化量의 약 80%나 된다. 耕地規模別로 10~12월간의 一般米 出荷比率을 보면 大農層이 16.4%, 中農層이 28.3%, 小農層이 66.9%로서 小農層의 出荷比率이 大農層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아 一般米販賣가 米價水準이 가장 낮은 시기인 10~12월에 집중되는 주원인은 收穫 후 營農費償環 등 現金需要가 증대하기 때문이다. 本農家調查에서도 米穀의 販賣時期를 결정하는 주원인이 「現金需要때문」이라는

1) 農業經營研究所, 「米穀流通構造에 關한 研究:湖南米를 중심으로」

1971. p. 42.

表 4 - 12. 一般米의 月別 販賣狀況(政府收買分 除外)

月 規 模	單位 : %												
	'79 10	11	12	'80 1	2	3	4	5	6	7	8	9	計
小 農	4.3	36.6	26.0	0.9	5.4	4.5	7.3	2.6	0.5	4.2	7.8	0.1	100.0
中 農	4.2	7.6	16.5	3.7	6.9	9.7	16.3	12.6	5.8	9.4	4.7	2.5	100.0
大 農	1.8	8.7	5.9	6.8	8.0	10.9	20.9	8.6	6.9	10.5	7.9	3.2	100.0
平 均	3.3	14.2	14.5	4.3	7.0	9.1	16.1	8.9	5.1	8.7	6.6	2.2	100.0

農家가 46.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營農 및 生活計劃에 따라」가 29.2 %, 「價格水準」이 19.5 %로 나타난 것을 보아 農民들은 價格水準이 유리한 시기 또는 營農 및 生活計劃에 따라 米穀販賣時期를 결정하기보다는 現金需要 때문에 價格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米穀을 販賣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임을 알 수 있다. 耕地規模별로 볼 때 규모가 큰 農家일수록 價格條件이 유리한 시기에 販賣하고, 규모가 적은 農家일수록 現金需要에 따라 米穀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表 4 - 13〉.

表 4 - 13. 一般米 販賣時期決定에 미치는 要因

要 因 規 模	單位 : %				
	價 格 水 準	現 金 需 要	營 農 及 生 活 計 劃	其 他	計
小 農	16.1	67.7	12.9	3.2	100.0
中 農	14.3	46.9	34.7	4.1	100.0
大 農	30.3	27.3	36.4	6.1	100.0
平 均	19.5	46.9	29.2	4.4	100.0

3. 先 渡 金

農家調查 결과 利川 地域이나 金堤 地域의 경우 生產農家는 產地商人이나 貨搗精業者로부터 先渡金을 이용하고 있으나, 論山 地域의 農民들은 先渡金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利川이나 金堤 地域의 商人(貨搗精業者 포함)들은 物量 確保를 위하여 先渡金을 지급하고 生產農家는 現金需要 때문에 先渡金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두 地域의 調查農家 73戶 가운데 先渡金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農家는 43戶로 58.9%나 되며 小農層보다는 中農層이나 大農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14). 이와같이 中農이나 大農이 先渡金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商人們이 先渡金을 지급하는 주목적이 物量確保에 있기 때문에 販賣物量이 비교적 많은 中·大農層에 先渡金을 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 4-14. 先渡金을 사용한 經驗이 있는 農家

區 分		調査農家 (A)	先渡金을 使用 한 農家 (B)	單位 : 戶 B/A (%)
小	農	23	11	47.8
中	農	29	18	62.1
大	農	21	14	66.7
計		73	43	58.9

한편 農民들이 先渡金을 사용하는 理由는 現金이 필요할 때 去來關係가 있는 단골商人(貨搗精業者)으로부터 資金을 쉽게 융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先渡金額은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50~60만원에 달하고 先渡金 使用期間은 대체로 1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先渡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는 두 地域 모두 7~8월로 나타났는데, 이는 農藥購入 등 營農資金과 學資金 調達을 위한 資金需要가 이期間에 상대적으로 많은 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 4-15). 利川과 金堤 地域에서 先渡金을 사용하는 農家는 米穀을 商人이나 貨搗精業者에게 販賣하거나 판

表 4-15. 先渡金 利用時期別 農家分布

單位：戶

地域*	月 9 ~ 10	1980						計
		11 ~ 12	1 ~ 2	3 ~ 4	5 ~ 6	7 ~ 8		
利 川	7 (26.9)	3 (11.5)	1 (3.9)	3 (11.5)	1 (3.9)	11 (42.3)	26 (100.0)	
金 堤	4 (23.5)	3 (17.7)	1 (5.9)	3 (17.7)	1 (5.9)	5 (29.4)	17 (100.0)	
計	11 (25.6)	6 (14.0)	2 (4.7)	6 (14.0)	2 (4.7)	16 (37.2)	43 (100.0)	

() 内는 構成比임.

* 論山地域은 先渡金支給이 없으므로 제외되었음.

매를 委託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商人이나 質撻精業者들이 時勢에 의한 적절한 價格을 지불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대부분의 調査農家는 先渡金을 지불한 商人으로부터 받는 價格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先渡金을 이용하자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아 先渡金 利用은 農民에게 불리한 점도 있으나 現金이 필요할 때 先渡金을 이용함으로써 現金需要를 총족시켜 준다는 견지에서 先渡金支給은 공정적인側面도 없지 않다.

商人이 農民에게 先渡金을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利潤을 取得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表 6-21>과 같이 產地商人(質撻精業者)이 取得하는 利潤 1,430 원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이러한 利潤의 適正 여부에 관한 평가는 自家勞動報酬, 危險負擔, 固定 및 流動資本利子(先渡金利子 포함) 등 諸 變數를 고려해야 하겠으나 先渡金에 대한 利子만을 고려하더라도 쌀 1 叱當 先渡金 41,000 원에 대한 1 개월 간의 利子는 月利子率 3 부를 적용할 때 1,230 원이 되어 상인이 취득하는 利潤(1,430 원)의 약 36 %를 차지하므로 利子를 제외한 商人的 取得額이 불과 200 원이 되며 이는 서울 委託商의 委託手數料 500 원 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商인이 취득하는 利潤 1,430 원이 過多

하다고 볼 수 없을것같다. 물론 위의 계산은 先渡金을 支給한 商人이 時勢대로 農民에게 가격을 지불한다는 전제 아래서의 결과이다. 그러나 先渡金을 사용하고 앞으로도 資金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先渡金을 필요로 하는 農民은 商人과의 去來關係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時勢보다 다소 불리한 價格을 감수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리라 본다. 이와 같이 商人의 先渡金 支給은 단기적으로는 農民의 資金需要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農民들이 商人의 資金에 의존할 경우 去來上 地位의 취약성으로 정당한 價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農協의 農民에 대한 各種 資金의 貸出擴大로 農民의 先渡金依存率을 줄이는 對策이 要請된다.

앞에서 언급한 利川 지역이나 金堤 지역과는 달리 論山 지역의 產地商人은 農民에게 先渡金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論山 지역의 경우 5日市場의 機能이 비교적 활발하고 이 地域의 糜穀商(貨搗精業者)들이 米穀을 蔊集·搬出하는 것이 아니라 大田 居住 糜穀商들이 5日市場이나 貨搗精工場으로부터 직접 米穀을 蔊集·搬出하는 관계로 이들 大田商人들이 物量確保를 위하여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農民들도 現金이 필요하면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 米穀을 판매함으로써 資金調達이 가능하므로 구태여 商人으로부터 先渡金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論山 지역은 利川이나 金堤 지역처럼 先渡金支給에 따른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3개 지역을 살펴본 바와 같이 先渡金支給이 있는 地域은 ① 5일市場에서의 米穀去來가 활발치 못하고 ② 그 地域의 米穀商人들의 米穀市場占有rate이 높은 반면, 先渡金支給이 없는 地域은 ① 5日市場에서의 米穀去來가 활발하며 ② 그 地域의 商人이 아니라 他都市의 商人們의 米穀市場占有rate이 높은 것이 特徵이였다. 商人에 의한 先渡金支給은 農民에게 現金需要를 충족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商人과의 去來關係에서 劣勢에 놓이게 되어 정당한 價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4. 貯藏施設

米穀은 收穫後 政府收買에 應하거나 一般米로 販賣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農家나 그 밖의 保管施設에 貯藏된다. 대부분의 農民들은 政府收買分을 제외한 米穀을 精穀으로 저장하지 않고 일정기간 粗穀으로 저장하였다가 판매할 때 도정하여 精穀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粗穀으로 貯藏할 경우 精穀으로 저장할 때보다 減耗와 米質의 손상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가수준에서의 米穀 貯藏은 주로 粗穀으로 하고 있으며, 성곡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自家消費分 정도에 불과하고, 이때는 주로 自家施設을 이용하고 있었다.

粗穀을 저장할 때의 調査農家の 貯藏施設利用實態를 보면 뜻간이나 창고와 같은 自家施設利用率이 78.6 %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他人施設利用率은 21.4 %로 조사되었다. 地域別로 보면 利川 지역은 모든 農家가 米穀貯藏時 自家施設을 이용하는 반면에, 金堤 지역 農家の 경우 他

表 4-16. 粗穀貯藏施設別 貯藏狀況

地域	場所 區分	自家施設					他人施設		単位 : % 計
		뜻간	방마루	뒤지	집가리 (노지)	창고	임도정 공장	농협도 정공장	
利川	粗穀	38.6	16.3	-	1.5	43.6	-	-	100.0
	精穀	32.6	41.1	-	-	26.3	-	-	100.0
金堤	粗穀	11.1	7.4	-	11.1	14.8	51.9	3.7	100.0
	精穀	3.8	11.4	7.6	1.9	51.3	20.2	3.8	100.0
論山	粗穀	56.4	8.9	-	1.4	25.0	8.3	-	100.0
	精穀	9.5	50.5	30.3	-	5.3	3.2	1.2	100.0
平均	粗穀	37.6	11.4	-	4.0	25.6	20.4	1.0	100.0
	精穀	17.4	36.6	11.8	0.5	24.5	8.1	1.1	100.0

人施設인 貨搗精工場의 利用率이 51.9 %, 農協直營搗精工場의 利用率이 3.7 %로서 他人 施設利用率이 55.6 %나 되었다. 이와 같이 金堤 地域의 農家가 保有米穀의 約 51.9 %를 貨搗精工場에 저장하는 것은 農家の 貯藏施設이 미비한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貨搗精業者들이 搗精物量確保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農家の 米穀을 無料로 저장하였다가 產地商人에게 販賣하여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論山 地域의 農家는 他人施設을 利用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米穀(91.7 %)은 自家施設을 이용하여 貯藏하고 있다.

5. 輸送

農民이 生産된 米穀을 판매하려면 農家庭前販賣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옛부터 人力이나 牛馬車 등을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耕耘機의 이용율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으며 本調查 農家の 경우 米穀輸送時 耕耘機利用率은 58.6 %로서 이는 1978년 農協이 조사한 42.1 %보다 16.5 %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리어카나 牛馬車의 이용율이 24.5 %로서 아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17)。

表 4-17. 米穀販賣處別 販賣時 輸送手段
(政府收買分 포함)

單位 : %

輸送手段 販賣處	지게, 차전거	리어카	우마차	경운기	버스, 트럭	計
農 協	-	24.8	14.8	56.4	4.0	100.0
산지수집상	-	13.0	13.6	61.7	11.7	100.0
도정업자	1.8	12.6	14.3	50.9	20.4	100.0
5 일 시장	3.0	-	6.3	54.9	35.8	100.0
政府收買	0.4	14.1	12.1	67.0	6.4	100.0
平 均	1.1	12.3	12.2	58.6	15.8	100.0

6. 市場情報

農民이 一般米를 판매할 때의 時勢에 대한 情報入手處를 보면 產地商人(質搗精業者 포함)이나 5日市場이 84.4 %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農協이나 農協刊行物은 12.8 %에 불과하다.

地域別로 보면 利川 지역에서는 商人이나 5日市場으로부터가 74.2 %, 農協이나 農協刊行物이 22.9 %로서 農協의 情報活動이 他地域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金堤 지역의 경우 전자가 81.1 %, 후자가 14.2 %였다. 한편 論山 지역에서는 5日市場의 機能이 他地域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하여 대부분의 農民(97.5 %)이 5日市場으로부터 市場情報を入手하고 있다.

表 4-18. 米穀販賣時 價格情報入手處

單位 : %

入手處 地 域	商人(質搗精業者)이나 5일 시장(이웃)	新聞, TV, 라디오등 매스콤	農協이나 農協刊行物	計
利 川	74.2	2.9	22.9	100.0
金 堤	81.1	4.7	14.2	100.0
論 山	97.5	-	2.5	100.0
平 均	84.4	2.8	12.8	100.0

이와같이 農民들은 市場情報を 주로 產地商人(質搗精業者 포함)이나 5日市場등에서 입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입수한 市場情報은 일반적으로 客觀性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市場情報의 客觀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市場情報專擔機關에서 各地域의 市場情報を 農民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調查農家の 약 78 %도 이의 필요성을 認識하고 있다. 특히 農家水準에서 市場情報專擔機關이 필요한 이유로는 調査農家の 56.9 %가 「適正價格保障으로 商人에게 속지 않기때

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時勢를 알고 있으면 營農計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3.5 %나 되었다.

表 4 - 19. 市場情報專擔機關의 必要性에 관한 認識

單位 : 人

規 �模 \ 區 分	그 렇 다	그렇지 않다	모 르 겠 다	計
小 農	28	3	3	34
中 農	34	7	4	45
大 農	26	6	2	34
計	88 (77.9)		16 (14.2)	9 (8.0)
			113 (100.0)	

()내는 構成比임.

表 4 - 20. 市場情報專擔機關이 원요한 이유

單位 : %

規 模 \ 區 分	適正價格保障 으로 商人에 게 속지않는다	時勢를 알고 있 으면 營農計劃 에 도움이 된다	신속한價格動 向을 알 수 있 어 권리하다	計
小 農	56.2	21.9	21.9	100.0
中 農	57.2	21.4	21.4	100.0
大 農	57.1	28.6	14.3	100.0
平 均	56.9	23.5	19.6	100.0

第 5 章

產地米穀市場 調查結果

產地市場이란 米穀生產이 이루어지고 있는 農村地域에서 米穀이 農民의 손을 떠나 거래되는 과정에서 廉集 및 搬出이 主機能으로 되어 있는 市場¹⁾을 말한다. 따라서 米穀의 產地市場은 우리 나라의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本調查에서는 주요 畜作地帶인 利川, 金堤, 論山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米穀(一般米)市場概況, 流通組織과 產地米穀商人(質搗精業者)의 流通機能 그리고 地域別 米穀流通構造의 特徵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產地市場의 米穀流通構造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利川 지역의 產地商人은 대부분 物販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하고, 米穀을 반출할 때는 주로 서울小賣商과 直去來를 하고 있으며, 質搗精業者는 質搗精業만 할 뿐 米穀流通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金堤 지역의 경우 質搗精業者는 搗精業 이외에 買取 販賣行爲를 하고 있으며 物量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米穀流通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金堤 지역의 商人們은 米穀을 주로 서울에 반출하고 있으며 서울로 반출한 경우 원거리인 관계로 小賣商과의 直去來보다는 서초동의 委託都賣商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論山 지역의 商人們은 대부분 영세한 小賣商

1) 農林部 農業經營研究所, 米穀流通構造에 關한 研究(湖南米를 中心 으로), 1971, P. 65.

으로서 小賣業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米穀은 주로 大田 지방의 糜穀商에 의하여 廉集·搬出되고 있다. 大田 지방의 상인들은 論山까지 직접 내려와 5日市場이나 貨搗精工場에서 米穀을 廉集·搬出함으로써 論山의 米穀市場을 거의 獨占하고 있다. 또한 論山 지역은 利川이나 金堤 지역과는 달리 先渡金支給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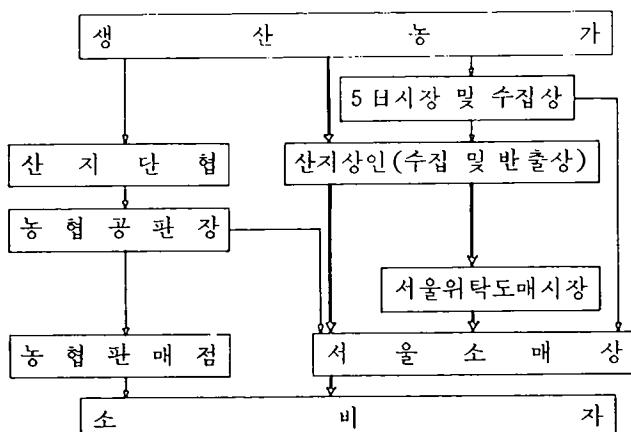
이와 같이 米穀流通實態는 그 지역의 지리적, 사회 경제적 제여건에 따라 약간의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本章에서는 調查地域別로 米穀流通組織 및 實態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京畿道利川地域

가. 商人組織과 流通經路

現在 利川地域의 등록된 商人은 29명으로 이들은 모두 利川邑과 장호원읍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商人們은 米穀의 廉集은 물론 搬出 및 小賣機能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편 利川 지역에는 貨搗精業者가 164명이 있으나 이들은 米穀流通에는 개입하지 않고 다만 貨搗精業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 5-1. 一般米 流通經路, 1980 (利川 → 서울)



利川 지역의 主要 流通經路를 보면 1970년대 초에는 委託·都賣市場을 경유하는 經路 즉 「生産者 → 移出商 → 委託都賣商 → 小賣商 → 消費者」인 經路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²⁾ 그러나 최근에는 委託·都賣市場으로 搬出되는 物量이 대폭 감소되고 消費地小賣商과의 直去來가 확대되어 〈生産者 → 產地商人 → 小賣商 → 消費者〉의 經路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圖 5-1).

나. 產地商人의 米穀買入 및 販賣實態

利川 地域의 米穀商人의 米穀購入處別 購入比率을 보면 農家가 78.8%, 產地蒐集商이 10.8%, 農協과 5日市場이 각각 5.2% 순으로 나타났다(表 5-1). 이 지역의 農家調査에서도 米穀販賣量(政府收買分 제외)의 74% 〈表 4-10〉가 商人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米穀蒐集은 주로 이들 商人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利川 지역의 商人們은 대부분 物量 확보를 위하여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수집할 때 차량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表 5-1. 調査商人의 一般米 買入處別 구성비

買入處	構成比
農家	78.8 %
蒐集商	10.8
農協	5.2
5日市場	5.2
計	100.0

이들 商人們은 先渡金의 支給 등을 통하여 生產農家와 밀접한 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米穀去來를 지속하고 있는 관계로 새로운 商人们的 市場介入

2) 農業經營研究所, 米穀市場流通에 關한 研究 - 경기미 중심 -, 1970. P 37.

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利川 지역의 米穀蒐集은 小數의 利川 商人們에 의해서 主導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米穀蒐集(需要)은 需要寡占(oligopsony)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農家の 米穀販賣(供給)는 販賣者가 다수인 관계로 完全競爭的 狀態에 놓여 있다 하겠다. 이러한 市場構造下에서, 農民들이 米穀을 販賣할 때 기준이 되는 價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產地商人들의 蒐集價格」이 基準이 된다는 應答이 47.2%인 17名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消費地의 小賣價格」이라는 應答이 25%인 9명이었으며, 「大消費地의 委託·都賣市場에서의 價格」이라는 農家는 1명에 불과하였다(表 5-2). 따라서 農家 수준에서 농민이 米穀을 판매할 때 基準이 되는 價格情報은 產地商人으로부터 입수하거나, 消費地의 小賣價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表 5-2. 調査農家の 米穀販賣 時 米價決定基準(利川)

單位 : 戶

基準 規模	消費地의 小賣價格	소비지의 위탁도매 시장가격	산지 상인의 수집가격	정부수매 가격	5日市場 의 시세	기타	計
小農	4	-	4	-	-	-	8
中農	2	1	9	3	2	2	19
大農	3	-	4	-	2	-	9
平均	9 (25.0)	1 (2.8)	17 (47.2)	3 (8.3)	4 (11.1)	2 (5.6)	36 (100.0)

() 内는 構成比。

한편 產地商人들의 米穀購入 또는 販賣時의 價格決定基準을 보면 「서울小賣商에서의 小賣價格」을 기준으로 한다는 商人이 10人 중 6人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委託都賣商에서의 價格」을 기준으로 한다는 商人은 3人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利川 지역의 產地商人이나 서울 小賣商人이

產地米價 形成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產地에서 米穀은 소수의 產地商人에 의하여 流通되는 반면, 農家는 商人으로부터 先渡金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價格情報面에서도 商人에 비하여 어두운 관계로 米穀去來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리라 본다. 특히 物量이 부족하여 價格變動이 심할 때는 農民들이 불리한 價格으로 販賣를 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利川 지역의 商人們의 米穀販賣處別 販賣比率을 보면, 利川 消費者가 52.5 %, 서울 小賣商이 36.2 %, 서울 委託商이 10.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반출된 米穀 중에서 小賣商으로 직접 반출된 餘이 약 78.4 %였으며, 委託都賣商으로 반출된 物量은 19.5 %로 나타나 현재 利川 지역에서의 米穀搬出經路는 產地直結搬入經路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5-3)。

表 5-3. 產地商人의 米穀 販賣處別 販賣狀況

單位 : %

販賣處 區分	產地消費者	서울小賣商	서울委託 都賣商	기타	計
I	52.5	36.2	10.2	1.1	100.0
II	-	78.4	19.5	2.1	100.0

I ; 총판매량을 100으로 한 구성비.

II ; 서울로搬出되는 總物量만을 100으로 한 구성비

이와 같이 서울 小賣商과의 直去來가 확대된 주요인은 첫째, 交通通信의 발달로 產地商人과 消費地商人과의 直去來가 용이하게 되었고

둘째, 產地直結搬入經路가 委託都賣商을 경유하는 經路보다 費用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表 6-21)

세째, 利川 지역의 一般米는 질이 매우 좋은 京畿米라는 점 때문에 서

을 消費者들의 選好度가 높아 小貿商들이 京畿米 확보를 위하여 利川 지역의 特定商人과 去來關係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비째, 委託都賣市場을 경유할 경우 稅源露出의 가능성성이 있어 都賣市場에 반출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 農協系統組織

利川 지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產地商人의 市場占有率이 상당히 높은 반면 農協系統販賣事業은 매우 부진하다. 利川郡에는 「郡組合」과 10 개의 「單位組合」이 있으며 農家調查 결과 농민들의 農協系統出荷는 政府 收買分을 제외한 一般米 流通量의 15.1 %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系統 Out荷事業이 부진한 이유는 <表 5-4>와 같이 調查農家の 64 %(55 戶)가

表 5-4. 農協系統出荷를 하지 않는 이유

單位；名

理 由 地 域	원 할 때 매입해 주지 않 으므로	조합운 영이 활 발치 못 하므로	상인과 의 거래 관계에 문에 (선도금 이용)	소량판 매를 인 정하지 않으므 로	수속이 복잡하 고 불친 절하므 로	교통이 불편 하므로	상인가 격보다 낮기 때 문에	기타	計
利川	-	14	3	2	1	2	1	1	24
金堤	-	17	2	-	2	1	1	2	25
論山	7	24	-	1	1	1	1	2	37
計	7 (8.1)	55 (64.0)	5 (5.8)	3 (3.5)	4 (4.7)	4 (4.7)	3 (3.5)	5 (5.8)	86 (1000)

() 内는 구성비.

「組合運營이 활발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農協 자체가 米穀의 系統出荷事業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農協이 米穀의 系統出荷事業을 적극적으로 推進할 수 없게 된 주요인은

- ① 產地商人들과 같이 農民이 現金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資金貸出을 할 수 없다는 점
- ② 組合員(農民)들의 農協事業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다는 점
- ③ 各系統組合의 販賣事業 담당자들은 事業遂行에 필요한 專門知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經營者로서의 신념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姿勢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 ④ 意思決定 과정에서 組合內의 流通業務 담당자들은 意思決定에 필요한 절차 및 규정에 충실히 하다 보면 市場狀況의 變化에 둔감해지기 쉬운 傾向이 있다³⁾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2. 全北金堤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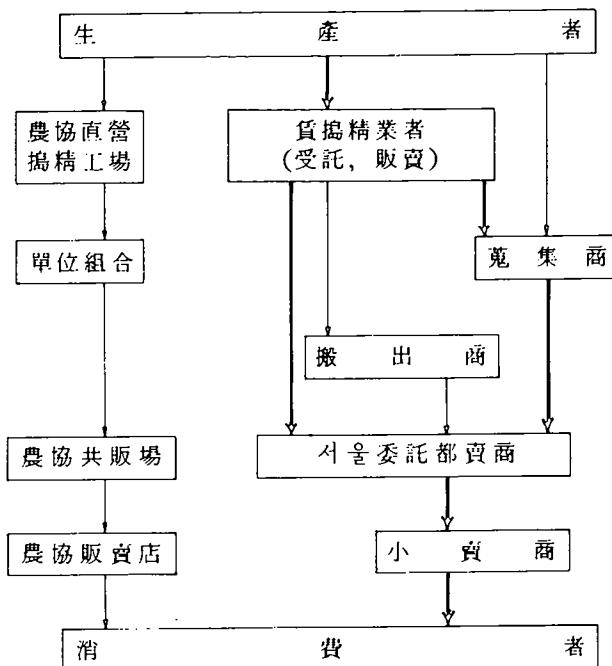
가. 商人組織과 流通經路

1970년대 초 金堤 지역의 商人組織은 貨搗精業者, 蒐集商, 移出商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貨搗精業者들은 「社團法人韓國糧穀加工協會金堤郡支部」를 통하여 각자 수집한 米穀을 서울이나 大田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었다. 당시의 주요 米穀流通經路로는 「生産者 → 貨搗精業者 → 加工協會 → 委託商 → 消費者」인 經路와 「生産者 → 蒐集商 → 移出商 → 委託商 → 小賣商 → 消費者」의 經路가 주축을 이루었으며, 전자의 經路가 약 23%를 차지하였다.⁴⁾ 그러나 1971년부터 多收性 新品種의 보급이 확대되고 政府收買量이 증가함에 따라 一般米流通量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1973년에 湖南高速道路가 개통되면서 鐵道利用率은 현저히 감소된 반면 점차 高速道路利用이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로 여전히 변하게 되자 加工協會의 機能이 점차 축소되어 1980년 현재는 加工協會가 米穀流通過程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圖5-2>

3) 李來秀, “協同組合의 農產物 流通機能”, 「아시아諸國의 食品流通」,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政策協議會 시리즈 4, 1980. 7, P. 51.

4) 農業經營研究所, 「米穀流通構造에 關한 研究 : 湖南米를 中心으로」 1971, PP. 67-69.

圖 5-2. 一般米 流通經路, 1980(金堤 → 서울)



현재 金堤 지역의 一般米 流通에 관여하는 商人組織은 質搗精業者 176人, 糧穀小賣商 80人, 都賣商 16人, 그리고 小數의 未登錄蒐集商 및 搬出商 등으로構成되어 있다. 이를 商人 중에서 小賣商은 運營資金이 30~60만원 정도로 規模가 매우 영세한 관계로 米穀의 蒜集이나 搬出機能은 일반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나. 產地商人의 米穀買入 및 販賣實態

金堤 地域의 農家調査에 의하면 政府收買分을 제외한 농가의 米穀販賣量의 약 80%가 質搗精業者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質搗精業者가 一般米流通에 적극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5-5). 따라서 金堤 지역의 產地米穀 流通實態를 분석함에 있어서 質搗精業者들이 米穀流通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表 5-5. 金堤地域 調査農家の 米穀販賣處別 販賣狀況
(政府收買分 제외)

單位 ; %

販賣處 區 分	農 协 (單 協)	產 地 商 人	貨 搗 精 業 者	計
新 品 種	-	27.1	72.9	100.0
一 般 品 種	6.9	8.2	84.9	100.0
平 均	4.1	16.0	79.9	100.0

현재 金堤郡內 貨搗精工場數는 176 個所로 1개면에 6 ~ 19 개소씩 분포되어 있으며, 年間搗精量이 3,000 吼(精穀 80 kg)미만인 貨搗精工場數는 88 개소로 전체의 약 50 %나 되는 것으로 보아 零細한 貨搗精工場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5-6. 貨搗精工場의 規模別分布(金堤地域)

年 間 搗 精 量	個 數	構 成 比
7,000 吼(정곡 80 kg)以上	18 個所	10 %
5,000 ~ 7,000	35	20
3,000 ~ 5,000	35	20
3,000 吼 미만	88	50
計	176	100

資料 ; 全國糧穀加工協會 金提郡支部

上記 貨搗精工場의 年平均 搗精量은 약 3,700 吼(精穀 80 kg)으로서 이는 1971년 新品種이 보급되기 이전에 農業經營研究所에서 조사한 이 지역 貨搗精工場의 年平均 貨搗精量 5,000 여吼⁵⁾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5) 前揭書, P. 71.

이다. 이와 같이 貨搗精工場의 搗精量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政府收買物量이 增加한 데 주로 기인된다.

搗精物量이 年間 3,600 叴(月 300 叴)일 때의 貨搗精工場의 月收益성을 살펴보면 <表 5-7>과 같이 自家勞賃을 제외한 月純收益은 약 12 만여원에 불과하여 貨搗精收入만으로는 生計費조차 총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金堤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貨搗精業者들은 貨搗精收入이외의 追加的인所得을 확보하기 위하여 產地米穀流通에 적극 개입하여 여러 가지 機能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貨搗精業者는 搗精物量

表 5-7. 月 貨搗精量이 300 叴(精穀 80 kg)時
貨搗精工場의 收益性(1979년 기준)

費 目		金額	備 考
搗 精 收 入 ¹⁾ (A)		510,084 원	$1,080 \text{ kg} \times 472.3 \text{ 원}$
支 出 ²⁾	電氣料	27,000	$300 \text{ 叴} \times 1.5 \text{ kw} \times 60 \text{ 원}$
	稅 金	11,667	$140,000 \text{ 원} \div 12 \text{ 月}$
	減價償却 및 修理費	250,000	$300 \text{ 半원} \div 12 \text{ 月}$
	人 件 費	75,574	$1 \text{ 人} \times 2 \text{ 叴} \times 37,787$
	雜 費	20,000	-
	流動資本利子	1,904	$114,241 \text{ 원} \times 0.2 \div 12 \text{ 月}$
小 計 (B)		386,148	-
純 收 益(A - B)		123,936	-

1) 貨搗精料 ; 叴(精穀 80 kg)當 3.6 kg, 叴當價格은 37,787 원 ('79 年度
年平均農販價格) 으로 計算

2) 自家勞動報酬 제외.

確保를 위하여 農民에게 先渡金을 지급하고 있으며 米穀의 受託保管業務
는 물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蔑集 販賣機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金堤 지역의 貨搗精業者 10人을 조사한 결과 6人이 先渡金을 지

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利川 지역에서는 郡內 糜穀商들이 先渡金을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하여, 金堤 지역에서는 貨搗精業者가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었다. 또한 金堤 지역의 貨搗精業者는 대부분 農民이 원할경우 자기 공장에서 搗精한 米穀을 受託保管하고 있었다. 이 밖에 調査上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나 金堤 지역의 搗精業者중 상대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米穀의 蒐集 및 販賣機能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調査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⁶⁾

이와 같이 金堤 지역의 貨搗精業者가 先渡金支給은 물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米穀의 買取·販賣事業까지 수행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產地(金堤)市場의 米穀流通秩序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貨搗精業者들이 買取·販賣業 등의 機能을 하는 주원인은 搗精物量의 감소로 搗精收入이 너무 낮아 追加收入源을 얻으려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搗精施設이 搗精物量에 비하여 과다한 데 기인 된다. 따라서 既存施設은 米穀流通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貨搗精業者의 商行爲를 制度的으로 허락함으로써 음성적인 商行爲를 양상화하고 이에 대한 指導를 强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후화되고 영세한 貨搗精工場은 도정과정에서 상당한 糜穀의 減耗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확 후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減耗를 줄이고, 米穀流通의 效率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되고 영세한 貨搗精工場은 단계적으로 적정규모의 現代施設을 갖춘 搗精工場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貨搗精工場의 規模가 확대되고 시설이 현대화되면 이를 貨搗精工場을 「產地米穀集荷場」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貨搗精工場에서 米穀의 規格화나 等級化도 가능하리라 본다.

6) 農協中央會, 「米穀 마케팅 實態調査 報告書」, 1978, P. 192.

다. 農協系統出荷

金堤郡에는 「郡組合」과 17 개의 「單位組合」이 있으며 利川 지역과 마찬가지로 一般米의 系統出荷가 대단히 미비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利川 지역의 農協系統組織이 제대로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요인과 비슷하여, 그 외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單協이 비교적 쉽게 一般米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單協直營搗精工場(15개소)에서 搗精한 一般米를 買取하는 방법이겠으나, 현재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搗精物量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流通物量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둘째, 서울의 農產物共販場으로 系統出荷할 경우 湖南米는 米質이 좋은 上品도 京畿米와 같이 높은 價格을 받기 어렵고, 政府放出價格이 낮기 때문에 赤字를 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農協(單協)의 米穀系統出荷는 매우 서조하며, 따라서 產地(金堤)市場의 占有率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3. 忠南論山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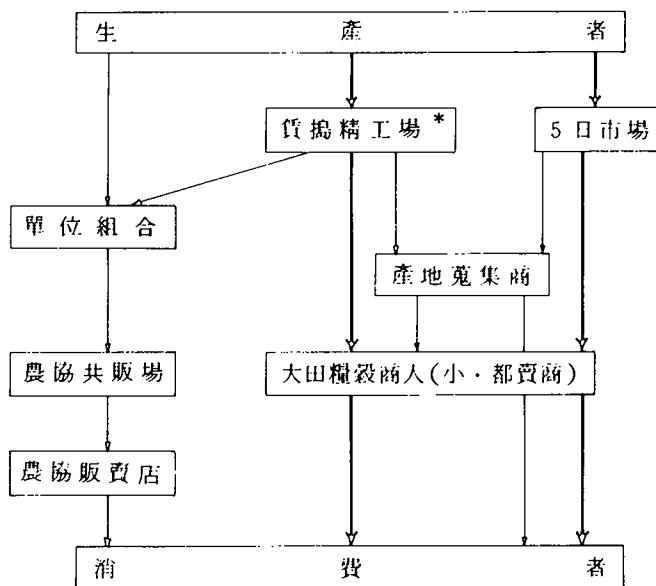
가. 商人組織과 流通經路

論山 지역에는 현재 小賣商人 109 명, 都賣商人 5 명 등 모두 114 명의 등록된 商人이 있으나, 이들 商人的 대부분은 小賣業에만 전념할 뿐, 農家로 부터의 米穀蒐集이나 외부로의 米穀搬出機能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論山 지역은 4 ~ 5 년전만 하여도 米穀流通은 주로 이들 郡內의 商人們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나 현재는 交通 및 輸送手段이 발달함에 따라 40 ~ 50 여명으로 추산되는 大田 지방의 商人們이 소형 차량을 이용하여 5 日市場이나 貨搗精工場에서 직접 米穀을 草集・搬出하고 있다. 따라서 論山 지역의 대부분의 米穀(一般米)은 大田 지방으로 반출되며, 이 때의 주요 流通經路는 <圖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産者 → 貨搗精工場 또는 5 日

市場 → 大田商人」의 經路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大田 商人們의 市場占有率이 높은 이유는 論山으로부터 직접 米穀을 募集・搬出함으로써 產地商人(蒐集商)이나 都賣市場을 경유하여 米穀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叱(精穀 80 kg)當 500 ~ 1,000 원의 추가적인 利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圖 5-3. 一般米流通經路, 1980 (論山→大田)



* 商人으로서가 아니라 農民과 商人과의 去來場所의 提供 또는 仲介者로서의 機能을 하고 있음.

나. 產地商人의 米穀買入 및 販賣實態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論山지역의 米穀은 論山郡內의 商人이 米穀을 募集 및 搬出하는 것이 아니라 大田 지방의 商人們에 의해서 募集・搬出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大田 商人에 대한 조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었으나, 論山 지역의 農家나 貨搗精業者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大田 商人們의 米穀流通實態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利川이나 金堤 지역에서는 農民들은 현금이 필요할 때 商人이나 貨搗精業者들로부터 先渡金을 지급받고 있는데 반하여 論山地域에서는 商人们이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하지 않고 農民들도 先渡金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農民들이 先渡金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이유는 5日市場에서의 米穀去來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에 農民들은 現金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5日市場에 米穀을 출하함으로써 現金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商人們의 입장에서도 5日市場에서 필요한 物量을 손쉽게 買入할 수 있으므로 物量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論山 지역의 貨搗精業者들은 金堤 지역의 貨搗精業者들처럼 商行爲를 하지 않고, 다만 搞精物量 確保를 위하여 자기 공장에서 搞精한 米穀을 商人에게 販賣를 알선하는 등 농민들에게 협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論山邑(5日市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농민들은 貨搗精業者에게 販賣를 위임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5日市場까지 米穀을 運搬하는 데 소요되는 輸送費 300여원(정곡 80kg臥當)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論山 지역의 경우 貨搗精業者가 農民에게 米穀販賣를 알선하여 주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할 가능성은 농민들이 5日市場으로부터 時勢를 5일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4. 產地米穀市場의 特徵과 調査要約

우리 나라의 主要畠作地帶인 利川, 金堤 그리고 論山 地域을 중심으로一般米의 產地流通實態를 살펴본 바와같이 地域間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 3개 郡의 米穀流通實態調査만으로는 우리 나라의 產地

米穀市場構造의 파악이 불충분한 관계로 10개 지역⁷⁾을 추가로 선정하여 產地市場의概要를 조사하였다.

產地米穀市場은 <表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先渡金支給이 성행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지역도 있고, 消費地와 直結搬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지역도 있다. 또 貨撾精業者가 貨撾精

表 5-8. 調査地域別 米穀市場의 特徵

區分 地 域	主要一般米栽培品種	主要搬出地域	主要搬出經路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인	先渡金有無 (농가 수준)	5日市場에서의 米穀去來	農協의 미곡제통출하사업	임도정업자의 기능 (역할)
경기 이천	아	서울	직	산	有(상)	×	부진한	I
전북 김제	밀	서울	위	암	有(임)	×	"	II
전북 익산	밀	서울	위	임	無	×	"	II
충남 논산	밀	대전	직	타	無	○	"	I
충남 서산	아	서울	직	임산	有(임)	×	"	II
충북 괴산	아	서울	직	산	無	○	"	III
충북 청원	아	청주	직+위	산	無	○	"	I
경북 안동	-	서울	위	산	無	×	"	I
경북 의성	밀	대구	직	산	無	×	"	I
경남 진양	밀	마산	직	산	無	○	"	I
경남 하동	밀	부산	직	타	有(상)	×	"	I
강원 원성	아	원주	직	타	無	×	"	I
강원 횡성	아	원주	직	타	無	×	"	I

<보기> 아; 아끼바래, 밀; 빌양 15호, 직; 직결반입, 위; 위탁도매상경유
산; 산지상인, 임; 임도정업자, 타; 타지방(소비지)상인

○; 비교적 활발, ×; 거의 없음, I; 임도정업만함

II; 임도정업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함.

7) 追加調査地域은 강원도 원성군 횡성군, 전북 익산군, 충북 청원군, 괴산군, 충남 서산군, 경북 안동군 의성군, 경남 진양군 하동군등 10개 郡임.

이외에 米穀流通에 깊이 관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다만 貨搗精業만 하는 지역도 있고, 5日市場에서의 米穀去來가 비교적 활발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米穀의 產地市場構造가 地域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지역의 오랜 米穀流通慣習과 地理的條件, 社會 經濟的 諸與件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產地市場에서의 米穀流通, 특히 流通組織上의 改善方案을 모색할 때는, 그 地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地域的 特性을 무시한 創一的인 改善方案은 현실성이 제약되리라 본다.

위 13개 郡의 產地米穀市場 調查結果 貨搗精業者가 貨搗精業 이외에 法的으로 禁止되어 있는 米穀의 買取·販賣까지도 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의 金堤, 익산, 충북 괴산, 충남 서산의 4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買取販賣業과 같은 商行爲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商行爲를 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도 貨搗精業者들은 단순히 貨搗精業만 하는 것이 아니라 論山 지역의 貨搗精業者들과 같이 자기 公장에서 도정한 米穀을 상인들에게 단순히 販賣를 알선하여 주는 이른바 農民과 商人과의 仲介내지는 去來場所를 제공하는 등 產地米穀集荷場의 역활을 어느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利川 지역에서는 商人們이 農家庭前에서 米穀을 蒐集하는 比率이 약 56 %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貨搗精工場에서 상당한 米穀去來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利川, 金堤, 論山등 3개 지역의 農家調査에서도 政府收買分을 제외한 米穀販賣量 중 販賣場所로서 貨搗精工場이 46.3 %, 農家庭前이 27 %, 5日市場이 13.1 %인 점으로 보아 販賣場所로서는 貨搗精工場이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 6 章

消費地米穀市場 調査結果

1. 서울시 米穀市場 概要

가. 商人分布

1980년 6월 30일 현재 서울市의 登錄된 糧穀商數는 仲介業者 141명, 都賣業者 29명, 小賣業者 6,491명이며 이것은 糧穀管理法에 의한 許可基準으로 파악된 수이므로 機能面에서 본 業態別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성동中央市場內의 상당수의 糧穀商은 小賣業許可를 받고 都賣行爲를 경하고 있으며, 서초동 소재 糧穀 類似都賣市場內 仲介業者들도 委託販賣뿐만 아니라 買取販賣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¹⁾ 현재 강남구 서초동 소재 糧穀 類似都賣市場內에는 委託商 14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서울市의 糧穀都賣市場 移轉計劃에 의해 1977년 1월에 서초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龍山駅荷置場과 성동중앙시장에서 委託業을 하고 있었다. 이들 委託商은 產地의 菁集·搬出商들로부터 大量의 米穀販賣를 委託받거나 買取하여 주로 小賣商 혹은 大量需要者에게 판매하고 있다.

1) 農협중앙회, 「米穀마케팅 實態調査 報告書」, 1978. p. 255.

또한 糧穀都賣商으로 등록된 商人 중에는 상당수가 小賣業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동중앙시장 내에는 糧穀都賣商 11명, 小賣商 40여명이 營業을 하고 있으나 都賣商 중에 米穀을 주로 취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콩·팥·수수·조 등 糧穀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米穀의 경우에는 小賣商이 都賣機能까지 수행하는 예가 많다. 대부분의 都賣商은 委託商을 거치지 않고 產地搬出商으로부터 직접 米穀을 購入하여 小賣商이나 大量消費處에 판매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大都市에 개설된 農協共販場은 米穀의 中繼市場機構로서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나, 農協共販事業의 부진으로 一般米流通에 있어 그 比重이 극히 낮으며, 政府米의 分配業務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市에는 6개소의 農協共販場이 있으며 共販場에서는 產地의 單位組合 또는 郡組合으로부터 系統出荷된 米穀을 買取 혹은 受託하여 農協販賣店을 통하여 販賣하거나 指定去來人에게 판매한다.

Consumption地市場에서 최종적인 分散機能을 수행하는 것은 一般小賣商과 農協販賣店이다. 小賣商은 一般米와 政府米를, 農協販賣店은 農協系統米와 政府米를 각각 취급하고 있다.

表 6 - 1. 全國 및 서울市 糧穀商 分布現況(80. 6.30현재)

區分	委託商	都賣商	小賣商	農協販賣店	蒐集商
서울市 (A)	141	29	6,491	1,384	9
전국 (B)	180	467	25,279	3,759	1,787
A / B 百%	78.3	6.2	25.7	36.8	0.5

資料：農水產部 調查課；農協 共販部

1980년 6월 30일 현재 서울市에는 <表 6-1>과 같이 一般小賣商이 6,491명, 農協販賣店 1,384개소(糧穀販賣店 510개소, 綜合販賣店 874개소)가 있다. 서울市의 地域別 小賣店舗分布는 <表 6-2>와 같다.

表 6-2. 서울市 地域別 小賣商 및 農協販賣店 分布

區分 地域別	1) 小賣商數 (A)	農協 販賣店 (B)	計 (C)	3) 人口數 (D)	D/A	D/B	D/C
종로구	269	37	306	千名 320	1,190	8,649	1,046
중구	289	48	337	250	865	5,208	742
동대문구	729	142	871	823	1,129	5,796	945
성동구	525	121	646	679	1,293	5,612	1,051
성북구	441	81	522	593	1,345	7,321	1,136
도봉구	625	124	749	749	1,198	6,040	1,000
서대문구	353	65	418	422	1,195	6,492	1,010
마포구	326	62	388	434	1,331	7,000	1,119
용산구	280	62	342	352	1,257	5,677	1,029
영등포구	804	200	1,004	1,003	1,248	5,015	999
관악구	736	146	882	979	1,330	6,705	1,110
강남구	158	63	221	345	2,184	5,476	1,561
강서구	332	87	419	470	1,416	5,402	1,122
강동구	276	56	332	466	1,688	8,321	1,404
은평구	319	65	384	379	1,188	5,831	987
계	6,462	1,359	7,821	8,264	1,279	6,081	1,057

1) 小賣商分布는 79년 12월 31일 기준임.

2) 農協販賣店分布는 79년 6월 23일 기준임.

3) 서울市 常住人口數임. (79. 10. 1)

資料 : 서울市 糧政課, 統計課 ; 農協中央會 共販部.

一般小賣商의 경우 小賣商 1개소가 차지하는 人口數는 강남구가 2,184명으로 제일 많고 中區가 865명으로 제일 적다. 一般小賣商은 人口 약 1,300명당 1개소, 農協販賣店은 人口 약 6,000명당 1개소 정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一般小賣商과 農協販賣店을 합한 糜穀小賣店舖는 人口 1,057명당 1개소 정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中區, 江南區 및 江東區를 제외하고는 地域別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小賣商은 委託商이나 都賣商으로부터 米穀을 구입하거나 產地 搬出商으로부터 米穀을 직접 구입하여 最終消費者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小賣商은 分散機能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規模가 큰 小賣商은 產地에 직접 가서 米穀을 蒐集・搬出하기도 한다. 또한 영세한 小賣商은 大規模商人이 產地에서 수집한 米穀을 공급받거나 몇몇 零細小賣商이 공동으로 產地에서 蒐集하여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나. 米穀搬入量 推移

서울市의 年間 米穀搬入量을 <表 6-3>과 같이 1人當 年間 消費量에 서울市 常住人口數를 곱하여 추정하였는데, 이는 서울市에 搬入된 米穀은 再搬出되지 않고 常住人口에 의하여 當年에 전부 消費되어 在庫增減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론 서울市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인구가 매일 이동하나, 本推定에서는 이 流動人口는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된 1979년도 서울市 米穀搬入量은 약 1,050천톤으로 추정되며, 이를 流通經路別로 보면 政府米放出量이 725천톤으로 전체 搬入量의 약 69%를 차지하였고, 自由市場을 거치는 搬入量은 325천톤으로 약 3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市의 糜穀搬入量(消費量) 중 政府米放出量의 比率은 1975년의 33.4%에서 1979년엔 69.0%로 증가하였다. 서울市 米穀搬入量 중에서 農協系統出荷量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의 6.0%에서 더욱 감소하여 一般米에 대한 最高價格制를 실

시한 1978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²⁾ 또한 서울市 米穀搬入量 중 類似都賣市場을 경유한 物量은 <表 6-3>과 같이 1977년까지는 약 2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78년에는 5.7%, 1979년에는 3.2%로 격감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市 米穀流通에 있어서 都賣市場組織의 비중이 낮아지게 된 것은 政府米의 放出量이 증대함에 따라 自由市場經路 流通量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데다 產地蒐集 搬出商과 消費地小賣商間의 直結去來가 성행하게 된 데 주로 기인한다.

表 6-3. 流通經路別 서울市 米穀搬入量

單位 : 千t

米穀 年度	總 搬入量 1)	政 府 放 出 量	農 協 系 統 出 荷 2)	都賣 市 場 經 由 3)	直 結 搬 入 4)
1975	827 (100.0)	276 (33.4)	50 (6.0)	195 (23.6)	306 (37.0)
1976	839 (100.0)	361 (43.0)	40 (4.8)	158 (18.8)	280 (33.4)
1977	916 (100.0)	233 (25.4)	40 (4.4)	194 (21.2)	449 (49.0)
1978	1,011 (100.0)	501 (49.6)	13 (1.3)	58 (5.7)	439 (43.4)
1979	1,050 (100.0)	725 (69.0)	18 (1.7)	33 (3.2)	274 (26.1)

()안은 構成比임.

1) 糜穀 消費量 調査結果에 의한 非農家 1人 1年間 米穀消費量 ×
서울市 常住人口數

2) 서울市 農協共販場 販賣實績(歷年基準임).

3) 서초동 類似都賣市場 搬入量임 (76年 이전은 龍山駅 搬入量)

4) 總搬入量 - 政府放出量 - 農協系統出荷量 - 都賣市場經由 搬入量

資料：農水產部 食糧局.

農協中央會 共販部.

2) 前揭書, p.234.

2. 類似都賣市場의 米穀流通實態

가. 米穀搬入 狀況

현재 서초동 所在 糜穀市場은 法定都賣市場으로서 개설되지 못하였으므로 類似都賣市場에 해당된다. 서초동 糜穀市場은 總 8,000坪 정도의 規模이나, 이 가운데 有蓋荷置場이 1,700坪, 事務室이 430坪 정도이고 나머지는 駐車場이며, 荷置場 이외 별도의 保管施設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외 輸送을 위한 連繫車輛 80대가 있고 勞組員 150여명이 荷役을 담당하고 있다. 市場의 管理運營에 관한 사무는 委託商組合에서 수행하지만 米穀去來는 個別 委託商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동中央市場에 都賣 및 小賣商 약 50여명이 각자의 店舖를 보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성동시장 米穀搬入量은 극히 적으므로 本調查에서는 서초동 米穀市場의 調査에 중점을 두었다.

類似都賣市場의 米穀搬入量 推移를 보면 1975년부터 1977년까지는 1일 平均 5,000 吋 이상이 搬入되었으나, 1978년에는 1日平均 약 2,000 吋, 1979년은 약 1,100 吋, 1980년에는 약 900 吋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9년도 서초동 糜穀市場에 搬入된 米穀은 서울市 消費量³⁾의 32%에 불과하다(表 6-3). 그런데 1970년과 1971년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당시 서울市로 搬入되는 湖南米의 商人組織 流通量은 대부분이 서울의 서울의 委託都賣商을 경유하여 유통되고, 京畿米의 경우에도 商人組織 流通量의 63%정도가 委託都賣商을 경유하여 搬入되고, 나머지 37%정도는 小賣商으로 직접 搬入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都賣市場을 거치는 米穀流通量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政府米放出量의 증대로 自由市場 流通量이 크게 줄어든 데다 1977년 7월 附加

3) 農林部, 農業經營研究所, 「米穀市場流通에 관한 研究: 京畿米中心」, 1970 p.39
 農林部, 農業經營研究所, 「米穀流通構造에 관한 研究: 湖南米中心」, 1971p.89

價值稅制가 실시된 이후 產地搬出商人이나 未登錄商人이 稅源露出을 염려하여 都賣市場에 반출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특히 1978년 6월 중순부터 最高價格을 叱當 3만원으로 통제하게 되자 產地商入이 價格統制가 심한 都賣市場에 반출하지 않고 小賣商과의 直去來를 증대시킨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表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價格統制가 실시된 78년 6월 7월, 8월에는 都賣市場搬入量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價格統制가 한때 都賣市場 沈滯의 주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表 6-4. 都賣市場 一般米 月別 搬入量

單位 : 吵 (80 kg)

月別 米穀年度	1976	1977	1978	1979	1980
11	247,191	271,591	169,963	123,808	48,919
12	289,373	274,900	156,214	69,176	40,182
1	233,395	217,803	102,700	40,683	32,659
2	158,354	163,408	35,395	24,761	33,741
3	213,695	160,246	49,921	18,011	17,547
4	218,604	206,651	15,911	12,678	18,963
5	219,928	187,946	46,569	8,091	23,258
6	123,144	200,263	7,258	6,659	16,965
7	36,232	172,016	-	7,848	20,369
8	30,308	182,278	-	10,138	21,489
9	43,528	187,901	18,836	18,145	26,819
10	158,921	199,041	80,091	75,465	39,496
計	1,972,673	2,424,044	718,858	415,463	340,408
1日平均	5,405	6,641	1,965	1,138	933

(서초동 糜穀市場搬入量임).

資料：農水產部, 「糧穀價格便覽」, 1979.

委託商에 대한 聽取調查에 의하면 都賣市場에 반입되는 米穀의 產地別構成은 湖南米가 전체 搬入量의 60 ~ 70 %를 차지하고 있고 京畿米 10 ~ 20 %, 忠淸米 10 ~ 20 % 其他 嶺南 및 江原米가 10 %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產地商人 調查結果에서도 京畿米, 忠淸米는 대부분 產地搬出商人이 직접 小賣商으로 반출하고 委託商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季節別 都賣市場 入荷量을 보면 1976년부터 1980년까지의 盛出荷期 3개월간(11, 12, 1월)의 月平均 入荷量은 155 천斗인데 비하여, 短境期 3개월간(6, 7, 8월)의 月平均入荷量은 56 천斗에 불과하여, 季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去來實態

현재 서초동 糜穀市場內에 있는 서울糧穀委託商協會와 中央糧穀委託商組合에 가입된 委託商數는 141명에 이르고 있으나, 短境期인 調查當時(8월)에 營業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60 ~ 70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10년이상의 米穀商經歷을 갖고 있으나 연령별로는 40代와 50代가 70 %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本調査에 의하면 委託商은 일반적으로 1,500 ~ 2,000 만원 정도 (米穀 300 ~ 400 叉代金에 해당함)의 運營資金을 보유하고 있으며, 營業規模에 따라 계절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委託商의 運營資金規模가 상당히 큰 것은 物量確保를 위해 產地蒐集·搬出商에게 先收金을 지급하기도 하고 위탁받은 米穀代金의 일부 혹은 전부를 販賣前에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며, 小賣商에게도 며칠간의 外上決済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委託된 米穀代金의 전부를 事前決済하는 경우는 사실상 都賣行爲를 하는 셈이 된다.

1980년도 서초동 都賣市場의 月平均 入荷量 28,367 叉에 서초동 시장에서 營業을 계속하는 委託商數 60명 정도를 적용할 경우 委託商 1人當

月平均 穗취급물량은 473 吨 정도로 극히 적은 수준이다. 이 경우 현재 委託手數料가 100 원이므로 委託商의 月粗收益은 24 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委託商은 보통 1 ~ 2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荷置場賃借料, 組合運營費, 事務室 賃借料, 電話料 등 諸費用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月收入 24 만원으로 이들이 營業을 계속할 수 없다는 계산이 된다. 위의 搬入量資料가 다소 過少評價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위와 같이 낮은 委託收入으로 營業을 지속한다는 것은 委託商은 본래의 委託業務 이외에 買取販賣行爲를 함으로써 追加의 利潤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去來形態, 規模 등에 관한 委託商聽取調查에서도, 그들의 營業上 秘密이라는 이유로 (특히 課稅와의 關係) 밝히기를 꺼리지만 買取販賣, 先渡金支給事實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委託都賣商의 米穀購入處는 產地蒐集 · 搬出商, 搞精業者 등이며 販賣處는 주로 小賣商과 大量實需要者이나 서초동으로 移轉한 이후엔 交通關係로 實需要者의 購入比重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한다.

委託商은 米穀販賣를 委託받을 때 代金을 선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小賣商에 대한 外上販賣比率도 30 ~ 40 %나 되는 것으로 調查되었다. 米穀類似都賣市場에서의 米穀去來는 競賣制가 아니고 개별委託商이 米穀入荷量과 需要量의 變化, 產地와 消費地市場의 價格 등을 고려하여 販賣價格을 제시하고 小賣商은 대체로 이에 追隨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米穀의 等級化 · 標準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委託商間에도 다소간 價格 差異가 있고 產地나 等級을 속임으로써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小賣段階의 流通實態

가. 調查商人의 概況

本小賣商調查에서는 서울市의 小賣商 50 명을 有意選定하여 調査하였으며, 성동中央市場內의 小賣商과 같이 都賣業을 겸하는 商人은 調査對象에

서除外하였다. 또한 小賣商의 標本選定에 있어서 痘地 및 都賣市場과의 거리 및 小賣商의 位置(住宅街, 市場, 아파트地域 등) 등을 고려하여 서울市 전지역에서 가능한 한 골고루 선정되도록 노력하였다.

小賣商人의 營業經歷은 <表 6-5>에서와 같이 3년 이하인 경우가 42%나 되었고, 1년 이하인 사람도 20%나 되었는데, 이로부터 최근에 小賣業에 참여한 商人이 상당수에 달함을 알 수 있다. 營業主의 연령은 30세이하인 사람이 18%이며 30代와 40代가 62%를 차지하였다. <表 -6>.

表 6-5. 小賣商人의 營業經歷

營業年數	小賣商數	構成比(%)
3년 이하	21	42
4 ~ 6년	14	28
7 ~ 9년	5	10
10년 이하	10	20
計	50	100

表 6-6. 小賣商人의 年齡

年齡	小賣商數	構成比(%)
30才 이하	9	18
31 ~ 40才	19	38
41 ~ 50才	12	24
51 ~ 60才	7	14
61才 이상	3	6
計	50	100

나. 小賣商의 去來實態

1) 米穀購入 狀況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比率을 보면 <表 6-7>과 같이 委託商이나 都賣商으로부터 구입한量은 24%에 불과하고, 小賣商이 직접 產地市場에 가서 구입해 오거나 產地의 荷主가 小賣商으로 반출해 온 것을 구입한量이 71%에 달하고 있다.

表 6-7.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量比率

區 分	購入量比率(%)
都賣市場(委託·都賣商)	24.4
產地市場(農民·商人·搗精業者)	7.0
荷主直接搬入	64.4
其 他	4.2
	100.0

* 이 경우의 荷主는 주로 蔓集·搬出商人이며, 農民, 搗精業者 등인 경우도 있다.

또한 小賣商의 米穀購入時 都賣市場(委託商 혹은 都賣商) 利用度를 보면 <表 6-8>에서와 같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小賣商이 56%에 달하고 購入量의 60% 이상을 都賣市場에서 購入하는 小賣商은 1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小賣商이 米穀購入時 產地直結去來를 하는 주된 이유는 <表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費用이 적게 들거나 구입가격이 싸서 보다 많은 利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商人이 47.6%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品質이 좋은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약 38%였고, “都賣市場이 멀고 불편해서”라는 商人이 약 10%로 나타났다.

表 6 - 8 . 米穀購入時 都賣市場 利用度別 小賣商 分布

都賣市場利用度	小賣商數	構成比(%)
전 혀 이 용 안 함	28	56
購入量의 30% 미만	5	10
30% ~ 60%	8	16
60% ~ 100%	9	18
計	50	100

表 6 - 9 . 產地直結去來를 하는 이유

應 答 區 分	小賣商數	構成比(%)
品質이 좋은 쌀을 購入하기 위해서	16	38.1
費用이 적게 들거나 購入價格이 낮으므로	20	47.6
都賣市場이 멀고 불편해서	4	9.5
其 他	2	4.8
計	42	100.0

小賣商의 1回 平均購入量別 小賣商分布를 보면 <表 6 - 10>에서와 같아 6~10 吋가 44%로 가장 많으나, 5 吋 이하가 20%를 차지하고, 21 吋 이상도 16%나 되어 小賣商에 따라 1回購入量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米穀販賣 狀況

米穀小賣商이 거래하고 있는 販賣處數는 小賣商의 規模에 따라 최하 70 個處에서 최고 1,000 個處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平均 약 190 個處로

表 6-10. 1回購入量別 小賣商 分布

1回購入量	小賣商數	構成比(%)
5 叴 이하	10	20
6 ~ 10 叴	22	44
11 ~ 20 叴	10	20
21 叴 이상	8	16
計	50	100

조사되었다. 小賣商의 販賣處數別 分布를 보면 <表 6-11>과 같이 50 ~ 100 名인 경우가 40 %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였고, 100 ~ 150 名이 26 %, 150 ~ 200 名이 20 % 그리고 200 名 이상이 14 %의 순이었다. 販賣處가 200 名 이상인 小賣商은 맨션아파트 地域內 小賣商 6 개소와 市場內에 위치한 小賣商 1 개소로서 이들의 平均 販賣處數는 무려 550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43 個 小賣商의 平均 販賣處數는 130 명 정도이다. 1回 販賣量이 8 kg 이상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米穀小賣商의 1 日 平均 販賣回數는 대체로 5 ~ 15 회이며, 8 kg 이상이면 대개 小賣商에서 배달을 해주고 있다(<表 6-12>).

表 6-11. 販賣處數別 小賣商 分布

販賣處數	小賣商數	構成比(%)
50 ~ 100 名	20	40
100 ~ 150 名	13	26
150 ~ 200 名	10	20
200 名以上	7	14
計	50	100

表 6 - 12. 小賣商의 1 日販賣回數

販賣回數	小賣商數	構成比(%)
5 回 이내	2	4
5 ~ 10 回	21	42
10 ~ 15 回	19	38
15 ~ 20 回	5	10
21 回 이상	3	6
計	50	100

3) 輸送

產地搬出商人이 消費地市場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대부분 2.5 톤 ~ 12 톤 화물트럭을 이용하나 특히 消費地 小賣商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2.5 ~ 4 톤 정도의 트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都賣市場에서 小賣商 까지의 主要 輸送手段은 소형 트럭이며 都賣市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영세한 小賣商은 자전거, 리어카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 小賣商은 都賣商에서 米穀을 購入時 輸送費를 주로 負擔하고 있으며, 대개 8kg이상 이면 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 배달해 주고 있다.

4) 代金決済方法

小賣商의 대부분은 產地直結去來時 產地荷主와의 外上去來를 터 놓고 資金事情에 따라 대개 5 ~ 10 일 정도의 外上決済를 하고 있다. 搬出商人의 입장에선 단골去來處를 확보하기 위해 小賣商人에게 여칠간의 信用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小賣商이 外上으로 販賣하는 비율은 小賣商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調查對象小賣商의 平均外上販賣比率은 약 23 %로 추정된다(<表 6 - 13>).

調查小賣商의 外上販賣時 外上決済期間別 販賣量分布를 보면 15 일 ~ 1 개월이 53 %로서 가장 많고 15 일 이내가 29 % 정도이며 1個月을 넘는

경우도 18%나 된다(表 6-14)。

表 6-13. 外上販賣量比率別 小賣商分布

外上販賣比率	小賣商數	構成比(%)
10% 이내	5	10
10 ~ 30%	32	64
30 ~ 50%	10	20
50 ~ 70%	3	6
計	50	100

表 6-14. 外上決済期間

外上期間別	外上販賣量	比率(%)
15일 이내	531	29.2
15일 ~ 1개월	952	52.6
1개월 이상	327	18.1
計	1,810	100

5) 市場情報

서울市小賣商의 市場情報入手處別 比率을 보면, 地區組合內의 이웃 小賣商이 약 50%로 제일 높으며 다음은 產地商人이 26%나 되며, 신문 및 라디오 등 매스콤으로부터 입수하는 小賣商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6-15). 小賣商은 보통 한 주일에 2회 정도 地區組合에 政府米를 신청하므로 組合員을 통해 地域內小賣商의 購入價格이나 販賣價格을 알 수 있으며, 產地商人과의 直接 電話連絡으로도 產地時勢를 알 수 있다. 都賣市場에서 市場情報를 주로 입수하는 小賣商은 불과 18%로서 都賣市場은 小賣商에 대한 직접적인 市場情報提共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6 - 15 . 小賣商의 주된 價格情報入手處

情 報 入 手 處	小賣商數	構成比(%)
產 地 市 場	3	6
產地商人과 電話로	13	26
이웃小賣商(地區組合)	25	50
都賣市場에 서	9	18
신문, 라디오 등 매스콤	-	-
計	50	100

다. 小賣商의 営業形態

1) 小賣商의 営業形態

小賣商의 営業形態를 보면 調查小賣商 중 糜穀小賣業만을 專業으로 하는 商人이 86 %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糜穀小賣業 이외의 業을 가진 小賣商은 1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糜穀小賣商의 業은 연탄, 담배, 달걀 등의 小賣業과 食品店, 精肉店, 방앗간, 不動產紹介業 등이다. 小賣商의 雇傭勞動利用狀況을 보면 調查對象小賣商의 20 % 미만이 從業員을 고용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小賣商은 家族勞動에 의존하고 있다. 從業員을 고용하고 있는 小賣商은 대부분 맨션아파트 지역이나 市場地域에 위치하고 비교적 規模가 큰 편이며, 糜穀小賣業 이외의 다른 兼業을 하고 있었다. 小賣商에서 從業員에게 支給하는 報酬는 小賣商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月 8 ~ 10 만원 정도이다.

2) 店舗의 規模 및 保有形態

小賣商의 平均店舗面積은 實面積을 기준으로 볼 때 약 4.7 평 정도로 조사되었다. 店舗規模別 小賣商分布를 보면 5坪 이하의 점포가 74 %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다(表 6 - 16)。

表 6 - 16 . 店舗規模別 小賣商數

規 模	數	構成比(%)
3 坪 이 하	9	18
4 ~ 5 坪	28	56
6 ~ 7 坪	9	18
8 ~ 9 坪	4	8
計	50	100

小賣商의 店舗保有形態를 보면 自己所有가 28 %이며, 나머지 72 %는 店舗를 貨借하고 있는 실정이다. 店舗貸借條件은 地域, 店舗의 位置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개 店舗에 딸린 방 한 칸을 포함하여 200 ~ 300 만원의 保證金에 월세 5 ~ 10 만원 정도의 貨借料負擔을 지고 있다는 것은 小賣商經營收支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小賣商마진 上승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營業用資產 및 運營資金 保有狀況

米穀小賣商은 주로 販賣時의 米穀배달을 위하여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調查商人의 약 22 %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本小賣商調查에서는 없었지만 소형자동차를 보유하고 都賣業을 겸하는 小賣商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小賣商의 약 92 %가 電話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米穀小賣業에 있어 電話가 거의 필수적인 시설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모든 小賣商은 저울, 석발기 등의 營業用設備를 갖추고 있다.

小賣商의 運營資金規模는 米穀去來量과 營業形態등에 따라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取扱物量이 많은 가을철에 運營資金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本 調查에 있어서 小賣商의 運營資金은 規模에 따라 100

만원~800 만원으로 차이가 크며, 200 만원~300 만원인 小賣商이 32% 정도로 제일 많은 分布를 보이고 있다(表 6-17)。 이러한 資金規模의 차이는 주로 取扱量과 外上販賣量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小賣商의 약 40%가 50 만원에서 200 만원까지의 私債와 마을金庫貸付金 등他人資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運營資金에 대한 他人資金依存率은 平均 10.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米穀小賣商의 他人資金依存率이 비교적 낮은 것은 이들 小賣商의 營業規模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荷主나 都賣商으로부터 米穀의 外上購入이 가능하여 運營資金의 需要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6-17. 運營資金規模別 小賣商分布狀況

運營資金規模	小賣商數	構成比(%)
100 만 원 이 하	5	10
100 ~ 200 만 원	8	16
200 ~ 300 //	16	32
300 ~ 400 //	9	18
400 ~ 500 //	6	12
500 ~ 800 //	6	12
計	50	100

4) 去來量

本調査에서 小賣商의 1日平均 販賣量은 4.6 吠로 조사되었다。1979년도 非農家 1人當 年間 쌀 消費量(129.4 kg)에 서울市 常住人口數(8,114,021人)를 곱하여 산출한 서울市 쌀 消費量에 小賣店舗數(7,875 개소)를 적용하여 계산한 서울市 小賣店舗의 1日平均取扱量은 4.6 吠로 本調査結果와 비슷하다。 그러나 小賣店舗中 農協販賣店의 1日平均販賣量은 5.5 吠로서 一般小賣商보다 약간 많으므로 農協販賣店을 제외한 一般小賣商의 1日平均販賣量은 4.4 吠로 추정된다。 따라서 本調査의 平均小賣商販賣量 4.6 吠는 서울市 一般小賣商販賣量 4.4 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本調査의 小

賣商平均販賣量 46 叱를 一般米와 政府米로 구분하여 보면 一般米 1.9 叱, 政府米 2.7 叱로서 政府米가 약 60 %이었는데, 이는 1979년도 서울市 米穀流通量 중 政府米比重 69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서울市 아파트地域(잠실과 여의도)내의 標本小賣商 6개소의 1日平均販賣量은 8.1叱(一般米 5.8 叱, 政府米 2.3 叱)로서 他地域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편이며 이들 아파트地域의 小賣商을 제외한 여타지역 小賣商의 1日平均販賣量은 4.1 叱(一般米 1.4 叱, 政府米 2.7 叱)로서 地域間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小賣商經營收支分析

月平均米穀販賣量이 130 叱(1日販賣量 4.4 叱) 정도인 中規模의 小賣商과 調查對象 50개 小賣商 가운데 販賣量順位 35위에 해당하는 月販賣量 100 叱 정도의 小規模小賣商에 대한 經營收支를 분석하였다. <表 6-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規模의 小賣商에 있어 月所得은 약 288 천원으로 추정되며, 所得에서 自己資金利息만을 제외한 純收益은 228 천원이었다. 한편 月販賣量 100 叱(政府米 70 叱, 一般米 30 叱)인 小規模小賣商의 경우 月所得은 221 천원, 純收益은 191 천원으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月所得 221 천원 이하인 小賣商이 전체 小賣商의 약 30 %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零細한 小賣商은 米穀小賣業에서 얻는 所得만으로는 生計費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므로 等級 및 價格마진 등 不正流通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小賣商經營費의 費目別構成比를 보면 店舗賃借料가 50 ~ 60 %로서 제일 크며, 輸送費 약 20 %, 租稅公課金 약 10 %의 순이다. 小賣商에 있어 輸送費의 比重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一般米의 產地直結去來時 대개 產地荷主가 小賣商까지의 輸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小賣商經營收支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小賣商의 取扱量, 吠當마진率, 諸費用 등이다. 현재 政府米의 吠當마진은 2,000 원인데 반하여 一般米의 小賣商의 吠當마진은 약 5,000 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물론 小賣商이 一般米를 취급할 시에는 석발하여 再包藏하는 등 추가적인 費用이 소요되나,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一般米의 吠當마진은 政府米에

表 6 - 18. 經營收支分析(1980년 5월)

單位 : 千원

區 分		規 模		備 考
		中	小	
月 間	政府米(吼)	90	70	
販賣量	一般米(吼)	40	30	
收 入	米 穀 收 入	380	290	정부미 2,000 원 吼當 마진 : 일반미 5,000 원
	雜 穀 收 入	30	20	
	副 產 物 收 入	5	4	가마니, P·P 袋
	計 (A)	415	314	
費 用	雇傭勞力費	-	-	
	經 輸 送 費	29	23	政府米 10kg당 40 원
	包 裝 費	3	2	
	通 信 費	4	3	
	水道光熱費	3	2	
	貸 借 料	70	50	
	負 擔 利 子	-	-	
	租 稅 公 課	13	8	所得稅 및 住民稅의 1個月分
	組 合 費	3	3	
	其 他	2	2	
	小 計(B)	127	93	
	自 己 資 金 利 子	60	30	각각 300, 150만원 월 2% 적용
	計 (C)	187	123	
損 益	所 得(A-B)	288	221	
	純 收 益(A-C)	228	191	自家勞賃評價分 未計上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一般米의 마진이 높은 것은 取扱物量이 적은데 주로 기인된다. 그러나 이 小賣商 마진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小賣商의 所得面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이 아니라 본다.

또한 本調査에서 小賣商의 약 70 %가 他人所有의 店舗를 이용하는 관계로 높은 貨借料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 小賣商의 經營費를 증대시켜 叟當마진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小賣商의 經營收支를 개선하는 동시에 叟當마진의 增加要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小賣商의 수를 줄임으로써 取扱物量을 增大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엔 小賣業에서 탈락되는 小賣商의 雇傭問題가 제기됨은 물론 小賣商과 消費者家口와의 平均距離가 멀어짐으로써 消費者的 불편도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小賣商의 規模를 크게 增大시킴으로서 小賣商마진의 壓迫要因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糜穀小賣業과 다른 商業 또는 서서비스업과의 兼業을 장려함으로써, 小賣商의 店舗와 自家勞動을 보다 効率的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小賣商의 전체所得을 보장함으로써 米穀小賣商마진을 줄이고 物量 및 等級마진등 不正流通을 最少化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本調査에 의하면 현재 糜穀小賣商에서 食品店, 연탄, 담배小賣業 등을 兼業으로 하고 있는 小賣商은 14 %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小賣商의 密細規模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小賣商의 新規許可를 既存小賣商의 分布에 따라 적절히 제한한 필요도 있으리라 본다.

4. 產地直結流通과 都賣市場經由流通의 比較分析

交通과 通信이 發達함에 따라 產地商人과 消費地小賣商과의 直去來 形態가 크게 증대한 반면, 都賣市場經由流通의 比重이 상당한 減少趨勢에 있다. 本章에서는 이 두 流通經路의 經濟性을 比較分析하고자 한다.

가. 現 況

產地直結流通이란一般米가消費地의都賣市場을 경유하지 않고產地商人으로부터消費地小賣商으로 직접 유통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물론米穀이小賣商을 경유하지 않고產地로부터消費者에게로 직접 유통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는產地直結流通에 포함되겠으나 여기에서는전자에 국한하여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產地直結流通은 米穀의 搬入主體와 引渡場所에 따라 小賣商이 產地市場에 가서 生產農家, 產地商人 및 搗精業者 등으로부터 米穀을 직접 購入·搬出하는 形태와 產地의 荷主가 직접 店舖에 인도하는 形태로 크게 구분된다.

產地直結去來形態別 比率을 보면 <表 6-19>와 같이 주로 產地荷主가 小賣商에 직접 輸送하는 형태가 약 76 %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小賣商이 주로 產地에 직접 가서 購入하는 형태는 약 13 % 정도로 나타났다.

表 6-19. 產地直結去來 形態別 小賣商分布

形態別	小賣商數	比率(%)
주로 산지시장에서 구입해 온다.	6	13.3
주로 산지하주가 가게로 실어 온 것을 구입한다.	34	75.6
산지시장에서 구입해 오는 경우와 산지하주가 실어 온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반반쯤이다.	3	6.7
計	45	100.0

* 기타에는 產地의 친척이 購入하여 보내주는 경우 등이 포함됨.

위의 產地荷主는 주로 產地搬出商人이며, 搗精業者, 未登錄商人인 경우도 있다. 이들 荷主는 한 번에 2.5~4 톤 트럭에 쌀 30~80 叻 정도를 실고 消費地의 小賣商을 巡迴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 荷主는 대부분 단골소매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電話連絡으로 小賣商이 필요로 하는 物量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米穀을 반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小賣商은 대개 약간 명의 產地荷主와 단골로 거래하면서 이들과 外上去來를 터놓고 있다. 資金能力이 비교적 큰 大規模小賣商은 產地搬出商人으로부터 米穀을 大量購入하여 인근 密細小賣商에 叮當 1,500~2,000 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大規模小賣商은 實質적으로 都賣商機能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小賣商의 米穀購入價格은 都賣市場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大規模小賣商의 都賣行爲는 都賣業許可를 받지 않고 都賣行爲를 하는 것이 되므로 許可事項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 된다.

서울市의 米穀搬入量推定 <表 6 - 3>으로부터 都賣市場經由 搬入量: 產地直結搬入量과의 對比表를 마련하였다 <表 6 - 20>. 產地直結搬入量에는 產地에서 消費者에게로 직접 搬入된 量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量은 전체 一般米流通量에 비하면 극히 적은 量으로 추산된다. 產地直結搬入量

表 6 - 20. 서울市 一般米經路別搬入量 比較

米穀年度	都賣市場經由	產地直結搬入*	單位 : 千t
			計
1975	195 (38.9)	306 (61.1)	501 (100.0)
1976	158 (36.1)	280 (63.9)	438 (100.0)
1977	194 (30.2)	449 (69.8)	643 (100.0)
1978	58 (11.7)	439 (88.3)	497 (100.0)
1979	33 (10.7)	274 (89.3)	307 (100.0)

()내는 構成比임.

* 產地直結搬入에는 產地에서 消費者에게로 搬入된 量도 포함됨.

의 比率이 최근에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79년의 경우 產地直結搬入量은 都賣市場經由搬入量의 약 8배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農協中央會의 調查結果에 의하면 서울市의 경우 一般米 總搬入量中 產地에서 小賣商으로 직접搬入되는 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말에 25% 정도에 불과했으나 1977년도에는 75%로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⁴⁾ 추정되고 있다. 本小賣商調査의 결과 역시 서울市 小賣商의 약 56%가 一般米 購入에 있어서 都賣市場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며, 總購入量의 60% 이상을 都賣市場에서 구입하는 小賣商은 불과 1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6-8). 또한 調査時點 基準 최근 2개월간에 小賣商의 一般米 購入處別 購入量 比重을 보면 都賣市場에서 구입한 비중은 24.4%에 불과하고 產地에서 직접 구입하는 비중이 7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表 6-7), 이는 1978년도 農協中央會의 調査結果와 비슷한 수준이다. 農協中央會調査에 의하면 이런 現狀은 서울市에서 뿐만 아니라 따른 大都市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產地直結流通이 증대되고 있는 主原因是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交通과 通信手段의 發達로 價格情報의 신속한 입수가 가능하게 되고 輸送時間이 단축됨에 따라 產地商人과 消費地小賣商間에 전화를 이용한 거래와 트럭에 의한 원거리 輸送도 용이하게 되었다.

둘째、都賣市場經由時 所要되는 委託手數料 등 追加流通費用을 절감함으로써 利潤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都賣市場을 경유할 경우에는 委託商手數料 500원과 都賣市場에서의 上·下車費 140원 등 추가경비가 소요되나、都賣市場을 경유하지 않고 直結去來할 경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產地直結을 選好하는 경향이 있다.

세째、1977년 7월 附加價值稅制 실시 이후 產地의 搬出商人이나 未登錄商人들이 稅源의 露出을 염려하여 都賣市場에의 出荷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바、이 역시 產地直結流通을 촉진시킨 요인의 하나로 評價되고 있다.

4) 前揭書, p. 247.

네째, 서울市內 糜穀都賣市場으로부터 遠距離에 위치한 小賣商은 產地直去來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產地直結이 都賣商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輸送費用面에서도 별로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작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都賣市場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이 위치한 地域의 小賣商은 都賣市場을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편이나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도봉구, 구로구 등 都賣市場에서 멀리 떨어진 地域의 小賣商은 都賣市場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本小賣商調查에서 米質이 좋은 京畿米를 구입하기 위하여 產地直去來를 한다는 小賣商이 약 38%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一般米價格統制를 실시한 1978년 6월 이후, 行政團束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市 糜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產地直結去來가 성행한 사례도 있다.

나. 流通經路別 流通마진 比較

小賣商에서 產地直結去來를 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바, 48% 정도의 小賣商이 구입하는 價格은 都賣市場에서와 비슷하지만, 都賣市場에서 購入時には 小賣商이 輸送費, 上車費를 부담하여야 하나 產地搬出商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경우에는 輸送費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同質米의 消費地米價는 需要供給에 의하여 一物一價의 法則이 적용될 것이므로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小賣商은 產地直結流通時 都賣市場에서 구입하는 경우보다 費用을 절약하는 만큼 超過利潤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搬出商은 小賣商으로直接 搬出(直渡)할 경우 輸送費가 약간 더 소요되기는 하지만 委託商手數料 및 都賣市場에서의 下車費 등 諸流通費用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추가의 利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產地直結에 의한 流通費用節減의 効果가 流通段階에 여하히 配分되는가

를 利川 - 서울間과 金堤 - 서울間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利川 - 서울間의 一般米(아끼바레 品種)의 總流通마진은 叱當 8,000 원으로 小賣價格에 대한 마진율은 15.4 %로 조사되었다(表 6-21). 동일 지역 간에 流通經路別 總流通마진은 차이가 없으나, 流通段階別 마진은 물론 費用과 利潤의 構成面에서도 (表 6-21)과 같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委託商을 경유하는 경우 產地의 菁集搬出段階의 마진은 2,430 원이었고, 中繼段階의 마진은 570 원, 消費地 小賣商段階의 마진은 5,000 원으로 小賣商의 마진은 總마진의 약 63 %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產地直結流通할 때 產地商人이 小賣商까지 輸送하여 판매하는 경우 菁集 ·搬出段階마진이 3,000 원으로 委託商 經由보다 570 원이 많으나 小賣商의 마진은 5,000 원으로 委託商 經由와 같은데, 이는 中繼段階의 마진 570 원이 產地商人의 마진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消費地 分散段階에 있어서 總마진은 5,000 원으로 같으나 產地直去來(搬出商搬入)의 경우 小賣商의 上車費 및 輸送費는 委託商 經由보다 300 원이 절약되어 小賣商의 利潤은 그 만큼增加하게 된다. 또한 (表 6-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小賣商이 직접 產地市場에서 米穀을 購入하여 搬入하는 경우 小賣商의 利潤은 叱當 5,300 원으로 搬出商으로부터 購入하는 경우보다 약 800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金堤 - 서울間의 一般米(밀양 15 號)流通마진율은 (表 6-22)와 같이 16 %로서 利川 - 서울間의 一般米流通마진율 15.4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流通經路에 따른 費用과 利潤의 歸屬關係는 利川 - 서울間 一般米流通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產地直結流通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生產者 및 消費者米價에 미치는效果를 動態的으로 살펴보자. 產地市場에서 처음에 소수의 搬出商이 直去來를 한다면 그 商人은 都賣市場에 반출하는 상인에 비하여 費用이 절감되는 만큼 超過利潤을 획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有利性은 그 지역의 他商人에게도 產地直結流通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生產者인 農民과 菁集搬出商人이 去來關係에 있어서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되면 上記 流通費用의 절감액은 生產者와 商人에게 平等하게 配分될 것이나 현실에 있어선 生產者인 農民

表 6-21. 利川 - 서울間 流通마진(80. 5. 28 기준)

經 路 別 內 容		委託商經由	產 地 直 結 流 通	
			搬 出 商 搬 入	小 寶 商 搬 入
農 家 販 賣 價 格		44,000 (84.6)	44,000 (84.6)	44,000 (84.6)
蒐 集 搬 出 段 階	輸 送 費	700 (1.3)	800 (1.5)	100 (0.2)
	上 車 費	100 (0.2)	100 (0.2)	-
	其 他 費 用	200 (0.4)	200 (0.4)	200 (0.4)
	利 潤	1,430 (2.8)	1,900 (3.7)	1,200 (2.3)
	小 計	2,430 (4.7)	3,000 (5.8)	1,500 (2.9)
中 繼 段 階	下 車 費	65 (0.1)	-	-
	委 託 商 手 數 料	500 (1.0)	-	-
	警 備 料	5 (0.0)	-	-
	小 計	570 (1.1)	-	-
小 寶 商 購 入 價 格		47,000 (90.4)	47,000 (90.4)	45,500 (87.5)
分 散 段 階	上 車 費	75 (0.1)	-	-
	運 送 費	225 (0.5)	-	700 (1.3)
	質 借 料	350 (0.7)	350 (0.7)	350 (0.7)
	其 他 費 用	150 (0.3)	150 (0.3)	150 (0.3)
	利 潤	4,200 (8.0)	4,500 (8.6)	5,300 (10.2)
	小 計	5,000 (9.6)	5,000 (9.6)	6,500 (12.5)
小 寶 價 格		52,000 (100.0)	52,000 (100.0)	52,000 (100.0)

()내는 構成比임.

表 6 - 22 . 金堤 - 서울間 流通마진(1980. 6. 20 기준)

		單位 : 원 / 各	
		委託商經由	產地直結流通*
農家販賣價格		42,000 (84.0)	42,000 (84.0)
蒐集搬出段階	輸送費	1,100 (2.2)	1,200 (2.4)
	上車費	100 (0.2)	100 (0.2)
	其他費用	300 (0.6)	300 (0.6)
	利潤	1,100 (2.2)	1,400 (2.8)
	小計	2,600 (5.2)	3,000 (6.0)
中繼段階	下車費	65 (0.1)	-
	委託商手數料	500 (1.0)	-
	營備料	5 (0.0)	-
	小計	570 (1.1)	-
小賣商購入價格		45,170 (90.3)	45,000 (90.0)
分散段階	上車費	75 (0.1)	-
	輸送費	225 (0.5)	-
	質借料	350 (0.7)	350 (0.7)
	其他費用	150 (0.3)	150 (0.3)
	利潤	4,030 (8.1)	4,500 (9.0)
	小計	4,830 (9.7)	5,000 (10.0)
小賣價格		50,000 (100.0)	50,000 (100.0)

() 内는 構成比임.

* 搬出商이 搬入하는 경우임.

의 대부분은 零細小農인 관계로 일반적으로 商人에 비하여 去來關係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費用節減效果는 거의 蒐集搬出商人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產地直結流通에 의한 費用節減效果가 農家受取價格의 上昇에 기여하려면 農協이나 기타 生產者組織에 의한 共同出荷를 강화함으로써 商人과 대등한 競爭關係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小賣商과 消費者의 관계에 있어서도 小賣商은 許可制 등으로 商人間에 부분적이나마 寡占的 競爭關係에 있으므로, 需要面에서 完全競爭關係에 있는 消費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消費者는 米穀의 等級化, 標準化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價格이나 品質에 대한 情報가 부족하여 小賣商과의 米穀去來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產地直結流通을 함으로써 費用을 節減한 小賣商은 인근 小賣商과의 價格競爭을 위해 즉시 小賣價格을 인하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市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產地(주로 京畿道, 忠清道 地方)의 米穀은 주로 直去來가 되고 있지만 遠距離에 있는 地域(예컨대 湖南地方)에선 대부분 都賣市場을 경유하여流通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市의 경우 產地直結流通量만으로는 需要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小賣米價는 都賣市場을 거쳐서流通되는 米穀의 販賣價格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產地直結流通時에 超過利潤을 얻게 되리라 본다.

따라서 產地直結流通이 증대됨에 따라 流通費用이 절감되고 있으나 그 節減效果가 生產者나 消費者에게 별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中間商人의 利潤增大로 귀결되고 있다.

다. 結 語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市 米穀流通에 있어서 최근에 政府米比重이 크게 증가되고 交通과 通信의 발달로 產地直結去來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都賣市場經由의 米穀流通量이 크게 줄어드는 趨勢에 있다.

產地直結去來는 流通段階를 단축시킴으로써 都賣市場經由에 비하여 流通費用이 절감되나, 이 費用節減의 効果가 商人的 利潤을 증대시킬 뿐 生產者와 消費者價格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원인은 生產者와 消費者가 去來關係에 있어서 상인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產地直結에 의한 費用節減效果가 모든 流通主體(生產者, 消費者, 商人)에게 均等하게 配分되려면 農協共販事業이나 生產者 또는 消費者組合 등을 통하여 產地와 消費地의 市場構造를 보다 競爭的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產地直結去來의 경우에는 產地搬出商人 혹은 未登錄蒐集搬出商들이 稅源露出을 꾀함으로써 稅金을 포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否定의 側面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米穀의 產地直結을 억제하고 都賣市場經由의 米穀流通을 촉진하기 위한 制度의 借置를 취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產地直結去來가 증대하게 된 근본적인 背景이 流通下部構造의 發達에 힘입어 流通費用을 줄여 利潤을 增大시키려는 商人的 基本의 慾求인 關係로 이를 制限하는 데는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產地直結去來時 특히 都賣市場에서 遠距離에 있는 小賣商, 예를 들면 은평子地域의 小賣商은 인근 產地에서 米穀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서초동 都賣市場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費用이 적게 들어 產地直結을 선호할 것이며 이 地域의 米穀을 서초동 都賣市場을 경유하여 서울市內에 流通시키는 것은 輸送費의 增大를 초래할 것이므로, 資源의 이용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搬出商 혹은 未登錄蒐集搬出商들이 稅源을 감추기 위해 產地直結去來를 하는 경우에 對處하여 합리적인 課稅方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市의 서초동 糜穀都賣市場은 取扱物量이 극히 적어서, 都賣市場의 機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결과 서울市 一般米價를 대표하는 價格마저 형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초동 都賣市場은 等級化나 標準化가 확립되지 않은 채 競賣制度가 실시되지 못하고個別委託商(또는 都賣商)이 米穀의 入荷量과 需要量 그리고 產地와 消費地의 時勢를 고려하여 販賣價格을 결정하는 去來方法을 취하고 있다. 따

라서 一般米去來의 기준이 될 수 있는 都賣市場의 공정한 價格形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都賣市場의 育成은 물론 等級化와 標準化를 바탕으로 한, 다수의 供給者와 需要者가 競爭的으로 價格決定에 參與하는 근대적인 公賣制度의 실시가 요청된다 하겠다.

서울市의 경우 현재와 같이 政府米放出量이 서울시全体 米穀流通量의 약 70 %를 점하고, 一般米流通量中 產地直結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與件下에서는 都賣市場이 정상적인 機能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여 米穀의 產地直結을 억제하고 都賣市場을 경유하여 米穀이流通되도록 制度的措置를 취하는 데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都賣市場의 育成은 政府放出量이 米穀流通量에 점하는 比率 여하에 따라서 크게 左右되리라 본다. 물론 米穀流通을 商人組織에 크게 의존할 경우에는 商人的 價格操作의 가능성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 兩者를 어느 수준에서 여하히 조화시킬 것인가는 주요한 研究課題라 하겠다.

米穀都賣市場의 育成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類似都賣市場組織을 개편하여 法定都賣市場으로 制度化함으로써 公正去來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都賣市場의 施設擴充과 적절한 立地選定이 필요하며 都賣市場의 米穀搬入을 저해하는 주요인의 하나인 附加價值稅制를 비롯한 現行稅制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요청된다.⁵⁾ 특히 都賣市場에서 米穀을 구입하는 小賣商은 地域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分配費用(distribution cost)을 고려하여 都賣市場의 數, 위치, 규모 등을 적절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本調査에 의하면 서울市 小賣商이 米穀購入時 都賣市場을 이용하지 않고 產地直結去來를 하게 되는 주요한 理由로서 都賣市場에서 구입할 경우엔 輸送費用이 많이 들거나 都賣市場까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57 %에 달하

5) 金正璣, “農產物流通關聯稅法과 流通助成機能”, 農經研「農村經濟」 1980. 9. 參照.

고 있다(表 6 - 9). 또한 都賣市場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米穀의 等級化, 標準化가先行되어야 하며 市場情報機能을 강화할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第 7 章

流通段階別 等級, 規格 及 包裝利用狀況

1. 等 級

一般米를 販賣할 때 等級區分 여부에 관한 產地農家 調查結果에 의하면 調查農家 중 약 58 %는 等級을 2 ~ 3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等級區分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農家도 약 42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地域別로 보면 특히 金堤 지역의 農家の 경우는 약 90 %가 等級區分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7-1)。

表 7-1. 米穀(一般米)販賣時 等級區分 與否

	한 다	하지 않는다	計
利 川	22 (64.7)	12 (35.3)	34 (100.0)
金 堤	2 (10.5)	17 (89.5)	19 (100.0)
論 山	27 (77.1)	8 (22.9)	35 (100.0)
平 均	51 (58.0)	37 (42.0)	88 (100.0)

() 内는 構成比。

等級區分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이유는 「農民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米穀 중에서 가장 上品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販賣하기 때문에 等級區分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약 92 %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의

이유로서는 「商人이 결정하기 때문」이 약 8%이었다(表 7-2)。

表 7-2. 一般米販賣時 等級區分을 하지 않는 이유

單位 ; 人

	모두 上品이므로	商人이 결정하므로	計
利 川	12 (100.0)	-	12 (100.0)
金 堤	15 (88.2)	2 (11.8)	17 (100.0)
論 山	7 (87.5)	1 (12.5)	8 (100.0)
計	34 (91.9)	3 (8.1)	37 (100.0)

() 内는 構成比。

等級區分을 하여 판매할 경우 等級區分 基準을 보면 品種別로 쇄미, 색깔, 烘精經過日數 등을 기준으로 하여 2 ~ 3 等級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等級區分 기준이 標準化되어 있거나 어떤 統一된 規定이 없기 때문에 地域別로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中間段階의 商人們이 임의로 等級區分을 하기 때문에 等級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서울의 類似都賣市場에서는 대개 特·上·中·下 등 4 등급으로 구분되어 價格決定이 되고 있으나, 等級化 자체가 個別商人의 경영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產地와 마찬가지이다. 小賣段階에서도 等級區分을 하고 있지만, 각 小賣商에서 취급하고 있는 米穀의 等級은 극히 단순한 편이다. 즉 대체로 고객의 生活水準, 嗜好 등에 맞추어 價格과 米質이 적절한 한 두 가지 等級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表 7-3. 小賣商에서 취급하고 있는 米穀等級

等 級	小賣商 數	構 成 比 (%)
한 가지 等級만 取扱	22	44
두 가지 等級 取扱	19	38
세 가지 "	8	16
네 가지 "	1	2
계	50	100

특히 서울시 消費者들의 경우 京畿米에 대한 選好度가 상당히 높은 반면 產地別 米質識別能力은 부족하므로 小賣商이 米穀의 產地를 속임으로써 等級마진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包裝 및 規格

가. 包裝資材 利用實態

農家에서의 米穀 包裝資材 利用實態를 보면 粗穀을 저장할 때에는 가마니 包裝이 66.4 %, p·p 袋가 23.9 %로서 가마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精穀 貯藏時에는 가마니가 38.1 %, p·p 袋 51.3 %로 p·p 袋의 利用率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精穀을 판매할 경우엔 가마니가 23.7 %, p·p 袋가 76.3 %로서 p·p 袋가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 小賣商의 在庫米穀 包裝材料別 利用實態를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p·p 袋가 75 % 정도이며, 가마니는 25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農家 精穀販賣時의 比率과 비슷한 결과이다.

表 7-4. 農家の 貯藏 및 販賣時 包裝資材 利用實態

地域 區分	資材	가마니	마대	p·p 袋	노지	기타	計
利川	粗穀貯藏時(A)	45.0	2.5	42.5	7.5	2.5	100.0
	精穀貯藏時(B)	17.5	7.5	57.5	17.5	-	100.0
	精穀販賣時(C)	7.4	-	92.6	-	-	100.0
金堤	A	60.6	3.0	21.2	12.1	3.0	100.0
	B	30.3	-	66.7	-	3.0	100.0
	C	33.7	-	66.3	-	-	100.0
論山	A	92.5	-	7.5	-	-	100.0
	B	65.0	2.5	32.5	-	-	100.0
	C	34.8	-	65.2	-	-	100.0
平均	A	66.4	1.8	23.9	6.2	1.8	100.0
	B	38.1	3.5	51.3	6.2	0.9	100.0
	C	23.7	-	76.3	-	-	100.0

p·p 袋는 가마니보다 100 원 정도 값이 살 뿐만 아니라 가볍고 깨끗하며 다루기 편리하고 包裝 무게가 일정하여 實重量에 차이가 적으며 減耗量도 적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長期保管할 경우에는 貯藏性이 가마니보다 못하다는 결점이 있다. 精穀販賣時에 長期間 保管의 필요성이 적으로 p·p 袋의 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 去來規格

產地調查에 의하면 利川, 金堤, 論山地域에선 一般米는 전부 實重量 80 kg의 包裝規格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消費地市場에서도 80 kg 단위로 포장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울都賣市場 商人們에 의하면 아직도 극히 일부 지역의 米穀은 85 kg, 87 kg, 90 kg 등의 규격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一般米 包裝規格에 대한 小賣商들의 의견은 50 kg, 60 kg 등으로 小包裝化할 경우엔 오히려 번거로울 뿐이며 현행대로 80 kg 단위가 좋다는 것이 지배적인데, 이것은 이들의 오랜 去來慣習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一般米는 小賣商에서 解包한 후 石拔하여 消費者的購入量에 따라 再包裝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小賣段階에서 商人們에 의한 物量마진 또는 等級(品質)마진이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一般米도 產地精工場에서 포장할 때부터 等級區分과 동시에 去來規格도 消費者的選好度에 따라 20 kg, 40 kg, 60 kg, 80 kg 등으로 구분 포장하여, 產地에서 消費地까지 유통되게 함으로써 中間段階에서의 상인에 의한 物量 및 等級마진을 最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都賣市場에선 米穀이 대체로 4等級 혹은 3等級으로 等級化되어 去來되고 있으나, 產地直結流通時에 等級區分에 관한 認識이 그 만큼 명백하지 못하다. 調查結果에 의하면 產地直結購入時에 (產地搬出商人이 搬入해 온 경우) 等級區分을 안한다고 대답한 小賣商이 49 %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항상 제일 좋은 쌀(特米)만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구입한 쌀 중 한 두가마 정도 質이 조금 떨어지는 쌀이 있어도 價格에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어느 商人이나 米質, 品種, 產地 등에 따른 價格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產地直結流通時엔 대체로 特定產地의 米穀만 취급하게 되고, 多樣한 米質의 米穀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等級區分이나 等級에 따른 價格差別이 상당히 主觀的일 가능성이 많으며 都賣市場에서의 等級區分도 個別商人의 經驗, 知識에 의존할 뿐 합리적인 等級化가 制度化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慎意的인 等級化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第 8 章

政府米流通實態 및 問題點

1. 政府米 流通組織

糧穀管理法(1950년)이 제정된 이래 정부는 生產農家の所得을 보호하고 消費地市場의 米價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收買·放出制度를 運營하였다. 즉 매년 生產農家로부터 一定量의 米穀을 收買하여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消費地市場에放出하고 있다.

정부가 米穀을 확보하는 방법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買上하는 一般買入, 糧肥交換, 農地稅收納, 交換穀 및 貸與穀回收등으로 되어 있으며, 1979년도 정부에서 확보한 物量 중 一般買上이 88.9%, 農地稅收納이 6.8%, 還收穀이 4.3%의 순이었다.

政府의 米穀收買業務體系를 보면 農水產部 食糧局이 統括, 指示, 監督하여 檢查는 農檢에서, 收買代金의 支払과 決済는 農協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收買한 米穀은 政府保有倉庫나 정부가 지정한 民間倉庫에 入庫시켜 두었다가 農水產部의 指示에 의해 官需用은 이를 직접 所要로 하는 政府各部處에 직접판매되며, 需給調節用 米穀은 需給圓滑화와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消費地市場에放出되고 있다.

米穀의 放出은 農水產部 食糧局의 統括指示下에 各市 糧政課에서 수립한 放出計劃에 따라 農協共販場에서 地區組合을 통해 小賣商과 農協糧穀直賣場에 物量을 할당하고, 小賣商에게는 地區組合長이, 糧穀直賣場에게

는 共販場에서 割當量을 직접 輸送하게 된다. 즉 政府米放出은 農協共販場 → 地區組合長 → 小賣商의 商人經路와 農協共販場 → 販賣店의 農協經路로 대별된다.

2. 쌀收買 및 放出動向

政府의 쌀收買量推移를 보면 1965년의 2,097 천石에서 1977년에는 9,742 천石으로 약 4.6배나 증가하였고, 그 후에는 약간減少趨勢에 있다. 米穀生產量에 대한 收買量比率은 1965년에는 불과 8.6%이었으나, 新品種의 개발 보급과 高米價政策에 힘입어 획기적인 米穀增產이 이룩됨에 따라, 收買量도 급격히 증가되어 1979년에는 약 23.4%로 증가되었다. 최근(1977~79)의 쌀收買量은 약 900만石 수준인데, 이는 쌀生產量의 약 23%, 商品化率의 약 41~49%나 되는 수준이다. 한편 政府米放出量은 1967년 이전만 하더라도 2,000 천石 수준을 上廻하지 못하였으나, 1971년에는 무려 8,197 천石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71년 1 쌀放出量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同年에 획일적인 年中平準化價格政策에 의하여 米價를 低水準에 유지시킨 결과 쌀消費量이 급격히 증가하여 外米를 약 100만石이나 導入한데 주로 기인된다. 그러나 1972년 이후 1977년까지는 3,800~6,700 천石으로 1971년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1978년에는 8,215 천石, 1979년에는 11,686 천石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1975~1977년간에 放出量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유지된 것은 米穀의 획기적인增產으로 1975年부터 米穀이 自給됨에 따라 米價가 크게 안정된 데 기인한다.

한편, 非農家消費量 중 米穀放出量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年度間에 기복은 있으나 1965년에 5.8%에 불과하던 것이 1979년에는 무려 49.0%로 증가하였다.

최근(1977~79년)의 米穀收買量은 쌀生產量의 약 23%, 商品化率의 41~49%를 차지하였으며 放出量은 非農家消費量의 21~49%를 점함으로써 政府가 米穀流通에 중추적인役割을 하고 있다.

表 8 - 1. 年度別 穀 收買量と放出量推移

単位：千石

年 度	生産量 (A)	收買量 (B)	B/A (%)	非農家消費量 (C) *	放 出 量 (D)	D/C (%)
1960	21,157	978	4.6	-	525	-
1961	24,046	2,146	8.9	-	136	-
1962	20,937	1,932	9.2	-	652	-
1963	26,098	1,554	6.0	8,319	1,829	22.0
1964	27,462	1,664	6.1	10,053	517	5.1
1965	24,313	2,097	8.6	11,271	652	5.8
1966	27,217	2,439	9.0	12,352	1,509	12.2
1967	25,022	1,940	7.8	14,021	1,977	14.1
1968	22,190	919	4.1	15,216	3,067	20.2
1969	28,406	2,221	7.8	15,291	4,731	30.9
1970	27,356	2,436	8.9	18,148	5,199	28.6
1971	27,761	3,418	12.3	18,619	8,197	44.0
1972	27,481	3,520	12.8	18,408	4,090	22.2
1973	29,248	3,331	11.4	17,602	4,211	23.9
1974	30,867	5,105	16.5	19,155	6,747	35.2
1975	32,424	5,483	16.9	18,262	3,838	21.0
1976	36,215	7,245	20.0	18,421	5,890	32.0
1977	41,706	9,742	23.4	20,260	4,210	20.8
1978	40,258	9,413	23.4	22,726	8,215	36.1
1979	38,645	9,032	23.4	23,859	11,686	49.0

* 非農家人口 × 非農家 1 人當年間米穀消費量。

資料；農水産部 食糧局。

表 8 - 2 . 年度別 倉收買・放出量 및 一般米價格振幅

米穀 年度	商品化 量 (A)	收買量 (B)	B/A (%)	非農家 消費量 (C)	放出量 (D)	D/C (%)	單位 : 千石, %		
							倉都賣價 格振幅 (%)	最低 月	最高 月
1960	-	978	-	-	525	-	53.7	12	8
1961	-	2,146	-	-	136	-	35.5	11	5
1962	-	1,932	-	-	652	-	28.3	1	9
1963	-	1,554	-	8,319	1,829	22.0	60.1	11	7
1964	-	1,664	-	10,053	517	5.1	48.4	12	5
1965	-	2,097	-	11,271	652	5.8	19.9	11	9
1966	13,864	2,439	17.6	12,352	1,509	12.2	30.8	12	9
1967	12,674	1,940	15.3	14,021	1,977	14.1	23.9	12	7
1968	10,156	919	9.0	15,216	3,067	20.2	23.1	12	10
1969	13,822	2,221	16.1	15,291	4,731	30.9	10.3	12	6
1970	12,198	2,436	20.0	18,148	5,199	28.6	6.8	11	5
1971	12,781	3,418	26.7	18,619	8,197	44.0	17.8	11	10
1972	12,745	3,520	27.6	18,408	4,090	22.2	22.1	11	3
1973	13,221	3,331	25.2	17,602	4,211	23.9	2.4	1	5
1974	14,862	5,105	34.3	19,155	6,747	35.2	21.4	11	10
1975	15,612	5,483	35.1	18,262	3,838	21.0	30.1	11	10
1976	17,438	7,245	41.5	18,421	5,890	32.0	7.7	12	10
1977	20,081	9,742	48.5	20,260	4,210	20.8	13.3	1	8
2)	22,506	9,413	41.8	22,726	8,215	36.1	17.7	12	10
2)	21,889	9,032	41.3	23,859	11,686	49.0	30.4	11	10

1) (最高價格 - 最低價格) / 平均價格

2) 農經研 推定。

資料：韓國銀行，「統計月報」。

農水產部 食糧局。

年度別 價格振幅을 보면 〈表 8-2〉와 같이 1960～64년에는 平均 45.2% 나 되었으나, 政府의 米穀操作量이 증대함에 따라 1970년대에는 크게 완화되었으며, 특히 1976년 이후에는 1979년을 제외하고는 20% 이하로 현저히 저하되었다. 1979년에 一般米 價格振幅이 30.4%로서 최근에 유례없이 높게 나타난 것은 魯豐 畏害 등으로 生產量이減少된데다 放出價格의 低水準 등으로 穀消費量이 급증하였고, 總米穀生產量 중 一般米의 比重이 최근에 급격히 低下된 데 크게 기인된다.

3. 쌀收買 및 放出價格動向

1950년대의 米價政策은 消費者家計保護와 低勞賃水準의 유지에 중점을 둔 低米價施策이었으며, 1960년까지만 하여도 政府收買價格은 平均生産費에도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이 결과 食糧不足이 만성화되고, 都農間의所得隔差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0년 후반부터 소위 高米價施策으로 전환하였다.

米穀의 政府收買價格 动向을 보면 1966～68米穀年度間의 前年對比 收買價格引上率은 10% 미만이었으나, 1969년에는 17%, 1971년에는 35.9%, 1975년에는 38.5%의 높은 引上率을 나타내었다. 1969～75년간의 年平均 收買價格 引上率은 23.9%에 달하였다. 이 기간중에 收買價格 引上率은 일반적으로 農家購入價格指數 上昇率을 웃돌아 實質收買價格은 增加趨勢에 있었으나, 1976년 이후에는 收買價格引上率이 둔화되었고, 農業資材價格(農家購入價格指數) 引上率에 미달한 결과 實質收買價格은 下落趨勢에 있다(表 8-4).

한편 政府米의 放出價格 动向을 보면 1971米穀年度 이후에는 放出價格이 收買價格을 下迴하였는데, 이는 消費者米價를 낮게 책정한데 기인한다. 1975～80米穀年度 사이의 收買價格에 대한 放出價格의 比率은 83～88%이었다. 1980米穀年度의 收買價格과 操作費를 합한 吠當 販賣原價는 43,960 원인데 반하여, 放出價格은 32,000 원으로 吠當 赤字는 11,960 원에 달하였다.

表 8-3. 米穀의 收買 및 放出價格推移

單位 : 원 / 吨

米穀 年度	收 買 價 格		放 出 價 格		B/A (%)
	價 格 (A)	上昇率	價 格 (B)	上昇率	
1965	2,967	11.7	3,420	-	115.3
1966	3,150	6.2	3,350	△2.1	106.4
1967	3,306	5.0	3,700	10.5	111.9
1968	3,590	8.6	4,050	9.5	112.8
1969	4,200	17.0	5,000	23.5	119.1
1970	5,150	22.6	5,400	8.0	104.9
1971	7,000	35.9	6,500	20.4	92.9
1972	8,750	25.0	9,500	46.2	108.6
1973	9,888	13.0	9,500	-	96.1
1974	11,377	15.1	11,264	18.6	99.0
1975	15,760	38.5	13,000	15.4	82.5
1976	19,500	23.7	16,730	28.7	85.8
1977	23,200	19.0	19,500	16.6	84.1
1978	26,000 ¹⁾	12.1	22,420	15.0	86.2
1979	30,000	15.4	26,500	18.2	88.3
1980	36,600 ¹⁾	22.0	32,000 ²⁾	20.8	87.4

1) 加算金을 제외한 金額임.

2) 上品價格임.

表 8 - 4 . 年度別 畜 實質收買 및 放出價格推移

單位 : 원 / 허

米穀 年度	收 買 價 格			放 出 價 格		
	名 目	實 質 ¹⁾	指 數	名 目	實 質 ²⁾	指 數
1967	3,306	11,765	604	3,700	12,052	74.0
1968	3,590	11,848	608	4,050	11,947	73.3
1969	4,200	12,389	636	5,000	13,298	81.6
1970	5,150	13,273	681	5,400	12,766	78.4
1971	7,000	15,873	815	6,500	13,238	81.3
1972	8,750	17,570	902	9,500	17,056	104.7
1973	9,888	17,532	900	9,500	15,273	93.8
1974	11,377	18,469	948	11,264	17,545	107.7
1975	15,760	19,481	1000	13,000	16,291	100.0
1976	19,500	19,500	1001	16,730	16,730	102.7
1977	23,200	18,575	953	19,500	16,912	103.8
1978	26,000	17,784	913	22,420	17,654	108.4
1979	30,000	15,781	810	26,500	18,238	112.0
1980	36,600	16,929	869	32,000	18,615	114.3

1) 名目收買價是 農家購入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2) 名目放出價是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최근에 二重價格制에 의한 糜特赤字가 累積되고 있으며, 이 赤字를 韓銀借入으로 補填하는 관계로 通貨增發에 의한 인플레 要因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表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 말 현재 糜特赤字의 累積額은 7,302 억원에 달하여, 이 중 쌀의 二重價格制에 의한 赤字가 4,184 億원으로 總累積赤字의 약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보리에서 발생한 赤字가 1,947 억원, 小賣粉價格安定을 위한 補助金이 1,280 억 원의 순이었다.

최근에 政府의 米穀操作費이 급증함에 따라 <表 8-5>와 같이 쌀에서 발생한 糜特赤字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즉, 總糜特赤字 중 쌀의 비중은 1978년에 96.8%, 1979년에는 88.7%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 쌀에서 발생한 収當 糜特赤字의 내용을 살펴보면 <表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價格差 즉 放出價格이 收買價格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약 40%, 나머지 약 60%는 操作費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政府에서 放出價格을 收買價格水準으로 인상하고 操作費만을 부담하였다면 1979, 1980米穀年度에 발생한 쌀의 糜特赤字를 약 40%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 된다.

表 8-5. 年度別 穀種別 糜特赤字內訛

單位 : 億원

年 度	쌀	보 리	其 雜 他 穀	小 麥 粉 價 格 補 助	計
1970	+ 4	28	4	-	28
1971	+ 51	45	6	-	0
1972	+ 49	61	4	6	22
1973	+ 9	88	10	165	254
1974	327	356	19	548	1,250
1975	163	220	7	546	936
1976	197	286	5	15	503
1977	219	433	+ 21	-	631
1978	1,540	145	+ 94	-	1,591
1979	1,851	285	+ 49	-	2,087
累 計	4,184	1,947	+ 109	1,280	7,302

資料 : 農水產部 食糧局.

表 8 - 6 . 年度別 種別當 種特赤字 内訳

単位 : 원 / 叱

米穀 年度	販賣原價			放出 價格(B)	當缺損(B-A)		
	收買價格	操作費	計(A)		計	價格差	操作費
1970	5,150	578	5,728	5,400	△328	250	△578
1971	7,000	664	7,664	6,500	△1,164 (100.0)	△500 (43.0)	△664 (57.0)
1972	8,750	738	9,488	9,500	12	750	△738
1973	9,888	792	10,680	9,500	△1,180 (100.0)	△388 (32.9)	△792 (67.1)
1974	11,377	915	12,292	11,264	△1,028 (100.0)	△113 (11.0)	△915 (89.0)
1975	15,760	1,488	17,248	13,000	△4,248 (100.0)	△2,760 (58.0)	△1,488 (35.0)
1976	19,500	1,996	21,496	16,730	△4,766 (100.0)	△2,770 (58.1)	△1,966 (41.9)
1977	23,200	2,424	25,624	19,500	△6,124 (100.0)	△3,700 (60.4)	△2,424 (39.6)
1978	26,260 ¹⁾	3,372	29,632	22,420	△7,212 (100.0)	△3,840 (53.2)	△3,372 (46.8)
1979	30,000	5,088	35,088	26,500	△8,588 (100.0)	△3,500 (40.8)	△5,088 (59.2)
1980	36,834 ¹⁾	7,126	43,960	32,000 ²⁾	△11,960 (100.0)	△4,834 (40.4)	△7,126 (59.6)

() 内는 構成比임.

1) 加算金을 包含한 金額임.

2) 上品價格임.

政府米放出價格은 市中米價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表 8-7>. 1979년의 경우 政府米放出價格은 叱當 26,500 원인데, 이는 政府米와 品質面에서 비슷한 密陽 23號의 市場米價 31,406 원보다 약 4,906원이나 낮으며, 在來米보다는 무려 8,759 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同質의 種價格이 米穀流通經路 즉 政府米流通과 自由市場流通經路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어 政府米가 流通過程에서 一般米로 偽裝販賣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당량의 米質이 좋은 政府米가 一般米로 偽裝販賣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低米價施策은 消費者保護하기 보다는 中間商人의 不當利得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政府米放出價格을 낮은 수준에 유지시킨 결과, 최근에 政府米放出需要가 급증하게 되었고,

表 8-7. 粳放出價格과 市中米價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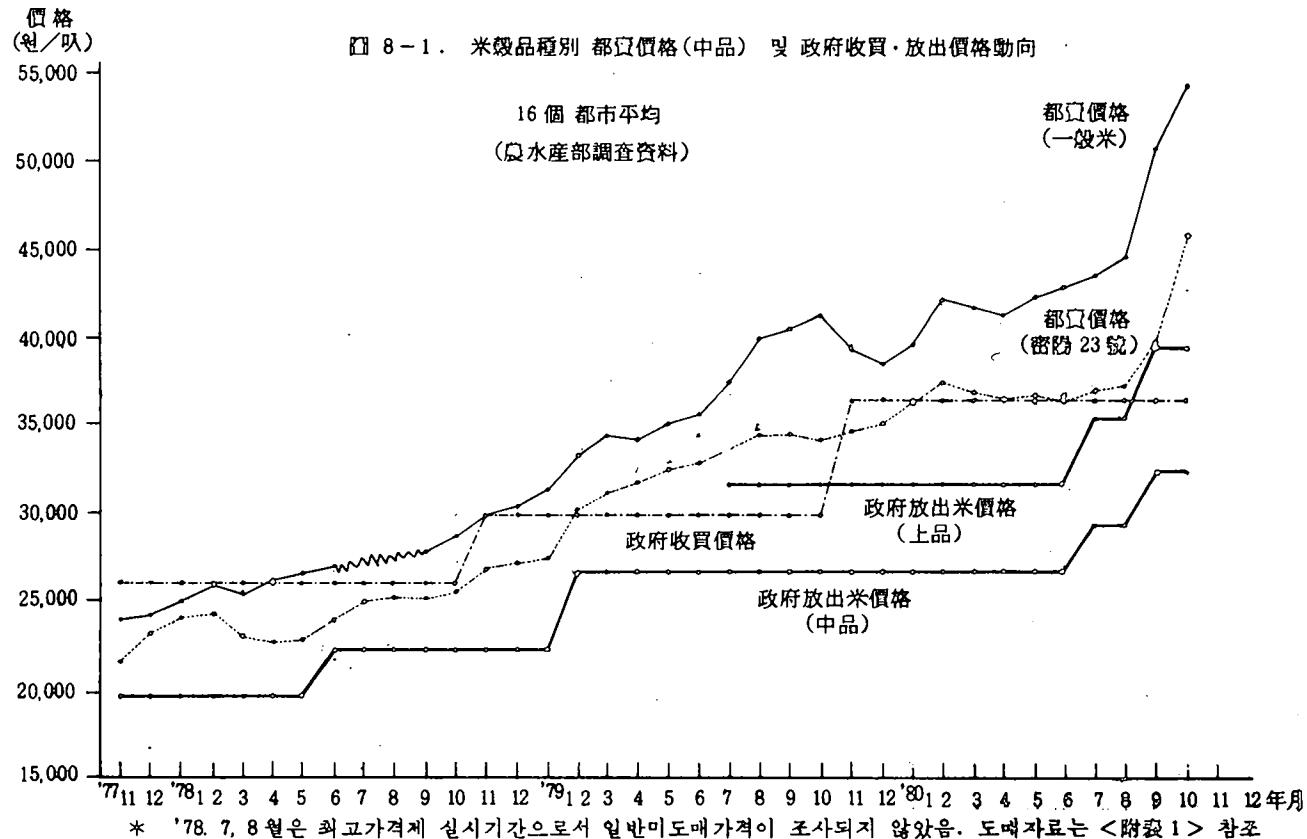
單位 : 원／斗

米穀年度	쌀放出價格 (A)	市中都賣價格		B - A	C - A
		密陽 23(B)	一般米 (C)		
1978	22,420	23,910	26,032	1,490	3,612
1979	26,500	31,406	35,259	4,906	8,759
1980	32,000	37,463	43,551	5,463	11,551

이에 따라 代替穀인 보리 쌀의 需要가 격감되어 主穀需給의 不均衡을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에 쌀은 부족되어 막대한 양의 外米를 도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때 보리 쌀 在庫가 누적되어 문제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放出價格의 低水準은 糧特赤字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1979년도에 放出價格은 同質米의 市場價格보다 叟當 年平均 4,906 원이 낮았으므로, 만약에 放出價格을 市場價格에 접근시켰다면 叟當 약 4,900 원의 赤字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叟當 差額을 1979년도 放出量 11,686 천石에 곱하면 쌀의 總糧特赤字減少額은 무려 1,030 억원이나 되며, 이는 1979년에 쌀에서 발생한 糧特赤字(1,851 억원)의 약 56 %에 해당된다.

한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貯藏費用과 利子負擔등으로 流通費用이 증대되므로 米價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放出價格이 <圖 8-1>과 같이 年中 고정되어 있는 여건 아래서 農民이나 商人們은 米穀을 저장하려는 誘因이 없는 관계로 收穫期에 集中出荷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收穫期에 米穀의 洪水出荷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季節價格振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政府米放出價格의 低水準維持는 政府米의 不正流通, 쌀消費偏重으로 인한 主穀消費의 不均衡, 쌀導入의 增大 그리고 糧特赤字 增大 등의 주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政府米放出價格은 市中米價의 變動에 따라 連動시킴으로서 市中米價에 접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放出米價의 上昇은 家計費負擔을 증가시킬 것이나,所得水準의 향상에 따라 家計費 중 米



穀支出이 점하는 비중이 1965년 28.4 %에서 1979년에는 11.9 %로 현저히 감소한 관계로 적절한 米價上昇은 家計費에 별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1979년도 月所得이 10만원 미만의 低所得層은 米穀이 家計費에 점하는 비중이 약 18 %로서 아직도 비교적 크므로 低所得層의 家計保護를 위해서는 代替穀인 混合穀의 放出價格은 低水準에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代替穀의 價格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는 한 貨金上昇을 통한 인플레 効果도 별로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全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획일적인 低放出米價施策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므로, 放出價格을 현실화하고 대신 代替穀을 低水準에 유지함으로써 低所得層을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選擇的인 保護施策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政府米流通과 관련된 문제점은 政府米의 不正流通과 糜特赤字의 累積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政府米의 不正流通의 주원인은 政府米放出價格이 市中價格보다 너무 낮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放出價格을 市價에 적절히 접근시킨다면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糜特赤字 역시 價格差 즉, 放出價格이 收買價格보다 低廉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1978년과 1979년의 경우 쌀 糜特赤字 중 價格差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약 40 %나 된다.

糧特赤字 중 價格差에서 발생한 赤字는 生產者와 消費者를 同時に 보호하기 위하여 生產者로부터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消費者에게는 收買價格보다도 낮은 價格으로放出한 결과 발생한 赤字이므로, 生產者와 消費者の 厚生을 위한 社會的 費用으로 볼 수 있다. 이 糜特赤字의 얼마가 生產者保護 또는 消費者保護로 使用되었는가를 區分하기는 어려우나, 최근(1976년 이후)에 收買價格 引上率이 인플레율에 미달하여 實質收買價格이 下落趨勢에 있으며, 政府米의 放出價格이 市價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다량의 政府米가 一般米로 둔갑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최근의 糜特赤字는 消費者保護에 크게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價格差에 의한 糜特赤字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厚生에 관련되는 所得分配上의 문제이므로, 政府米流通의 効率性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리라 본다. 따라서 政府米流通의 効率性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政府米管理上의 操作

費의 内訳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1979년도 副產物收入을 포함한 叱當 操作費는 7,126 원이었고, 副產物收入을 제외한 叱當 操作費 중 加工費이 23.4%, 收率減이 21.7%, 輸送費가 18.6%, 借入金利가 10.5%, 保管料가 11.0%, 包裝材料費가 9.0%, 管理費가 4.2% 그리고 減耗가 1.6%의 순이었다(表 8-8). 1979년도 政府米管理에 있어서 叱當 加工費은 1,849 원으로 農家販賣價格에 貨搗精率 4.5%를 곱한 民間部門의 貨搗精料와 비슷한 수준이다. 收率減이 操作費의 약 22%나 차지하는데, 이는 政府米의 基本收率과 實際收率間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會計上 赤字이다. 만약에 基準收率과 實際收率이 일치하였다면 이 費目은 零이 된다. 借入金制가 叱當 825 원으로 操作費의 10.5%를 점하는데, 이는 糜特赤字를 韓銀에서 차입한 결과 발생한 것이며, 만약에 糜特赤字를 一般會計에서 補填하였다면 이러한 費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輸送費가 叱當 1,465 원으로 操作費의 약 19%를 차지하는데, 이 費用은 農家에서 米穀을 收買하여 지역간의 物量操作을 통하여 最終消費者에게 流通될 때 까지의 輸送費이므로, 民間部門과 직접 비교가 어려운 항목이며, 政府糧穀管理의 効率性提高로 이 費用은 감소시킬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費用을 제외한 나머지 叱當 쌀操作費는 주로 政府米의 保管過程에서 발생한 것으로, 保管料 870 원, 包裝材料費 708 원, 管理費 328 원, 減耗 130 원 도합 2,036 원인데 이는 收買價格의 불과 6.8%밖에 되지 않는다. 이 政府米의 保管費用 2,036 원은 1979米穀年度 一般米의 年平均價格이 收穫期價格보다 叱當 4,198 원(15.4%)이나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상 政府米의 叱當 操作費의 内訳을 살펴본 바와 같이 政府米의 叱當 操作費用이 民間部門에 비하여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政府의 米穀管理는 政府財政負擔增加의 문제가 있으나, 商人의 價格操作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米價安定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政府米管理가 收穫期 米價安定을 통한 米穀增產과 農家所得向上 그리고 端境期米價安定을 통한 消費者保護 내지 物價安定에 기여한 諸效果를 고려할 때 政府의 米穀流通介入은 충분한 經濟的인妥當性도 있다고 본다.

특히 현재와 같이 米穀의 需給이 不安定하고 粮이 부족되어 상당한 外米를 도입하고 있는 여건 하에서 政府米의 比重을 크게 減縮하고 商人組織에 크게 의존하는 米價의 振幅을 더욱 크게 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米穀의 需給이 불안정한 段階에서는 政府의 적극적인 米穀市場介入은 불가피하리라 생각되며, 米穀의 需給이 안정되고 米穀의 民間流通組織이 育成됨에 따라 政府米의 比重을 段階적으로 缩少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表 8 - 8 . 1979 年度 粮呎當 操作費內訛

費　　目	金　額	構　成　比	備　考
操　作　費	4,892 원	62.0 %	
輸　送　費	1,465 ¹⁾	18.6	
加　工　費	1,849	23.4	1,850 원 ²⁾
保　管　料	870	11.0	
包裝材料費	708	9.0	
管　理　費	328	4.2	
借　入　金　利	825	10.5	韓銀에서 借入한 관계로 발생
減　耗	130	1.6	
收　率　減	1,712	21.7	基準收率과 實際收率의 차이에서 발생
小　計	7,887	100.0	
副　產　物　收　入	△761		
計	7,126		

1) 철도, 해송, 추력운임 및 하역비 포함.

2) 1979. 11 ~ 1980. 6 平均農家販賣價格(41,113 원) × 質搗精料
(4.5%).

※ 保管料, 管理費, 減耗의 合計 : 1,328 원.

第 9 章

消費者家口의 米穀購入 및 消費行爲

1. 調査家口의 概況

本調査에서는 서울市의 消費者家口를 대상으로 地域 및 所得水準을 고려하여 300 戶를 有意選定하였으며, 선정된 가구의 米穀購入實態 및 糜穀의 消費行為 등을 聽取調査하였다. 이 調査에서 선정된 標本家口의 所得階層別 家口分布를 보면 <表 9-1>과 같이 10 만원 미만인 階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끌고루 분포되어 있다. 本調査家口의 家口當 月平均所得은 284,800 원으로 1979년도 4/4 분기 서울市 勤勞者家口의 家口當 月平均所得인 269,154 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편 調査家口 전체의 戶當平均 家口員數는 4.92 명으로 1979년도 經濟企劃院의 全國都市家口에 대한 調査值 4.64 명과 비슷하다. 그런데 戶當平均家口員數는 所得水準이 높은 계층일수록 많은 경향이 있으며 家口當 月平均所得이 10 만원 미만인 계층이 3.76 명으로 가장 적었고, 40 만원 이상인 계층에서 5.81 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所得水準이 높은 階層일수록 戶當家口員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家口員數가 많은 家口에서 家計收入을 벌어들이는 家族數가 많고 債給者의 경우 일반적으로 年齡이 높을수록 上位職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債給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表 9-1. 所得階層別 調查家口 및 家口員數分布

區 分	10 萬원 미 만	10 ~ 20 萬 원	20 ~ 30 萬 원	30 ~ 40 萬 원	40 萬원 이 상	計
家 口 數 (戸)	17	88	66	40	89	300
構 成 比 (%)	5.7	29.3	22.0	13.3	29.7	100.0
總 家 口 員 數 (名)	64	405	313	178	517	1,477
構 成 比 (%)	4.3	27.4	21.2	12.1	35.0	100.0
家 口 當 平 均						
家 口 員 數 (名)	3.76	4.60	4.74	4.45	5.81	4.92

調査家口의 家口員數別分布를 살펴보면 <表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명 이하인 家口가 全體調査家口의 17.7 %, 4 ~ 6명인 家口가 68.9 %였으나, 7명 이상인 家口가 13.4 %이었다. 本調査에서의 家口員에는 同一家口内에서 生計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정부를 비롯하여 가정교사, 하숙생 등 同一家口内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모든 同居人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本調査의 목적이 米穀購入 및 消費實態를 파악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表 9-2. 家口員數別 調査家口分布

區 分	3 名 이 하	4 名	5 名	6 名	7 名 이 상	計
家 口 數 (戸)	53	70	70	67	40	300
構 成 比 (%)	17.7	23.3	23.3	22.3	13.4	100.0

한편 調査家口의 職業別分布를 살펴보면 <表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調査家口의 44.4 %에 해당하는 133 家口가 公務員이거나 公共機關 또는 個人企業體 등에 종사하고 있는 僱給生活者이었으며, 商業이 61家口

(20.3 %), 勞務職이 50 家口 (16.7 %) 그리고 서비스 및 其他自由業 등에 종사하고 있는 家口가 56 家口로 全體調查家口의 18.6 %를 차지하고 있었다.

消費者家口에서의 米穀購入은 주로 가정주부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어 주부의 교육수준이 米穀購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부의 教育程度를 조사한 결과 <表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卒이 29.3 %로 가장 많았고 國卒이 26.7 %, 中卒이 21.0 %, 大卒 이상이 17.7 %이었으며, 無學이 5.3 %를 차지하고 있었다.

表 9-3. 職業別 調査家口分布

區 分	公務員	公共企業體職員	個人企業體職員	商 業	服 务 業	勞務職	其 他 自由業	計
家 口 數(戸)	18	50	65	61	24	50	32	300
構成比(%)	6.0	16.7	21.7	20.3	8.0	16.7	10.6	100.0

表 9-4. 主婦學歷別 調査家口分布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이 상	計
家 口 數(戸)	16	80	63	88	53	300
構成比(%)	5.3	26.7	21.0	29.3	17.7	100.0

2. 米穀購入實態

가. 購入頻度

消費者家口의 米穀購入頻度를 보면 1개월에 한번 程度 米穀을 구

입한다는 家口가 186 家口 (62.0 %) 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1 개월 미만에 한번 정도가 58 家口 (19.3 %), 1 개월 이상에 한번 정도라는 家口 가 56 家口로 全體調查家口의 18.7 %를 차지하였다. 한편 1976 년도의 農協調查結果에 의하면 1 個月 未滿에 한번 程度 購入한다는 家口는 8.5 %에 불과하였고, 1 개월에 한번 정도라는 家口가 60.0 %, 1 개월 이상에 한번 購入한다는 家口가 31.5 %나 되었다.¹⁾ 本調査의 米穀購入頻度와 1976 년도 農協의 調查結果를 비교할 때 最近의 米穀購入頻度는 增加趨勢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購入頻度의 增加는 1 人當 消費量의 현저한 증가가 없는 한 편연적으로 1 回 購入量의 減少를 수반할 것이다.

이와 같이 消費者家口의 米穀購入頻度가 增加하고 1 回 購入量이 減少하게 된 주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米價의 상대적인 안정이다. 최근에 一般米의 價格이 불안정하였지만 政府米를 大量放出한 결과 全體米價는 상당히 안정되었으므로 消費者家口가 多量의 米穀을 미리 購入해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둘째, 1 叴 미만 小包裝單位의 一般化이다. 우선 政府米의 包裝單位가 모두 80 kg 미만 (60 kg, 40 kg, 30 kg, 20 kg, 10 kg 등) 으로 되어 있으며, 農協系統米의 경우도 24 kg들이 紙袋米가 供給되고 있다. 이와 같은 小規模包裝單位의 供給擴大는 消費者的 購入慣習을 변화시켜 購入頻度의 增加와 1 回購入量의 減少를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째, 都市家口의 住宅構造 내지는 生活樣式의 변화를 들 수 있겠다. 즉, 消費者들은 生活水準의 향상으로 住居環境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米穀의 長期保管에 따른 米質变化 및 불편 때문에 購入量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消費者家口의 米穀購入頻度를 所得階層別로 살펴보면 <表 9-5>와 같이 1 개월 미만에 한번 정도 米穀을 구입하는 家口는 月平均所得이 10 만 원 미만인 階層이 52.9 %로 상당히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1) 農協中央會, 「米穀마케팅 實態調查報告書」, 1978. p.320.

2) 前揭書, p.320 ~ 321.

40 만원 이상인 階層은 7.9 %에 불과하였다. 또한 1개월 이상에 한번 정도 米穀을 구입한다는 家口는 月平均所得이 10 만원 미만인 階層에서는 11.8 %에 불과하였으나, 40 만원 이상인 階層의 경우에는 25.8 %로서 비교적 높은 比率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米穀의 購入頻度는 所得水準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所得水準이 높은 계층일수록 家口員數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米穀의 購入頻度가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高所得層의 1回米穀購入量이 低所得層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9-5. 所得階層別 米穀購入頻度

单位：戶 (%)

區 分	10 萬 원 미 만	10 ~ 20 萬 원	20 ~ 30 萬 원	30 ~ 40 萬 원	40 萬 원 이 상	計
1個月미만에 한번 정도	9 (52.9)	28 (31.8)	8 (12.1)	6 (15.0)	7 (7.9)	58 (19.3)
1 個 月 에 한번 정도	6 (35.3)	55 (62.5)	43 (65.2)	23 (57.5)	59 (66.3)	186 (62.0)
1個月이상에 한번 정도	2 (11.8)	5 (5.7)	15 (22.7)	11 (27.5)	23 (25.8)	56 (18.7)
計	17 (100.0)	88 (100.0)	66 (100.0)	40 (100.0)	89 (100.0)	300 (100.0)

한편 米穀의 購入頻度와 職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表 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務員이나 會社員 등과 같이 일정한 所得源을 가지고 있는 債給生活者家口에서 1개월에 한번 정도 米穀을 구입한다는 家口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이유는 이들 家口가 주로 月給날에 米穀을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商業, 서비스業 및 勞務職 등과 같이 所得이 일정치 못한 家口의 경우 米穀의 購入頻度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家口의 상당수가 특별한 기준없이 집에 쌀이 떨어질 때 購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米穀의 購入頻度는 所得水準 및 職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6. 職業別 米穀購入頻度

单位：戶 (%)

區 分	公務員	公共企業體 職員	個人企業體 職員	商 業	服務業	勞務職	其 他 自由業	計
1個月 미만 에 한번 정도		3 (6.0)	5 (7.7)	14 (23.0)	8 (33.3)	26 (52.0)	2 (6.2)	58 (19.3)
1個月에 한번 정도	11 (61.1)	34 (68.0)	48 (73.8)	34 (55.7)	14 (58.3)	21 (42.0)	24 (75.0)	186 (62.0)
1個月 이상 에 한번 정도	7 (38.9)	13 (26.0)	12 (18.5)	13 (21.3)	2 (8.4)	3 (6.0)	6 (18.8)	56 (18.7)
計	18 (100.0)	50 (100.0)	65 (100.0)	61 (100.0)	24 (100.0)	50 (100.0)	32 (100.0)	300 (100.0)

나. 1回購入量

앞에서 살펴본 米穀購入頻度의 增加는 쌀消費量의 增加가 없다면 米穀의 1回購入量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調査家口의 1回米穀購入量을 살펴보면 한번에 5 말(斗) 미만을 購入한다는 家口가 139 家口로 全體調査家口의 46.3 %를 차지하고 있으며, 5 말~1 가마(畝) 정도를 購入한다는 家口가 120 家口 (40.0 %), 그리고 1 가마 이상을 購入한다는 家口가 41 家口 (13.7 %)였다.

本調査結果를 1976년의 農協調查結果와 비교해 볼 때 최근에 消費者家口의 1回平均 購入量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6년의

農協調查結果에 의하면 한번에 6 말 미만을 購入한다는 家口의 比重이 45.5 %를 차지하였고, 한번에 6 말~1 가마 정도를 購入한다는 家口가 32.0 %, 그리고 한번에 1 가마 이상을 購入한다는 家口가 22.5 %나 되었다.³⁾

消費者家口의 1回米穀購入量을 家口員數別로 살펴보면 <表 9-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家口員數가 많은 家口일수록 1回購入量도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번에 5 말 미만을 購入하는 家口의 경우에는 家口員數가 3 명 이하인 家口에서 71.7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번에 1 가마 이상을 購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家口員數가 8 명 이상인 家口에서 46.7 %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表 9-7. 家口員數別 1回米穀購入量

单位 : 戸(%)

區 分	3 名 이하	4 名	5 名	6 名	7 名	8 名 이상	計
5 말 미만	38 (71.7)	43 (61.4)	27 (38.6)	22 (32.8)	7 (28.0)	2 (13.3)	139 (46.3)
5 말~1 가마	10 (18.9)	22 (31.4)	35 (50.0)	34 (50.8)	13 (52.0)	6 (40.0)	120 (40.0)
1 가마 이상	5 (9.4)	5 (7.2)	8 (11.4)	11 (16.4)	5 (20.0)	7 (46.7)	41 (13.7)
計	53 (100.0)	70 (100.0)	70 (100.0)	67 (100.0)	25 (100.0)	15 (100.0)	300 (100.0)

또한 이를 所得階層別로 보면 <表 9-8>과 같이 所得水準이 높은 階層일수록 1回購入量이 增加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한번에 5 말 미만을 購入하는 경우를 보면 月平均所得이 10 만원 미만인 階層이 82.3 %로 가

3) 前揭書. p. 324.

장 높았으며, 한번에 1 가마 이상을 購入하는 경우에는 月平均所得이 40 만원 이상인 階層이 30.3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1回購入量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戶當 家口員數도 많을 뿐만 아니라 高所得層의 경우 収穫後 集中出荷期에 良質의 一般米를 미리 購入해 두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表 9-8. 所得階層別 1回米穀購入量

单位 : 戶 (%)

區 分	10 萬 원 미 만	10 ~ 20 萬 원	20 ~ 30 萬 원	30 ~ 40 萬 원	40 萬 원 이 상	計
5 말 미 만	14 (82.3)	64 (72.7)	26 (39.4)	14 (35.0)	21 (23.6)	139 (46.3)
5 말~1 가마	2 (11.8)	23 (26.1)	36 (54.5)	18 (45.0)	41 (46.1)	120 (40.0)
1 가마 이 상	1 (5.9)	1 (1.2)	4 (6.1)	8 (20.0)	27 (30.3)	41 (13.7)
計	17 (100.0)	88 (100.0)	66 (100.0)	40 (100.0)	89 (100.0)	300 (100.0)

家口主의 職業별로 米穀의 1回平均購入量을 보면 <表 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말 미만을 購入하는 家口의 경우 勞務職 및 서비스業에 종사하는 家口의 比重이 60~80 %로 매우 높으며 한번에 1 가마 이상을 購入하는 家口의 경우에 있어서는 公務員, 會社員, 商業 및 其他自由業 등에 종사하는 家口의 比重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消費者 家口에서의 1回平均購入量은 家口當消費量 및 月平均所得水準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근에 米穀의 購入頻度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1回平均購入量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9. 職業別 1回米穀購入量

单位：戸 (%)

區 分	公務員	公共企業體職員	個人企業體職員	商 業	サービス業	勞務職	其 他 自由業	計
5 말	3	24	24	23	15	39	11	139
미 만	(16.8)	(48.0)	(36.9)	(37.7)	(62.5)	(78.0)	(34.4)	(46.3)
5 말~	10	17	33	28	7	10	15	120
1 가마	(55.5)	(34.0)	(50.8)	(45.9)	(29.2)	(20.0)	(46.9)	(40.0)
1 가마	5	9	8	10	2	1	6	41
이 상	(27.8)	(18.0)	(12.3)	(16.4)	(8.3)	(2.0)	(18.7)	(13.7)
計	18	50	65	61	24	50	32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購入時期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消費者家口의 米穀購入頻度는 증가하고 1回平均 米穀購入量은 減少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 같은 이유를 파악하면 消費者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米穀의 購入時期를 결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消費者家口에서 米穀의 購入時期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아보면 <表 9-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調查家口의 53.0 %에 해당하는 159家口가 특별한 기준없이 집에 쌀이 떨어지면 그때 購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月給날 등 收入이 발생했을 때,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 놓고 米穀을 購入하고 있는 家口가 118家口로 全體調查家口의 39.3 %, 좋은 쌀을 購入할 수 있을 때 미리 購入해 둔다는 家口는 23家口로 전체의 7.7 %에 불과하였다. 한편 米價의 上昇이豫想되면 米穀을 미리 購入해 둔다고 應答한 家口는 전혀 없었는데, 이는 최근에 米價가 상당히 안정된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 9 - 10 . 所得階層別 米穀購入時期

單位 : 戶(%)

區 分	10 萬원 미 만	10 ~ 20 萬 원	20 ~ 30 萬 원	30 ~ 40 萬 원	40 萬원 이 상	計
月 紿 날 등	2	32	28	11	32	105
収 入 發 生 時	(11.8)	(36.3)	(42.4)	(27.5)	(36.0)	(35.0)
每 月 一 定 日	-	2 (2.3)	5 (7.6)	4 (10.0)	2 (2.2)	13 (4.3)
特別한 기준없이	14	52	31	21	41	159
쌀이 떨어지면	(82.3)	(59.1)	(47.0)	(52.5)	(46.1)	(53.0)
良 質 米	1	2	2	4	14	23
購 入 可 能 時	(5.9)	(2.3)	(3.0)	(10.0)	(15.7)	(7.7)
米 價 上 异 이 豫 想 되 면	-	-	-	-	-	-
計	17 (100.0)	88 (100.0)	66 (100.0)	40 (100.0)	89 (100.0)	300 (100.0)

또한 특별한 기준없이 집에 쌀이 떨어지면 그때 購入한다는 家口와 월
급날 등 収入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또는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 놓고 購
입한다는 家口 역시 米價의 变動이나 기타 米穀市場의 與件變化에 큰 관
심이 없는 家口로 볼 수 있는데 이를 家口數가 全體調查家口의 90 %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米價가 비교적 安定된 데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月平均所得이 낮은 階層에서 米價變動이나 其他
米穀市場의 與件變化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이를 家口가 주로 價格變
動이 심하지 않고 供給量이 충분한 政府米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되며 所得水準이 높은 階層에서 良質米購入이 가능할 때에 購入한
다는 家口의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를 家口가 주로 一般米를 購
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高所得層의 경우 좋은 쌀을 購入할 수 있을 때 미리 사두려는 경향이 있는 바, 이들 家口는 良質米의 供給物量이 부족하여 價格이 上昇勢를 보일 때 假需要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消費者들이 米價變動에 별로 민감하지 않고 1回平均購買量이 減少하고 있는 主原因은 최근의 米價安定과 政府米의 충분한 供給에 기인한다 하겠다. 그러나 米價의 變動이 심하고 특히 政府米의 供給量이 부족할 때에는 이들 家口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라. 購入對象부

消費者家口에서 米穀을 購入할 때 주로 一般糧穀 小賣商과 農協直賣場을 이용하고 있으며, 간혹 서울 근교의 生產農家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產地의 緣故者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消費者家口의 米穀購買處別購買比率을 살펴보면 <表 9-11>과 같이 一般糧穀小賣商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家口가 243家口로 81.0%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協直賣場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家口는 44家口(14.7%) 그리고 生產農家 또는 其他經路를 통해 구입하고 있는 家口는 13家口(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978년도 農協調查結果⁴⁾와 비교해 보면 一般糧穀小賣商을 이용하는 家口의 比率은 75.0%에서 81.0%로 增加된 반면, 農協直賣場 利用率은 21.7%에서 14.7%로 낮아졌으며 產地生產農家 등 其他經路를 통하여 구입하는 家口의 비중은 3.3%에서 4.3%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表 9-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般糧穀小賣商과 農協直賣場의 利用比率은 所得水準과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產地生產農家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產地의 緣故者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는 所得水準이 높은 階層에서 높게 나타났다.

4) 前揭書. p. 333.

表 9-11. 所得階層別 米穀購入處

單位：戶 (%)

區 分	10 萬 원 미 만	10 ~ 20 萬 원	20 ~ 30 萬 원	30 ~ 40 萬 원	40 萬 원 이 상	計
一般 糧 穀	16	66	59	33	69	243
小 賣 商	(94.1)	(75.0)	(89.4)	(82.5)	(77.5)	(81.0)
農協直賣場	1 (5.9)	22 (25.0)	5 (7.6)	5 (12.5)	11 (12.4)	44 (14.7)
產 地	-	-	2	2	9	13
生 產 農 家	-	-	(3.0)	(5.0)	(10.1)	(4.3)
計	17 (100.0)	88 (100.0)	66 (100.0)	40 (100.0)	89 (100.0)	300 (100.0)

그런데 消費者家口로부터 가장 가까운 糧 穀 商 까지의 거리를 一般 糧 穀 小 賣 商 과 農協直賣場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表 9-12>와 같다. 一般 糧 穀 小 賣 商 까지의 平均距離는 약 155 m 로 나타났으며, 小 賣 商 과의 距離別 家口 分布 를 보면 100 m 미만이라고 응답한 家口 가 全體調查家口 의 32.0 %, 100 ~ 300 m 가 53.0 %, 500 m 이상은 불과 6.3 % 로 나타났다. 한편 消費者家口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農協直賣場 과의 距離別 分布 를 보면 100 m 미만이라는 家口 는 5.7 % 에 불과하였고, 100 ~ 300 m라는 家口 가 34.0 % 이었으며, 500 m 이상이 24.3 % 그리고 農協直賣場 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정확한 距離把握 을 하지 못하고 있는 家口 도 18.3 %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消費者家口로부터 農協直賣場 까지의 거리는 一般 糧 穀 小 賣 商 보다 훨씬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80년 6월 말 현재 서울 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一般 糧 穀 小 賣 商 은 6,491 개소인데 반하여 農協直賣場 (農畜產物綜合販賣場 包含) 은 1,397 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表 9-12. 隣近糧穀商과의 距離

单位 : 戶 (%)

區 分	100 m 미 만	100 ~ 300 m	300 ~ 500 m	500 m 이 상	無應答 또는 잘모르겠다	計
一般糧穀 小賣商	96 (32.0)	159 (53.0)	26 (8.7)	19 (6.3)	-	300 (100.0)
農協 直賣場	17 (5.7)	102 (34.0)	53 (17.7)	73 (24.3)	55 (18.3)	300 (100.0)

한편 消費者家口의 단골米穀商(農協直賣場포함) 保有現況을 살펴보면 <表 9-13>과 같이 全體調查家口의 89.3%에 해당하는 268家口가 단골로 거래하는 糧穀商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단골米穀商과의 거리는 消費者家口로부터 300m 이내에 있다는 家口가 7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消費者家口는 집근처의 米穀商을 단골로 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14>. 그리고 단골米穀商과의 去來期間 즉, 얼마나 단골去來를 계속해 왔는지에 대한 應答結果를 보면 1년 이상 단골去來를 지속하고 있는 家口가 全體調查家口의 59.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6개월~1년이라는 家口가 15.7%, 6개월 미만인 家口가 24.6%로 나타났다 <表 9-15>. 따라서 대부분의 消費者家口는 집근처의 米穀商과 단골로 去來하고 있으며 일단 단골去來가 成立되면 상당한 기간동안 去來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 9-13. 단골米穀商 保有現況

應答區分	應答者數 (戶)	構成比 (%)
있 다	268	89.3
없 다	32	10.7
計	300	100.0

表 9-14. 단골米穀商과의 距離

距離 區分	100m 미만	100~ 300m	300~ 500m	500m 이상	計
家口數(戸)	77	126	27	38	268
構成比(%)	28.7	47.0	10.1	14.2	100.0

表 9-15. 단골米穀商과의 去來期間

區分	3個月 미만	3~6 個月	6個月 ~1年	1~3年	3 年 이상	計
家口數(戸)	41	25	42	70	90	268
構成比(%)	15.3	9.3	15.7	26.1	33.6	100.0

단골米穀商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表 9-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家口가 147 家口 (5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쌀의 品質, 價格 또는 物量 등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 14.2%, 좋은 쌀을 언제든지 購入할 수 있기 때문이 7.8%, 米穀商主人과 친척이거나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 6.3%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유로는 外上購入이 가능하기 때문이 4.5%, 다른 米穀商에 비해 보다 싼값으로 購入할 수 있기 때문은 1.1%에 불과하였고, 기타 이유를 포함해서 특별한 이유없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去來해 왔다는 家口가 11.2%였다.

단골去來를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表 9-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좋은 쌀을 끌라서 購入하기 위해서라고 應答한 家口가 28.1%, 단골去來가 별로 利益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 21.9%, 값을 알아보고 나서 보다 싼값으로 購入하기 위해서가 15.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이유로 단골去來를 하고 있지 않다는 家口가 34.4%로 비교적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단골去來를 하는 경우 체면상 값을 착을 수가

없다거나 消費者들의 형편에 따라 아무곳에서나 購入하기 때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表 9-16. 단골米穀商을 가지고 있는 이유

應答區分	應答者數(戶)	構成比(%)
品質, 價格, 物量 등을 속이지 않으므로	38	14.2
좋은 쌀을 언제든지 購入할 수 있으므로	21	7.8
外上으로 購入할 수 있으므로	12	4.5
다른곳에 비해 싼값으로 購入할 수 있으므로	3	1.1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便利하므로	147	54.9
친척 또는 오래전부터 잘아는 사이이므로	17	6.3
특별한 理由 없이 過去부터 去來해 왔으므로	29	10.8
其他	1	0.4
計	268	100.0

表 9-17. 단골米穀商이 없는 理由

應答區分	應答者數(戶)	構成比(%)
값을 알아보고 보다 싼값으로 購入하기 위해	5	15.6
더 좋은 쌀을 골라서 購入하기 위해	9	28.1
단골로 去來해도 별로 利益되는 점이 없으므로	7	21.9
其他	11	34.4
計	32	100.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消費者들은 米穀購入時 價格보다는 品質 차이에 보다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調査當時 政府米를 低水準으로 大量放出함에 따라 政府米價格은 물론 一般米價格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去來實態

1) 去來單位

과거 우리 나라의 米穀去來單位는 일반적으로 가마니(呎), 말(斗), 되(升) 등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容量去來單位는 米穀去來上 不合理하였을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과 弊端이 있었던 관계로, 정부는 미터法에 의한 重量去來制를 실시토록 강력히 권장한 결과, 현재 米穀去來는 重量去來가 널리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容量去來單位를 選好하는 消費者가 다소 있으며 이는 오랜 慣習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米穀購入時 去來單位에 대한 消費者的 選好를 알아보면 <表 9-18>과 같이 重量去來가 더 편리하다고 應答한 家口가 183 家口로 全體調查家口의 6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아직도 容量去來가 더 편리하다는 家口가 73 家口 (24.3%)나 되었고, 아무것이나 마찬가지라는 家口가 44 家口 (14.7%)였다.

이와 같이 重量去來에 대한 消費者選好度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으나, 아직도 容量去來를 선호하는 消費者가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重量去來制에 대한 지속적인 教育과 弘報活動이 요청된다 하겠다.

表 9-18. 米穀購入時 去來單位에 대한 消費者選好

區 分	重 量 去 來	容 量 去 來	마 찬 가지	計
家 口 數 戶)	183	73	44	300
構 成 比 (%)	61.0	24.3	14.7	100.0

消費者的 家口에서 米穀을 購入할 때 商人의 計量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米穀購入時 商人的 計量을 반드시 확인한다는 家口가 61 家口 (20.3%), 商人을 믿고 확인하지 않는다는 家口가 186 家口

(62.0 %), 때에 따라서 확인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는 家口가 51 家口 (17.0 %)였으며, 확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직접 달아본다는 家口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9 - 19 >.

表 9 - 19 . 米穀購入時 物量確認 與否

應答區分	家口數 (戶)	構成比 (%)
반드시 確認한다.	61	20.3
商人을 믿고 確認하지 않는다.	186	62.0
때에 따라 確認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51	17.0
確認뿐만 아니라 直接 달아 본다.	2	0.7
計	300	100.0

현재 政府米는 重量單位로 포장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消費者가 별도로 重量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商人的 計量을 반드시 확인한다는 家口는 대부분 一般米를 購入하는 家口로 볼 수 있으며, 1979년도 서울市 米穀流通量 중 一般米의 比重이 불과 30 %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消費者들은 一般米購入時 대부분 重量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消費者들의 米穀購入時 物量確認과 관련하여 購入한 쌀의 品質 및 物量이 주문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一般米購入家口 (때에 따라 購入한다는 家口 포함)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차이가 있었다라는 家口가 一般米購入家口의 19.7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차이가 없었다라는 家口가 43.5 %, 그리고 잘모르겠다라는 家口가 36.8 %로 나타났다 <表 9 - 20 >.

2) 包裝資材

米穀의 包裝資材에 대한 消費者들의 의견을 알아보면, 대체로 두 가지의 特徵의in 反應을 보였다. 즉, 20 kg 미만의 小量去來에 있어서는 紙袋包裝이 좋다는 것이었으며, 1 가마 단위의 大量去來에서는 요즈음 주로 사용되고 있는 p. p 袋를 가장 選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9-20. 購入한 쌀의 品質 및 物量이 注文時와의 差異與否*

應答區分	應答者數 (戶)	構成比 (%)
있었다	38	19.7
없었다	84	43.5
잘 모르겠다	71	36.8
計	193	100.0

* 一般米購入家口(때에 따라 購入한다는 家口도 包含)의 경우

한편 政府米의 包裝資材 중 종이부대(紙袋)의 가장 알맞는 重量單位에 대한 消費者的 의견을 알아본 결과, <表 9-21>과 같이 20 kg이 적당하다는 家口가 48.3 %로서 제일 많았으며, 다음은 10 kg 이하가 적당하다는 家口가 22.3 %, 30 ~ 60 kg 까지도 적당하다는 家口는 16.0 %, 그리고 紙袋는 破損될 우려가 많아서 米穀의 包裝資材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응답한 家口가 4.0 %의 순이었다.

表 9-21. 政府米의 包裝資材(紙袋)에 대한 消費者意見

應答區分	應答者數 (戶)	構成比 (%)
10 kg 이하는 適當	67	22.3
20 kg 程度가 適當	145	48.3
30 kg 까지도 適當	29	9.7
60 kg 까지도 適當	19	6.3
不適當	12	4.0
無應答	28	9.3
計	300	100.0

또한 1 가마 単位의 米穀去來에 있어서 包裝資材에 대한 消費者의 選好를 보면 <表 9-22>와 같이 p.p袋를 選好하는 家口가 全體調查家口의 49.0 %로서 제일 많으며, 麻袋가 18.3 %, 綿袋가 14.0 %의 순이었고, 종래에 주로 사용되어 온 짚가마니는 10.0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짚가마니에 대한 消費者들의 選好度가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消費者들이 p.p 袋나 麻袋 또는 綿袋를 짚가마니보다 더 選好하고 있는 주원인은 이들 包裝資材가 비교적 깨끗하고 空袋(빈부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紙袋의 경우 小量包裝單位를 選好하고 있는 것은 包裝單位가 클수록 破損될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表 9-22. 1 가마单位의 米穀購入時 包裝資材에 대한 消費者選好

應答區分	應答者數 (戶)	構成比 (%)
p . p 袋	147	49.0
짚 가 마 니	30	10.0
綿 袋	42	14.0
麻 袋	55	18.3
아무것이나 마찬가지	26	8.7
計	300	100.0

3) 米穀代金決済方法

消費者들이 米穀을 구입할 때 代金決済方法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부분 現金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89.7 %) 外上去來의 比重은 7.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外上去來하는 家口는 주로 低所得層에 많았다. 한편 消費者들이 米質 좋은 쌀을 購入하기 위해서 先金去來를 한다는 家口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주로 高所得層의 家口에서 찾을 수 있었다 <表 9-23>.

表 9-23. 所得階層別 米穀代金決済方法

単位：戸 (%)

區 分	10 萬 원 미 만	10 ~ 20 萬 원	20 ~ 30 萬 원	30 ~ 40 萬 원	40 萬 원 이 상	計
現 金	10 (58.8)	76 (86.4)	60 (90.9)	38 (95.0)	85 (95.6)	269 (89.7)
外 上	6 (35.3)	8 (9.1)	4 (6.1)	2 (5.0)	2 (2.2)	22 (7.3)
先 金	-	-	-	-	2 (2.2)	2 (0.7)
現金 또는 外 上	1 (5.9)	4 (4.5)	2 (3.0)	-	-	7 (2.3)
計	17 (100.0)	88 (100.0)	66 (100.0)	40 (100.0)	89 (100.0)	300 (100.0)

4) 運搬主體 및 運搬手段

米穀去來에 있어서의 運搬은 일반적으로 米穀商에서 배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購入量이 적거나 米穀商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家口에서는 消費者が 직접 운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9-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 調査家口의 88.0 %에 달하는 家口가 米穀商에서 배달해 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顧客에 대한 事後서비스로 단골顧客유치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반면에 消費者が 직접 運搬하는 경우도 11.3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米穀商과의 거리가 가까운 消費家口에서 小量購入을 할 경우이거나 所得水準이 비교적 높은 階層에서 產地生産農家 또는 產地의 緣故者를 통해 多量購入하는 경우이다.

한편 米穀運搬時 주로 이용하고 있는 運搬手段을 보면 <表 9-25>와 같이 米穀商에서 배달해 주는 경우 75.0 %가 自轉車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消費者が 직접 運搬하는 경우 73.5 %가 人力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大量購

入時에는 용달차 또는 트럭을 이용한다는 家口도 있었다.

表 9-24. 米穀購入時 1回購入量別 運搬主體

单位 : 戸(%)

區 分	5 만 미	5 만~ 1 가마	1 가마 이상	計
消費者 가 直接 運搬	23 (16.6)	3 (2.5)	8 (19.5)	34 (11.3)
米 穀 商 에 서 配達	114 (82.0)	117 (97.5)	33 (80.5)	264 (88.0)
消費者 또는 米穀商에서 配達	2 (1.4)	-	-	2 (0.7)
計	139 (100.0)	120 (100.0)	41 (100.0)	300 (100.0)

表 9-25. 運搬主體別 運搬手段

单位 : 戸(%)

區 分	人 力	自轉車	리어카	오토바이	용달차	트 럺	計
消費者 가 直 接 運搬	25 (73.5)	-	-	-	7 (20.6)	2 (5.9)	34 (100.0)
米 穀 商 에서 配達	49 (18.6)	198 (75.0)	3 (1.1)	11 (4.2)	1 (0.4)	2 (0.7)	264 (100.0)
消費者 또는 米 穀 商 에서 配達	-	2 (100.0)	-	-	-	-	2 (100.0)
計	74 (24.7)	200 (66.7)	3 (1.0)	11 (3.7)	8 (2.6)	4 (1.3)	300 (100.0)

3. 米穀의 消費實態

調查家口의 家口當月平均米穀消費量은 45.6 kg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所得階層別로 살펴보면 月平均所得아 10 만원 미만인 階層이 35.7 kg으로 가장 적었고, 所得水準이 높은 階層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月平均所得이 40 만원 이상인 階層의 경우 52.1 kg에 달하고 있다.

한편 全體 調查家口 平均의 1人當月平均米穀消費量은 9.27 kg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所得階層別로 살펴보면 <表 9-26>과 같이 所得階層間에 큰 차이가 없으며, 10 만원 미만 계층의 경우 9.49 kg에서 30 ~ 40 만원 階層까지는 增加趨勢에 있으나, 40 만원 이상의 高所得階層에서는 8.97 kg으로 뛰弔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9-26. 所得階層別 米穀消費量 (全體調査家口平均)

單位 : kg

所得階層別	家口當平均 家口員數	月平均消費量		1人當年間 消費量
		家口當	1人當	
10 萬원 미만	3.76 (名)	35.7	9.49	113.9
10 ~ 20 萬원	4.60	44.6	9.68	116.2
20 ~ 30 萬원	4.74	42.2	8.90	106.8
30 ~ 40 萬원	4.45	43.4	9.75	117.0
40 萬원 이상	5.81	52.1	8.97	107.6
平 均	4.92	45.6	9.27	111.2

全體調査家口의 月平均米穀消費量을 1人當年間消費量으로 환산하면 111.2 kg이 된다. 그런데 本調查에서는 家口內의 쌀 消費量만이 조사된 관계로 外食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外食頻度 (4.4%)⁵⁾를 감안하여 1

5) 農水產部流通統計官室資料 (1人當月平均 4回程度)를 利用하여 推定하였음.

人當年間 米穀消費量을 추산해 보면 116.1 kg으로 1979년도 非農家の 1人當年間 米穀消費量인 129.4 kg⁶⁾ 보다 약 13 kg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本調査 결과와 農水產部의 種穀消費量調查結果와의 차이는 本調査 대상이 서울市內의 300家口를 有意選定하였음에 비하여 農水產部의 조사대상은 大都市, 中都市, 小都市 및 農村地域의 非農家 1,812家口를 標本抽出한 것으로 標本數 및 調査地域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本調査의 米穀消費量은 1980년 6월을 기준으로 聽取調查한 月平均 家口當 購入量으로부터 추정된 것이므로 本調査의 米穀消費量에는 時差에 의한 차이도 포함되어 있다.

農水產部의 種穀消費量調查結果의 非農家米穀消費量은 최근에 들어 와 감소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는 바, 1980년 1월~8월 기간중 非農家の 1人當月平均米穀消費量은 10.32 kg으로 前年同期와 비교해 보면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非農家の 米穀消費量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勘案해 볼 때 本調査結果는 어느 정도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9-27. 家口員數別 米穀消費量

單位 : kg

家口員數別	月平均消費量		1人當年間 消費量
	家口當	1人當	
3名이하	25.7	9.58	115.0
4名	35.2	8.80	105.6
5名	46.6	9.32	111.8
6名	56.9	9.48	113.8
7名	64.8	9.26	111.1
8名이상	77.8	9.12	109.4
平均	45.6	9.27	111.2

6) 農水產部, 種穀消費量調查結果報告 (RY 70-79), p. 23.

한편 消費者家口의 家口當米穀消費量을 家口員數別로 보면 <表 9-27>과 같이 家口員數가 많을수록 增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명 이하의 家口에서 25.7 kg으로 가장 적고, 8명 이상의 家口에서 77.8 kg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人當月平均米穀消費量은 家口員數와 뚜렷한 경향이 없으며 3명 이하인 家口에서 9.58 kg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1人當米穀消費量이 비교적 많은 11~60세 年齡層의 構成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米穀, 混合穀 및 보리쌀消費에 대한 消費者 選好

현재 市中에 流通되는 米穀은 정부에서 직접 매입하여 農協直賣場과 一般稻穀小賣商등을 통해 一般消費者들에게 방출되는 政府米와 產地商人, 蔊集商, 烹精業者 또는 都市米穀商人들에 의해 生產農家로부터 수집되어 消費者에게 유통되는 一般米 그리고 農協의 系統出荷組織을 통하여 유통되는 農協米로 区分된다.

그런데 農協米는 消費地米穀市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낮은 관계로 本調查에서는 이를 제외한 政府米와 一般米에 대한 消費者의 選好를 조사하였다.

表 9-28. 所得階層別 政府米와 一般米의 購入比率

單位 : 戶(%)

區 分	10 萬 원 미만	10 ~ 20 萬 원	20 ~ 30 萬 원	30 ~ 40 萬 원	40 萬 원 이상	計
政府米 購入	14 (82.3)	64 (72.7)	15 (22.7)	4 (10.0)	10 (11.2)	107 (35.7)
一般米 購入	1 (5.9)	8 (9.1)	28 (42.4)	19 (47.5)	51 (57.3)	107 (35.7)
때에 따라 모두 購入	2 (11.8)	16 (18.2)	23 (34.9)	17 (42.5)	28 (31.5)	86 (28.6)
計	17 (100.0)	88 (100.0)	66 (100.0)	40 (100.0)	89 (100.0)	300 (100.0)

消費者家口에서 주로 구입하고 있는 米穀의 種類를 所得階層別로 보면低所得階層일수록 政府米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비하여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一般米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表 9-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月平均所得이 10 만원 미만인 階層에서 政府米만 구입하고 있다는 家口가 82.3 %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月平均所得이 40 만원 이상인 階層에서는 一般米만 購入한다는 家口가 57.3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主婦學歷別로 살펴보면 <表 9-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教育水準이 높은 家口일수록 一般米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教育水準과 月平均 家口當所得階層間에 높은 相關關係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政府米만 구입하고 있다는 家口의 경우를 보면 주부의 教育水準이 無學인 家口가 93.8 %로 가장 높았고 學歷이 높을수록 그 比重은 점차 낮아져 大卒 이상인 家口에서는 7.5 %에 불과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一般米만 購入하고 있다는 家口에 있어서는 無學인 家口는 전혀 없었고, 主婦의 教育 정도가 높을수록 그 比率은 점차 높아져 大卒 이상인 家口의 경우 58.5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9-29. 主婦學歷別 政府米와 一般米의 購入比率

單位 : 戶 (%)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이 상	計
政府米 購 入	15 (93.8)	47 (58.7)	25 (39.7)	16 (18.2)	4 (7.5)	107 (35.7)
一般米 購 入	-	15 (18.8)	17 (27.0)	44 (50.0)	31 (58.5)	107 (35.7)
때에 따라 모두 購入	1 (6.2)	18 (22.5)	21 (33.3)	28 (31.8)	18 (34.0)	86 (28.6)
計	16 (100.0)	80 (100.0)	63 (100.0)	88 (100.0)	53 (100.0)	300 (100.0)

한편 消費者家口에서 政府米와 一般米만을 購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表 9-30>, 政府米만을 購入하고 있는 이유로는 政府米의 價格이 一般米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低廉하기 때문이라고 應答한 家口가 政府米만을 購入하는 家口(107家口)中 8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政府米의 品質이 一般米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 9.3%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過去習慣으로 政府米만을 구입하고 있다는 家口가 1.9%를 차지하고 있었다.

表 9-30. 政府米와 一般米만을 購入하고 있는 이유

單位 : 戶 (%)

政府米만을 購入하는 家口		一般米만을 購入하는 家口	
應答區分	應答者數	應答區分	應答者數
一般米에 비하여 價格이 低廉하므로	95 (88.8)	政府米 보다 米質이 좋기 때문에	98 (91.6)
一般米와 米質 差異가 없으므로	10 (9.3)	產地에 緣故者가 있으므로	4 (3.7)
過去習慣때문에	2 (1.9)	過去習慣때문에	5 (4.7)
計	107 (100.0)	計	107 (100.0)

한편 一般米만을 구입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一般米가 政府米에 비하여 米質이 좋기 때문이라고 應答한 家口가 一般米만을 구입하는 家口(107家口)의 91.6%로 대중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밖에 過去習慣때문이 4.7%, 產地에 緣故者가 있기 때문이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政府米는 產地別로 구분없이 일정한 價格으로 放出되고 있으나 一般米는 流通過程에서 產地別米質의 차이에 따라 價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產地別로 價格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京畿米가 湖南米에 비하여 米質이 좋은 것으로 消費者에게 인식된 데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一般米의 產地別米質 차이가 消費者의 米穀購入에 어떻게 인식되고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本調査에서는 一般米를 구입하는 家口 (때에 따라 구입하는 家口 포함)에 대해 一般米購入時 產地別 区分與否를 알아본 결과, 구분한다고 應答한 家口가 63 家口 (32.6 %)이었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家口가 109 家口 (56.5 %)였으며, 때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는 家口가 19 家口 (9.9 %)로 나타났다 <表 9-31>.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米穀의 產地別米質의 차이는 아직도 消費者들이 米穀을 購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31. 一般米購入時 產地區分 與否 *

應答區分	應答者數 〔戶〕	構成比 〔%〕
區分한다	63	32.6
區分하지 않는다	109	56.5
때에 따라서區分한다	19	9.9
無應答	2	1.0
計	193	100.0

* 一般米購入家口 (때에 따라 購入하는 家口 包含)에 대한 分析結果임.

한편 消費者들이 一般米를 구입할 때 產地別 구분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면, 產地別 구분을 하는 家口 (때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는 家口 포함) 중 79.2 %가 더 좋은 쌀을 골라서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應答하였고 그 외의 이유로서는 產地別로 價格에 差異가 있으므로 보다 싼 값으로 구입하기 위해서이거나 生產農家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家口의 경우 交通이 편리한 곳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또는 無應答이 14.7 %이었다 <表 9-32>.

表 9-32. 一般米購入時 產地別 區分을 하고 있는 이유

應 答 區 分	應答者數 (戶)	構成比 (%)
產地別米質差異로 더 좋은 쌀을 購入하기 위해	65	79.2
產地別價格差異로 보다 싼 값으로 購入하기 위해	2	2.4
交通이 便利한 곳에서 購入하기 위해	3	3.7
其 他	3	3.7
無 應 答	9	11.0
計	82	100.0

* 떼에 따라 區分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家口 (19家口) 包含。

그리고 產地別 區分을 전혀 하지 않는 家口 (109家口)의 경우 그 이유로는 消費者들이 產地別區分 能力이 없기 때문이라는 家口가 52.3%나 되었으며, 產地別 구분보다는 品種別 구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 家口가 32.1% 그리고 產地別로 米質差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家口가 1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9-33>.

表 9-33. 一般米購入時 產地別區分을 하지 않는 이유

應 答 區 分	應答者數 (戶)	構成比 (%)
產地別區分이 어렵기 때문에	57	52.3
產地別로 米質의 差異가 없기 때문에	13	11.9
產地別區分보다는 品種別區分이 重要하므로	35	32.1
其 他	4	3.7
計	109	1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消費者들이 一般米購入時 產地別 구분을 하고 있는 이유 중 產地別로 米質差異가 있기 때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產地別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중 產地別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당수의 消費者들이 產地別로 米質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米穀을 구입할 때 產地別 구분 즉, 京畿米와 기타 地方米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商人們로 하여금 品質이 다소 좋은 地方米를 京畿米로 판매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줌으로써 부당한 等級마진을 取得할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또한 產地別 区分보다는 品種別 区分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產地別 区分을 하지 않는다는 家口가 비교적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들 家口는 동일한 米穀品種이라면 어느 지방에서 生産된 米穀이든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들어 商人經路를 통하여 流通되는 米穀의 品種이 다양해지면서 產地別 品質의 차이보다는 品種別 米質의 차이가 더욱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消費者家口의 一般米 購入基準이 종전의 產地別 品質差異에서 앞으로는 品種別 米質差異로 차츰 전환되리라 본다.

消費者家口의 所得水準이 높아지고 米穀의 品種이 다양해짐에 따라 消費者들의 米穀品質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米穀政策은 종전의 增產爲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增產은 물론 品質向上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混合穀의 보리쌀混合比率에 대한 消費者들의 의견을 알아보면, 현재 販賣되고 있는 20% 混合穀이 적당하다는 家口는 18.7%에 불과하였으며, 15%混合穀이 적당하다는 家口가 20.7% 그리고 10%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家口가 무려 51.0%로서 현재의 보리쌀混合比率을 낮추기를 희망하는 家口가 7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9-34>. 보리쌀의 混合比率을 25% 또는 30%까지 늘려도 적당하다고 應答한 家口는 2.6%에 불과하였으며 無應答이 7.0%이었는데 無應答의 대부분은 混合穀을 消費해 본 經驗이 없는 家口로서 混合比率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으리라 본다.

表 9-34. 混合穀의 보리쌀混合比率에 대한 消費者 意見

區 分	10 %	15 %	20 %	25 %	30 %	無應答	計
應答者數(口)	153	62	56	3	5	21	300
構成比(%)	51.0	20.7	18.7	1.0	1.6	7.0	100.0

한편 消費家口의 보리混食 실태를 살펴보면 全體調查家口의 30.0 %에 달하는 90 家口가 年中 보리混食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보리混食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家口가 111 家口 (37.0 %) 나 되었고, 때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는 家口가 99 家口 (33.0 %)로 나타났다 <表9-35>. 이를 所得階層別로 보면 所得水準이 낮은 家口일수록 보리混食을 年中 하고 있는 家口의 比重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所得水準이 높아질수록 보리混食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家口의 比重이 높게 나타났다.

表 9-35. 所得階層別 보리混食與否

單位 : 戶 (%)

區 分	10 萬 원 미 만	10 ~ 20 萬 원	20 ~ 30 萬 원	30 ~ 40 萬 원	40 萬 원 이 상	計
年 中 實 施	9	36	16	7	22	90
하 고 있 다	(52.9)	(40.9)	(24.2)	(17.5)	(24.7)	(30.0)
전 허 안	5	29	24	16	37	111
하 고 있 다	(29.4)	(33.0)	(36.4)	(40.0)	(41.6)	(37.0)
때에 따라 하기도	3	23	26	17	30	99
하고 안하기도 한다	(17.7)	(26.1)	(39.4)	(42.5)	(33.7)	(33.0)
計	17 (100.0)	88 (100.0)	66 (100.0)	40 (100.0)	89 (100.0)	300 (100.0)

보리混食을 年中 하고 있는 家口 (90 家口)의 보리混食 이유를 알아보면 <表9-36>과 같이 營養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하여기 14.4 %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가 21.1%, 食品費支出額을 줄이기 위해서가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의 이유로는 식구들이 보리混食을 좋아하기 때문이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過去習慣으로 보리混食을 하고 있다는 家口가 15% 정도로 나타났다.

表 9-36. 보리混食을 年中 實施하고 있는 이유

應答區分	應答者數 (戶)	構成比 (%)
營養을 끌고루 摄取하기 위하여	40	44.4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19	21.1
食品費支出額을 줄이기 위하여	18	20.0
식구들이 보리混食을 좋아하므로	8	8.9
過去習慣때문에	5	5.6
計	90	100.0

그리고 보리混食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家口(111家口)에 대해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식구들이 보리混食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家口가 55家口(49.6%)로 가장 많았으며, 보리를 섞으면 밥맛이 없기 때문이라고 應答한 家口가 29.7%,混食을 한다고 해서 食品支出費가 별로 줄지 않기 때문이 7.2%, 그밖에 밥을 지을 때 번잡스럽거나 過去習慣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表 9-37>.

또한 現在는 보리混食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어떤 條件이 주어진다면 보리混食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政府에서 機極 勸獎한다면 政府施策에 호응하기 위하여 보리混食을 하겠다는 家口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쌀價格이 現在보다 크게 上된다면 이라는 家口가 27.9% 그리고 보리쌀의 品質이 現在보다 좋아진다면 이라고 應答한 家口가 13.5%로 나타난 반면, 보리混食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는 家口도 2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9-38>.

表 9-37. 보리混食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이유

應答區分	應答者數(戶)	構成比(%)
밥맛이 좋지 않기 때문에	33	29.7
식구들이 좋아하지 않으므로	55	49.6
混食을 해도 食糧費가 별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8	7.2
밥을 지을 때 번잡스러워서	7	6.3
過去習慣때문에	4	3.6
其他	4	3.6
計	111	100.0

表 9-38. 보리混食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家口에 대한 向後 보리混食意向

應答區分	應答者數(戶)	構成比(%)
政府에서 極力 勸獎한다면	39	35.2
쌀價格이 現在 보다 크게 引上된다면	31	27.9
보리 쌀의 品質이 現在보다 좋아진다면	15	13.5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	24	21.6
其他	2	1.8
計	111	100.0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보리消費促進을 위하여 政府의 極極的
인 勸獎은 물론 弘報活動을 통한 보리混食에 대한 啓蒙 및 洩國民運動의
展開가 절실히 요청되는 동시에 政府보리쌀의 品質向上에도 보다 많은 努
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米價에 대한 消費者反應

消費者家口의 米價에 대한 反應을 알아보기 위해 政府米와 一般米를 구분하지 않고 調查時點(80년 6월)의 粳價格水準이 他物價에 비하여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適當한 수준이라고 應答한 家口가 全體調查家口의 45.7%를 차지하였으며, 簗 편이라는 家口가 32.7%인 반면에, 비 簬 편이라는 家口는 15.0%에 불과하였다 <表 9-39>. 이와 같이 調查時點의 粳價格이 다른 物價에 비해 簬 편이라고 생각하는 家口와 適當한 수준이라는 家口가 全體調查家口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調查時點의 粳價格은 消費者家計에 별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表 9-39. 현재의 米價水準에 대한 消費者意見

應答區分	家口數 (戶)	構成比 (%)
비 簬 편 이 다	45	15.0
簬 편 이 다	98	32.7
適當한 水準이 다	137	45.7
질 모 르 겠 다	20	6.6
計	300	100.0

한편 米價가 調查時點보다 약 10% 정도 인상될 경우 消費家口의 粳消費行為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調查家口 전체의 56.3%에 해당되는 169家口가 粳은 主食이므로 價格이 어느 정도 인상되더라도 消費量은 출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粳 消費를 줄이는 대신 보리쌀이나 다른 雜穀을 더 많이 소비하겠다는 家口가 71家口(23.7%), 一般米消費量을 줄이고 대신 政府米를 소비하겠다는 家口가 35家口(11.7%)였으며, 一般米 중 낮은 等級의 粳을 소비하겠다는 家口가 14家口(4.7%)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9-40>. 그런데 이를所得階層別로 보면所得이 높은階層 일수록 쌀消費量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應答한家口가 많았는데, 이는高所得家口일수록家計費支出에서米穀支出額이 차지하는比重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느정도의米價引上은全體家計費에 별로 큰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所得이 낮은階層 일수록 쌀消費를 줄이고 그 대신보리쌀 또는 그밖의雜穀을 더 많이 소비하겠다는家口가 많은 바, 이는低所得層家口일수록家計費支出額中에서米穀支出의比重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약간의米價引上이라 할지라도이들低所得家口의家計에는상당히큰부담을주기때문일것이다.

表 9-40.所得階層別米價引上에 따른쌀消費行為

單位: 戶(%)

區 分	10 萬 원 미 만	10 ~ 20 萬 원	20 ~ 30 萬 원	30 ~ 40 萬 원	40 萬 원 이 상	計
消 費 量	6	35	37	26	65	169
不 變	(35.3)	(39.8)	(56.1)	(65.0)	(73.0)	(56.3)
一般米 中 낮 은	1	3	7	1	2	14
等 級 을 消 費	(5.9)	(3.4)	(10.6)	(2.5)	(2.3)	(4.7)
政府米 消 費	-	9	9	5	12	35
增 大	-	(10.2)	(13.6)	(12.5)	(13.5)	(11.7)
보리쌀 또는 其他	9	34	11	7	10	71
雜 穀 을 混 食	(52.9)	(38.6)	(16.7)	(17.5)	(11.2)	(23.7)
無 應 答 또는	1	7	2	1	-	11
잘 모 르 겠 다	(5.9)	(8.0)	(3.0)	(2.5)	-	(3.6)
計	17	88	66	40	89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米價가약간인상되더라도쌀消費를줄이지않겠다는家口가약56%나되며,米價引上時쌀消費를줄이는대신보리쌀이나其他雜穀으로代替하겠다는家口는24%밖에되지않는것

으로 보아, 米價引上에 의한 보리 消費促進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리 消費促進을 위해서는 價格에 카니즘 이외에 보리混食에 대한 弘報活動強化 및 料食業所의 보리混食義務化가 필요하리라 본다.

6. 政府米에 관한 消費者意見

政府米의 品質에 대한 消費者의 意見을 보면 密陽 23 號가 나온 뒤부터는 政府米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家口가 전체 調査家口의 36.0 %였으며, 價格에 비하면 그래도 좋은 品質이라는 家口가 19.7 % 그리고 9 分搗精으로 환원된 뒤부터 政府米의 品質이 좋아졌다는 家口는 9.0 %로 나타난 반면, 政府米는 아직도 米質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응답한 家口가 18.3 %를 차지하였다 <表 9-41>. 이와 같이 政府米에 대한 消費者의 認識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米質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應答한 家口가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政府米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米質이 좋은 新品種의 지속적인 開發普及은 물론 糧穀保管施設의 改善에도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表 9-41. 政府米品質에 대한 消費者 意見

應答區分	應答者數(戶)	構成比(%)
密陽 23 號가 나온 뒤 政府米에 대한 認識이 높아졌다	108	36.0
9 分搗精으로 환원된 뒤 政府米의 品質이 좋아졌다	27	9.0
價格에 비하면 그래도 좋은 品質이다	59	19.7
政府米는 아직도 米質이 상대적으로 낫다	55	18.3
無應答	51	17.0
計	300	100.0

第10章 要 約

生產農家

1. 調査農家の 新品種 植付比率은 利川 地域이 62.2 %, 金堤地域은 69.3 % 그리고 論山地域은 71.6 %로서 利川地域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農家에서 新品種을 선택하는 동기는 「政府買上을 위해서」가 46.9 %, 「政府機關이 권장하는 品種이기 때문」이 34.5 % 순이었고 一般品種을 선택하는 동기는 「價格이 新品種보다 유리하다는 점」(46.9 %)과 「New品种보다 病蟲害에 강하기 때문」(23.9 %)으로 나타났다.
3. 調査農家の 米穀商品化率은 79.5 %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耕地規模別로 보면 大農層(2 ha 이상)이 85.4 %, 中農層(1 ha ~ 2 ha)이 75.9 %, 小農層(1 ha未滿)이 59.2 %로 나타나 大農層의 商品化率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4. 調査地域의 品種別 商品化率을 보면 新品種 商品化率은 利川 地域이 66.1 %로서 金堤 地域의 90.5 %, 論山 地域의 88.9 %보다 상당히 낮은 반면, 一般品種 商品化率은 利川 地域이 76.9 %로서 他地域보다 약 10 %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利川地域은 米質이 좋은 京畿米의 生產地로서 一般品種의 植付比率이 他地域보다 5 ~ 10 % 포인트 높은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農民들은 米質이 좋은 一般米(아끼바레)를 高價로 판매하고 新品種을 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調査農家の 全體 米穀商品化量 中 政府收買分이 67 %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產地蒐集商에게 販賣한 量이 12.9 %, 貨搗精業者가 11.6 %, 5日市場이 5.7 %, 農協이 2.5 %의 순이었다.
6. 品種別 販賣處를 보면 新品種의 商品化量 中 85.5 %가 政府收買분이었고, 一般米로 販賣된 量은 15.5 %에 불과하였다. 또 一般品種의 商品化量 중 政府收買比重은 2.5 %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물량이 商人이나 貨搗精業者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7. 調査地域別 一般米의 主要 販賣處를 보면 利川 地域은 一般米 販賣量의 약 74 %가 產地商人에게 판매되었고 金堤 地域은 一般米의 약 80 %가 貨搗精業者를 통하여 販賣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論山 地域에서는 一般米의 44.6 %가 5日市場에, 35 %가 貨搗精業者를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政府收買分을 제외한 一般米의 時期別 販賣狀況을 보면 1979년 10 ~ 12월사이에 販賣한 量이 32.0 %, 1980년 1 ~ 3월까지가 20.3 %, 4 ~ 6월까지가 30.1 %, 7 ~ 9월까지가 17.5 %로, 10月 ~ 12月에 다소 販賣量이 많으나 其他時期에는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政府收買量을 포함할 경우 10 ~ 12월 사이의 商品化率은 약 67 %로서 이 기간에 集中 出荷되고 있다.
9. 耕地規模別로 一般米 販賣狀況을 보면 10 ~ 12월 사이에 販賣한 量은 大農層은 16.4 %, 中農層은 28.3 % 그리고 小農層은 66.9 %로 規模가 작은 農家일수록 이 기간에 大量出荷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現金需要가 이期間에 集中하는 데 주로 기인된다.
10. 利川 地域은 產地商人이, 金堤 地域은 貨搗精業者가 物量確保를 위하여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하고 있으며 先渡金額은 最低 4 ~ 5만원에서 最高 50 ~ 60만원에 달하고 先渡金 使用期間은 대체로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商人們의 先渡金支給은 단기적으로는 農民의 資金需要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意義를 갖는 것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農民들이 商人資金에 의존할 경우 去來上 地位의 취약성으로 정당한 價格을 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農民에 대한 信用業務의 改善과 貸出의 擴大를 통하여 農民들의 先渡金依存率을 줄이는 對策이 소망스럽다.

12. 農民의 市場情報入手處別 利用率을 보면 利川 地域에서는 產地商人이나 5日市場으로부터가 74.2%, 農協이나 農協刊行物이 22.9%이었고, 金堤地域은 產地商人이나 5日市場이 81.1%, 農協이 14.2%이었으며, 論山地域에서는 5日市場이 97.5%로 나타나 대부분의 農民들은 市場情報를 產地商人이나 5日市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3. 이와 같이 農民들은 市場情報를 주로 商人(質搗精業者 포함)이나 5日市場에 의존하고 있는바, 農民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市場情報を 제공하기 위해서는 市場情報事業의 強化가 시급히 요청된다.

14. 調査農家の 米穀貯藏施設 利用實態를 보면 뜻간이나 倉庫 등 自家施設을 이용하는 農家가 78.6%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質搗精工場이나 農協直營搗精工場과 같은 他人施設을 이용하는 農家는 21.4% 정도로 나타났다.

15. 調査地域別 米穀貯藏施設 利用狀況을 보면 利川地域은 대부분의 農家가 自家施設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金堤地域은 他人施設인 質搗精工場 利用率이 51.9%, 論山 地域은 他人施設 利用率이 약 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產地商人

1. 利川 地域의 경우 產地商人들의 米穀買入處別 購入比率을 보면 農家가 78.8%, 產地蒐集商이 10.8%, 農協이나 5日市場이 각각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利川商人들은 대부분 物量確保를 위하여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募集等 車輛의 租리를 제공함으로써 生產農家와 밀접한 인적 관계를 맺고 米穀去來를 지속하고 있는 관계로 새로운 商人的 市場介入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利川 地域의 米穀蒐集(需要)은 小數의 利川商人들에 의한 需要寡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農家의 米穀販賣(供給)는 完全競爭的 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農家는 商人으로부터 先渡金을 지급받고 있으며 價格情報面에서도 商人에 비하여 어두운 관계로 米穀去來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利川 商人們의 主要 米穀販賣處는 利川消費者(52.5%), 서울 小賣商(36.2%), 서울 委託商(10.2%)이며, 서울로 搬出된 米穀 중 서울 小賣商과의 直去來量이 약 78.4%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

5. 현재 金堤 地域의 一般米流通에 관여하는 商人組織은 貨搗精業者 176 명, 糜穀小賣商 80 명, 都賣商 16 명 그리고 소수의 移出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商人 중 貨搗精業者를 통하여流通되는 物量은 약 80%나 되어 貨搗精業者가 米穀流通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6. 金堤 地域의 貨搗精業者들은 搗精物量確保를 위하여 農民에게 先渡金을 지급하고 있으며 米穀의 受託保管業務는 물론 募集·販賣機能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金堤地域의 경우 貨搗精業者가 米穀流通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搗精物量의 減少에 따른 收益性의 悪化로 추가적인 所得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米穀流通秩序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리라 본다. 따라서 現貨搗精工場의 既存施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하고 있는 貨搗精業者의 商行爲를 制度의으로 허락함으로써 음성적인 商行爲를 湯性化하고 이에 대한 指導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老朽化되고 영세한 貨搗精工場은 단계적으로 適正規模의 現代施設을 갖춘 貨搗精工場으로 대체되어야 하리라 본다.

8. 장기적으로 貨搗精工場의 規模가 擴大되고 施設이 現代化되면 이들 貨搗精工場을 「產地米穀集荷場」으로 活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 貨搗精工場의 施設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產地에서의 米穀의 等級화와 規格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9. 論山郡內에는 小賣商 109 명, 都賣商 5 명 등 總 114 명의 登錄된 商人이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小賣業만 할뿐 農家로부터의 米穀蒐集이나 외부로의 搬出機能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大田地方의 糜穀商人(小賣,

都賣商人)들이 小型車輛을 이용하여 論山郡內의 5日市場이나 貨搗精工場에서 직접 米穀을 募集·搬出하여 가고 있다.

10. 論山 地域은 利川이나 金堤 地域과 달리 商人們이 農家에 先渡金을 지급하지도 않으며, 農民들도 先渡金의 諸要性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5日市場에서의 米穀去來가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에 農民들은 現金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5日市場에 米穀을 出荷함으로써 現金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주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11. 論山 地域의 貨搗精業者들은 商行爲는 하지 않으며 다만 物量確保를 위하여 自己工場에서 搞精한 米穀을 商人에게 販賣를 앞선하여 주는 등 農民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貨搗精業者가 不當利得을 취득할 가능성은 農民들이 5日市場으로부터 늘 時勢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으리라 생각된다.

12. 米穀의 產地市場構造는 그 지역의 오랜 流通慣習과 地理的條件, 社會經濟的 諸與件의 차이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產地市場의 米穀流通改善方案도 그 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3. 貨搗精業者들은 대부분 自己工場에서 搞精한 米穀을 商人에게 販賣를 앞선하여 주는 이른바 農民과 商人과의 仲介 내지는 去來場所를 제공하는 등 「產地米穀集荷場」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를 貨搗精工場을 중심으로 한 產地市場의 改善方案은 앞으로 研究課題의 하나라 하겠다.

서울 消費地市場

1. 1979년도 全國米穀商品化量은 약 3,154 천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43.0 %는 政府經路, 55.9 %는 商人經路, 나머지 1.1 %가 農協經路를 통하여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2. 流通經路別推移를 보면 政府經路의 比重은 1974年 25.2 %에서 79년엔 43.0 %로 계속 증대한 반면 自由市場經路의 比重은 1974년 74.8 %에서 1979년 57 %로 계속 減少趨勢에 있다.

3. 1980년 6월 30일 현재 서울시에는 서초동糧穀都賣市場에 委託商 141명, 성동중앙시장, 영등포시장, 등지에 都賣商 29명, 小賣商 6,491명, 蒐集商 9명, 農協販賣店 1,384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4. 서울市의 경우 平均的으로 人口 1,057명당 1개소의 粮穀小賣店舗(一般小賣商 또는 農協販賣店)가 분포되어 있는 셈이며 地域別로 粮穀小賣店舗當 人口數를 보면 中區가 742명으로 제일 적고 江南區는 1,561명, 江東區는 1,404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5. 1979년도의 서울市 米穀搬入量은 약 1,050 천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政府米放出量이 69.0%로 大部分을 차지하였고, 農協系統出荷量은 1.7%, 都賣市場搬入量 3.2%, 產地直結搬入量이 26.1%로 추산된다.
6. 특히 全體搬入量 중 都賣市場搬入量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23.6%에서 1979년 3.2%로 현저히 低下됨으로써 都賣市場의 機能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와 같이 都賣市場搬入量의 比重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 것은 政府米放出量의 증대로 自由市場流通量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데다 產地商人과 消費地小賣商間의 直結去來가 성행하게 된데 주로 기인한다.
7. 都賣市場의 委託都賣商은 物量確保를 위해 產地의 蒐集·搬出商, 揭精業者등에게 先渡金을 지급하기도 하며, 米穀代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에 決濟하기도 한다. 서울市 서초동 都賣市場에서의 去來는 個別委託商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價格形성을 위해 서는 都賣市場의 育成과 公賣制度의導入이 요청된다.
8.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量을 보면 都賣市場의 委託·都賣商으로부터 구입한量은 24.4%에 불과하고 產地의 蒐集·搬出商人, 揭精業者등으로부터 購入한量이 71.4%로 產地直結去來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 小賣商이 產地直結去來를 하는 이유는 “品質이 좋은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38.1%, “購入時 費用이 적게 들거나 購入價格이 낮으므로”가 47.6%, “都賣市場이 멀고 불편해서”가 9.5%를 차지하였다.
10. 小賣商의 1日平均販賣量은 4.6kg이며 그 중 政府米가 차지하는 比重은 6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月 販賣量 130 吨인 中規模 小賣商의 月所得은 약 288 천원, 所得에서 自己資金利子만을 제외한 純收益은 불과 178 천원으로 조사되었다. 經營費中 店舖賃借料가 50 ~ 60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輸送費는 약 20 %, 租稅公課金은 약 10 %의 순이었다.
12. 產地 直結去來가 증대됨으로써 輸送費 및 中繼段階의 諸費用이 절감되고 있으나, 生產者와 消費者가 中間商人에 비하여 去來關係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어 그 효과는 대부분 中間商人의 利潤增大로 귀결되고 있다. 產地直結去來에 의한 費用節減效果가 生產者와 消費者, 商人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農協共販事業의 擴大 등으로 產地 및 消費地의 市場構造를 보다 競爭的으로 改善해야 할 것이다.
13. 京畿米의 경우(서울-利川間) 總마진은 各當 8,000 원으로 消費者價格에 대한 流通 마진율은 15.4 %이었고, 小賣商의 마진은 약 5,000 원으로 總마진의 63 %를 차지하고 있다. 小賣商의 一般米마진 各當 5,000 원은 政府米마진 2,000 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小賣商의 去來量이 적은데 주로 기인한다.
14. 小賣商의 經營收支를 개선함과 동시에 小賣商마진 上昇要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小賣商의 店舖와 自家勞動力を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商業 또는 서서비스업과의 兼業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15. 產地直結去來가 증대하게 된 근본적인 背景은 流通下部構造의 발달에 힘입어 流通費用을 줄이고 利潤을 증대시키려는 流通關聯者들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抑制하고 一般米를 만드시 都賣市場을 경유하여 流通되도록 制度的인 조치를 하는데는 限界가 있으며, 앞으로 都賣市場育成은 政府放出量이 流通量에 占하는 比率 如何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리라 본다.
16. 都賣市場育成을 위해선 현재의 類似都賣市場組織을 개편하여 法定都賣市場으로 制度化함으로써 公正去來를 保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都賣市場의 適正數, 位置, 規模등에 관한 구체적인 研究가 요청된다.

等級과 規格

- 一般米流通에 있어선 商人們에 의한 價行의 等級區分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等級化, 標準化制度가 未備된 상태이므로 中間商人들에 의한 物量 및 等級마진取得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農家에서 包裝資材의 利用實態를 보면 粗穀의 貯藏時, 가마니 包裝은 66.4 %, p.p 袋 23.9 %이며, 精穀販賣時엔 가마니 23.7 %, p.p 袋 76.3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一般米의 去來規格은 80 kg 單位가 일반적이며 小賣商에서는 解包하여 消費者의 購入量에 따라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消費者 家口

- 調查家口의 米穀購入頻度는 증가하는 반면에 1回 購入量은 減少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의 米價安定, 小規模包裝單位의 一般化 및 都市家口의 生活樣式變化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米穀의 購入時期決定基準으로써 調查家口의 92.3 %가 米價變動이나 其他 米穀市場의 與件變化에 별로 관심이 없이 쌀이 떨어지거나 收入이 생겼을 때 米穀을 주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역시 최근에 政府米를 상대적으로 낮은價格으로 大量放出한데 기인된다.
- 消費者家口의 米穀購入處別 購入比率을 보면 一般糧穀小賣商이 81.0 %로 지배적이었으며, 農協直賣場이 14.7 % 그리고 其他가 4.3 %로 나타났다.
- 調查家口중 89.3 %에 해당하는 268家口가 米穀購入時 단골 米穀商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단 단골거래가 성립되면 상당 기간동안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골거래의 이유중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 54.9 %로 가장 많았고, 價格보다는 良質米購入여부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米穀購入時 去來單位에 대한 消費者的 選好는 重量制가 61.0 %로서 지배적이었으나 아직도 容量去來를 選好하는 消費家口도 24.3 %나 되는

것으로 보아 重量去來制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教育과 弘報가 요청된다 하겠다.

6. 米穀의 包裝資材로는 小量去來의 경우 紙袋包裝을, 大量去來의 경우 P·P 袋를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代金決済方法은 現金去來가 89.7%, 外上去來는 7.3%에 불과하였다.

7. 調査家口의 家口當 月平均米穀消費量은 45.6 kg, 1人當 月平均消費量은 9.27 kg으로 나타났는데 家口當 消費量은 所得增加에 따라 增加趨勢를 보였으며 1人當 消費量은 所得階層間에 다소 기복은 있으나 家口當月所得 30 ~ 40 만원 수준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所得階層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消費者家口에서 주로 소비하고 있는 米穀의 種類는 低所得層일수록 政府米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반하여, 所得水準이 높은 階層일수록 一般米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政府米만을 購入하고 있는 이유로는 一般米에 비하여 價格이 低廉하기 때문이며, 一般米만을 購入하고 있는 이유로는 政府米에 비하여 米質이 좋기 때문이 지배적이었다.

9. 一般米의 產地別 選好에 있어 대부분의 消費者가 京畿米의 米質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米穀購入時 實제로 京畿米와 其他 地方米를 識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商人們이 等級마진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주고 있다. 한편, 米穀의 品種이 多樣化됨에 따라 產地別 品質의 차이보다는 品種別 米質差異가 더욱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消費家口의 보리混食實態를 보면 年中하고 있다는 家口가 30.0%, 전혀 안하고 있다는 家口가 37.0%이었고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보리混食家口의 比重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리消費促進을 위해서는 政府의 적극적인 보리混食勸獎, 보리混食에 관한 啓蒙 및 政府 보리쌀의 品質向上 등이 요망된다. 또한 混合穀의 보리 混合比率은 대부분의 消費家口가 現在의 20%보다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11. 米價에 대한 消費者의 反應을 보면 他物價에 비해 穗 편이거나 적당한 水準이라는 家口가 약 8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調査

當時의 米價는 消費者家計에 큰 負擔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所得水準이 높은 階層일수록 米價引上(10 % 정도)이 米穀消費行爲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家計費에서 米穀支出費가 차지하는 比重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12. 政府米의 品質에 대한 消費者들의 認識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政府米 중 品質이 좋은 密陽系統米의 比重이 높아진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長期保管 등에 따른 米質低下로 政府米는 아직도 米質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家口가 18.3 %나 되므로, 保管施設의改善과 糜穀管理의 效率化로 政府米의 米質 向上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附表 1. 16 個都市平均 米穀品種別 都賣價格動向(中品基準)

單位 ; 원 / 80 kg

月 別	1978		1979		1980	
	一般米	密陽 23 號	一般米	密陽 23 號	一般米	密陽 23 號
11	24,072	21,810	29,878	26,948	39,402	34,393
12	24,184	23,024	30,292	27,467	38,707	34,959
1	25,047	23,957	30,904	27,667	39,593	35,835
2	25,729	24,031	33,099	30,358	42,311	37,550
3	25,343	23,119	34,276	31,213	41,840	36,891
4	25,799	22,947	34,253	31,624	41,461	36,607
5	26,674	23,004	35,030	32,675	42,524	36,669
6	26,819	24,002	35,737	32,818	42,965	36,767
7	-	25,093	37,572	33,463	43,695	37,202
8	-	25,149	40,137	34,219	44,472	37,381
9	27,845	25,131	40,705	34,227	50,907	39,631
10	28,810	25,656	41,223	34,189	54,734	45,670
米穀年度 平 均	26,032	23,910	35,259	31,406	43,551	37,463
會計年度 平 均	27,224	24,709	36,754	32,650		

資料 ; 農水產部 食糧局, 穀穀價格便覽, 1979.

參 考 文 獻

- 國務總理企劃調整室評價教授團, 「流通構造改善에 관한 調查研究－農水產物을 中心으로－」, 1978. 8.
- 金正基, “農產物流通關聯稅法과 流通助成機能”, 「農村經濟」 Vol Ⅲ No 3,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9.
- 農林部, 「米穀流通 및 價格政策(세미나報告)」, 1971.
- 農業經營研究所, 「米穀市場流通에 관한 研究－京畿米中心－」, 農業經濟研究B－5, 1970.
- 農業經營研究所, 「米穀流通構造에 관한 研究－湖南米를 中心으로－」 農業經濟研究報告, 39, 1971.
- 農業經營研究所, 「米穀의 價格, 流通 및 消費에 關한 研究」, 農業經濟研究報告, 47, 1972.
- 農協中央會, 「韓國農產物市場制度」, 1965.
- 農協中央會調查部, IMI 合同市場調查團, 「米穀마케팅調査報告書」, 韓美市場資料－Ⅱ, 1968.
- 農協中央會, “都市家口의 農產物購入動向分析”, 農協調查月報, 1977, 10月號.
- 農協中央會, 「米穀마케팅實態調査報告書」, 1978.
- 農協中央會, 「全國都市家口의 農產物購入狀況調査報告書」, 1978.
- 農協中央會, 「農畜產物의 流通과 市場(日本)」, 共販資料 '78－第1輯, 1978.
- 農水產部, 「韓國糧政史」.
- 農水產部, 「糧穀消費疊調查結果(Ry 70 ~ 79)」, 1980.
- 藤谷築次外, 「農產物流通の 基本問題」, 家の光協會, 1974.

- 美崎 皓 外, 「食糧管理と米の流通」, 家の光協會, 1969.
- 釜山商工會議所, 釜山經濟研究센타, 「農水產物流通構造에 關한 研究」
1980.
- F A O 韓國協會, “米穀消費패턴에 關한 研究” 「國際食糧農業」,
1971, 12月號
- 御園喜博, 「農產物價格形成論」, 東京大學出版部, 1977.
- 李詳祚, 「韓國米穀市場論」, 大成文化社, 1975.
- 通商產業省 企業局, 「地域經濟と流通近代化」, 1978.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아시아諸國의 食品流通」, 政策協議會시리즈
4, 1980. 7.
- J . C . Abbott , et al , Rice Marketing, F A O Marketing Guide
No 6. Rome , 1972.
- L . B . Darrah , Food Marketing , The Ronald Press Company ,
New York, 1971.
- R . L . Kohls & W. D. Downey,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 Macmillan Company, 1972.